

고려청자 천년만의
강진 귀향

Goryeo Celadon,
Returning to Gangjin
After a Millennium

고려청자 천년만의
강진 귀향

Goryeo Celadon, Returning to Gangjin
After a Millennium

발간사

「고려청자, 천년만의 강진귀향」 특별전을 열며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제39회 강진청자축제의 기획행사로 「고려청자, 천년만의 강진귀향」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고려시대 유일한 왕실 관요가 위치했던 전남 강진에서 생산된 국보와 보물급 고려청자가 천년 만에 다시 고향 강진을 찾아 금의환향(錦衣還鄉)하게 됩니다.

이번 특별전은 9세기경부터 14세기까지 500여 년간 강진에서 생산되어 사랑받고 있는 국보와 보물급 청자를 전통 고려청자의 본향인 강진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특별전은 강진청자축제 개막일인 오는 7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60일 동안 강진청자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갖게 됩니다.

현재 일본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 6점을 포함한 대여유물 22점과 강진청자박물관 자체 소장유물 30점 등 모두 52점이 공개됩니다.

강진청자박물관에서 국보와 보물급의 다양한 고려청자의 진면목을 한 자리에서 느껴 보시기 바라며, 이번 특별전이 일반인뿐만 아니라 고려청자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귀중한 소장품을 흔쾌히 대여해 주신 국내·외 최고 박물관 및 개인 소장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특별전을 열심히 준비해 주신 민족문화유산연구원의 한성욱 원장과 직원 모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1년 7월

강진군수 황 주 흥

Publication Remark

Holding a Special Exhibition 「Goryeo Celadon, Returning to Gangjin After a Millennium」

As part of the 39th Gangjin Celadon Festival, which was selected as the representative Korean festival, a special exhibition 「Goryeo Celadon, Returning to Gangjin After a Millennium」 is planned.

Goryeo Celadon, some pieces of which are national treasures, the others have the same value of treasures made in Gangjin, Jeollanamdo, is returning home in glory after a millennium.

This special exhibition is planned to give a chance to see national treasures and other ones in person made in Gangjin from the 9th through the 14th century.

The exhibition will last for 60 days, from July 30th to September 30th at Gangjin Celadon Museum.

In total, fifty-two pieces of celadon will be exhibited. Thirty pieces are owned by the museum, and twenty-two are on loan from foreign countries, including six from Japan.

This special exhibition is a great opportunity to both lay people and researchers to appreciate the cultural value of Goryeo Celadon to Korea and our region.

I would like to offer my sincere gratitude to the museums in and outside the country and private owners for loaning us their precious collections.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thanks to Han Sung-Uk, director of National Cultural Heritage Institute, and all the officials of the museum.

July 2011

Mayor of Gangjin Hwang Ju Hong

發刊の辭

「高麗青磁、千年ぶりの康津帰郷」 特別展を開催するにあたり

大韓民国代表祝祭に選定された第39回康津青磁祭りの企画行事に「高麗青磁、千年ぶりの康津帰郷」特別展を準備致しました。

高麗時代唯一の王室の官窯が置かれていた全羅南道康津で生産された国宝と宝物級の高麗青磁が、千年ぶりに再び故郷康津を訪れ、故郷に錦を飾ることになりました。

今回の特別展は、9世紀頃から14世紀まで約500年間にかけて、康津で生産し愛用されている国宝と宝物級青磁を高麗青磁の伝統を持つ本郷の地である康津で直接鑑賞する機会を提供するため準備致しました。

特別展は、康津青磁祭りの開幕日である7月30日から9月30日までの60日間にかけて、康津青磁博物館企画展示室にて開催されます。

現在日本が所蔵している六つの作品を含めた貸与遺物22点と康津青磁博物館にて所蔵している遺物30点など、合わせて全部で52点を公開致します。

康津青磁博物館では、国宝と宝物級の多様な高麗青磁の真価を同時に感じることでできる場所を提供し、一般の方々だけにとどまらず、高麗青磁を研究されている方々にも貴重な機会となりますように願ってやみません。

最後に貴重な所蔵品を快く貸して下さった国内外の最高の博物館及び個人所蔵者の皆様方に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この特別展のためにご苦勞されたハン・ソンウク民族文化遺産研究院院長ならびに全職員の方々にも感謝の旨お伝え致します。

2011年 7月

康津郡守 黄 柱 洪

유물 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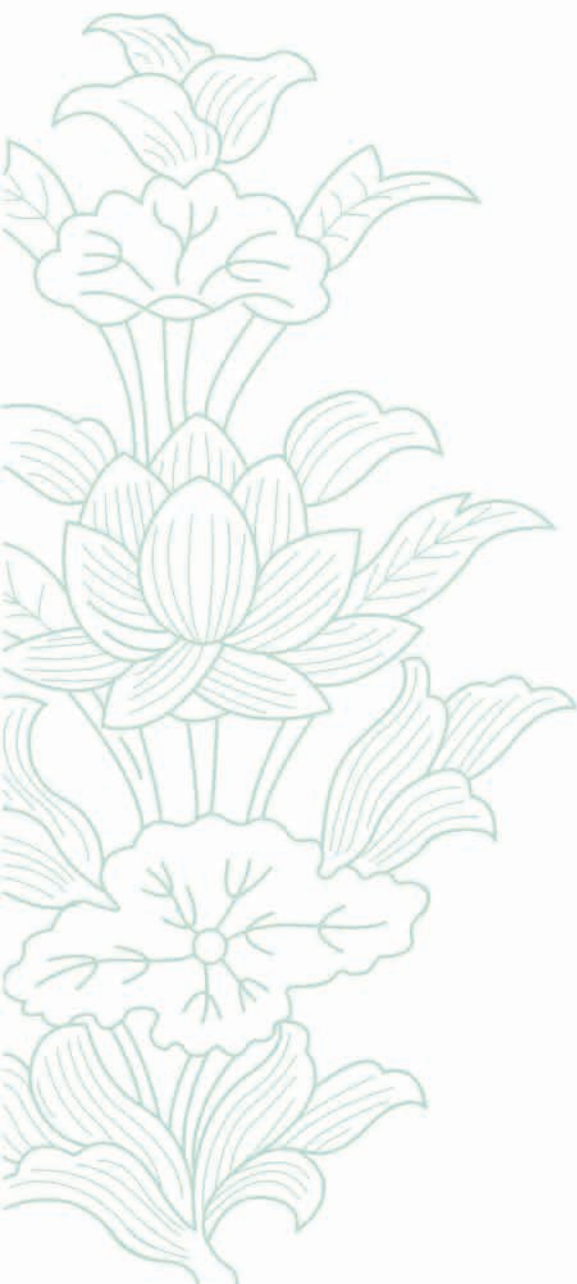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선문대학교박물관
호림박물관
개인 소장가
高麗美術館(日本)
出光美術館(日本)

전사·도록

기획 : 신상식(강진청자박물관)·한성욱(민족문화유산연구원)
진행 : 하정임·김행주(강진청자박물관)
 김병수·김종구·권용선·채현기·이지훈(민족문화유산연구원)
원고 : 한성욱

일러두기

1. 이 책은 강진청자박물관에서 개최하는 《고려청자 천년만의 강진귀향》(2011년 7월 30일~9월 30일) 특별전의 전시 도록이다.
2. 유물은 모두 소장처를 표기하였다.
3. 전시 유물은 강진 대구면 용운리·계율리·사당리 등의 가마터에서 유사한 파편이 출토되어 강진에서 생산된 것으로 판단되는 유물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4. 크기는 높이(高 cm)와 입 지름(口徑 cm), 굽 지름(底徑 cm)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강진청자박물관 소장품은 굽 너비(底幅 cm)와 무게(重量 g), 부피(容量 ml)를 추가하였다. 주자와 합 등 조합을 이루는 기종은 총 높이(總高 cm)와 총 무게(總重量 g)를 제시하였다.
5. 사진은 강진청자박물관과 선문대학교박물관 소장품은 김광섭(K 아트스튜디오)이 촬영하였으며, 이외의 사진은 소장 기관에서 제공하였다.
6. 이번 특별전에 전시되지는 않았으나 도록에 게재된 유물은 참고 사진으로 표기하였³.



목 차

발간사	004
유물 소개	006
유물 목록	140
부록	
강진청자의 생산과 유통-한성옥	148

유물 소개








01

청자음각여의운문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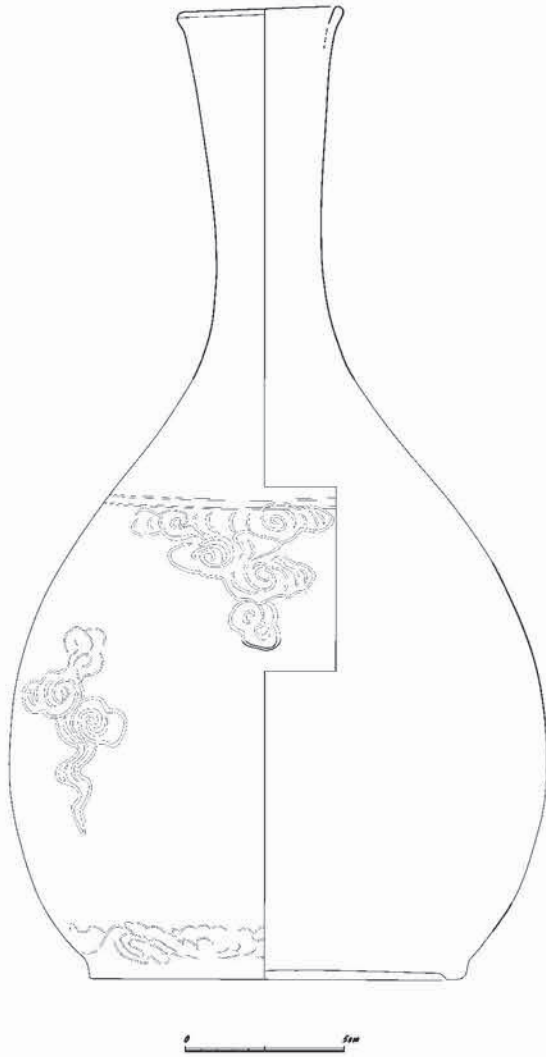
靑磁陰刻如意雲文瓶 (보물 제1035호)

Celadon Bottle with Incised Yeoui and Cloud Design

개인 소장 | 높이 29.0 | 입 지름 5.9 | 굽 지름 9.5

목을 길게 만든 병으로 매우 세련된 조형미를 갖추고 있다. 아가리 부분은 얇고 밖으로 넓게 벌어진 것이며, 어깨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또 동체의 아랫부분은 볼록하고 굽은 다소 높지만 넓어 안정감을 준다. 아가리에 무늬의 배경을 넓게 파내어 양각의 효과를 내는 반양각 기법으로 넝쿨 무늬를 새겨 넣은 것이 특징이다. 어깨 윗부분은 1줄 음각선을 새겨 넣고, 아래에는 여의두(如意頭) 무늬를 반양각기법으로 돌렸다. 동체는 드문드문 작은 구름 무늬를 새기고, 밑 부분에는 연꽃잎 무늬를 돌렸다. 굽바닥과 안 바닥 4곳에 규석을 받쳐 갑번(匣燻)하였다. 





02

청자음각여의운문병

靑磁陰刻如意雲文瓶

Celadon Bottle with Incised Yeoui and Cloud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높이 30.4 | 입 지름 5.2 | 굽 지름 11.9 |

굽 너비 0.6 | 무게 1,317.7 | 부피 2,449.0

몸통이 가름하고 목이 긴 청자 병이다. 병의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어 우아하면서 안정감이 있다. 무늬는 어깨 부분에 2줄 음각선을 돌렸으며, 밑 부분에는 섬세한 녕쿨 무늬를 돌리고 있다. 그 사이를 3단으로 나누어 각 4곳에 등간격으로 서로 엇갈리도록 구불구불하게 장식적인 구름을 시문하였다. 불룩한 동체에 조각칼을 옆으로 비스듬히 뉘여 깎아 마치 돌을 새긴 것 같은 효과를 준다. 입술은 살짝 벌어졌고 입에서 목으로 서서히 좁아 들다가 다시 벌어져 동체로 이어진다. 그 선이 부드럽고 자연스럽다. 굽 안 바닥 4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





03

청자상감유노수금문병

靑磁象嵌柳蘆水禽文瓶

Celadon Bottle with Inlaid Willow, Reed, and Waterfowl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높이 35.3 | 입 지름 8.4 | 굽 지름 11.0 | 굽 너비 0.9 |
무게 2,289.9 | 부피 3,045.0

고려 후기에 만들었으나 형태와 무늬, 유약, 태토 등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 아가리는 나팔 모양으로 넓게 벌어진 채 긴 목이 자연스럽게 좁아지면서 동체가 적당한 양감(量感)으로 둥글게 성형되었다. 측면의 부드러운 S자 곡선이 매우 유려하다. 목 중간부터 밑 부분까지 세로로 홈을 내어 6개의 면으로 분할한 후 각 면의 가장자리를 백상감과 흑상감의 2줄 선으로 다시 구획하였다. 각 면의 목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는 냉쿨 무늬와 여의두(如意頭) 무늬를 배치하고, 밑 부분에는 이중으로 겹쳐진 연꽃잎을 돌렸다. 가운데 중심 무늬는 버드나무와 학 4마리, 갈대와 학 2마리, 연꽃으로 구성된 3가지 주제의 무늬를 서로 마주 보도록 각 2면에 시문하였다. 태토가 정선되어 표면이 매끄럽고 유약이 잘 녹아 무늬가 뚜렷하다. 굽은 안 바닥을 깎아 낸 속 굽으로 굽 부분의 유약을 깨끗이 닦아 낸 후 굽바닥에 거친 내화토 비집을 받쳐 구웠다. 🇰🇷





04

청자상감국연학문병

靑磁象嵌菊蓮鶴文瓶

Celadon Bottle with Inlaid Chrysanthemum, Louts, and Crane Design

선문대학교박물관 | 높이 33.9 | 입 지름 8.9 | 굽 지름 12.1 | 굽 너비 0.8

나팔처럼 벌어진 아가리와 긴 목, 어깨부터 벌어져서 풍만한 동체를 이루는 유려한 병이다. 동체는 세로로 홈을 내 6개의 면으로 분할한 후 각 면의 목과 어깨에는 이음줄 국화와 연주문(連珠文)을 시문하였으며, 측면 중심 무늬는 대칭으로 연꽃 속 2곳에 학을 배치한 후 그 사이는 다시 문양대를 구획하여 이음줄 국화를 시문하였다. 밑 부분에는 연꽃잎을 돌렸다. 연이은 국화 줄기와 연꽃 속 연꽃과 학의 모습이 잘 어울려서 아름다운 조형성을 갖추고 있다. 굽 부분의 유약은 닦아 낸 후 거친 내화토 가루를 받쳐 구웠다. 🌈





05

청자음각연화문매병

靑磁陰刻蓮花文梅瓶

Celadon Meiping Vase with Incised Lotus Design

호림박물관 | 높이 34.0 | 입 지름 6.2 | 굽 지름 12.5

무늬는 음각으로 시문하였는데 어깨에는 불로초(不老草) 무늬를, 밑 부분은 불로초 무늬와 번개 무늬를 돌렸다. 중심 무늬는 측면 3곳에 연꽃 가지를 크게 시문하였다. 굽은 안 바닥을 깎아 낸 속 굽으로 그릇 전체를 시유한 후 굽바닥을 닦아낸 다음 9 곳에 거친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특히 굽 안 바닥에 (◎)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 부호는 강진 사당리 23호와 27호 가마 터에서만 나타나므로 그 생산지가 확인되는 우수작이다. 🇰🇷



06

청자음각연화문매병

靑磁陰刻蓮花文梅瓶

Celadon Meiping Vase with Incised Lotus Design

出光美術館(일본) | 높이 30.4 | 입 지름 5.8 | 굽 지름 9.5



무늬는 음각으로 시문하였는데 어깨 4곳에 불로초(不老草) 무늬를 돌렸으며, 밑 부분 역시 어깨와 마주 보도록 4곳에 불로초 무늬와 1줄의 음각선을 돌렸다. 동체 4곳에 등간격으로 연꽃 가지를 크게 시문하였다. 굽은 안 바닥을 깎아 낸 속 굽으로 그릇 전체를 시유한 후 굽바닥을 닦아 낸 다음 거친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07

청자음각모란문매병

青磁陰刻牡丹文梅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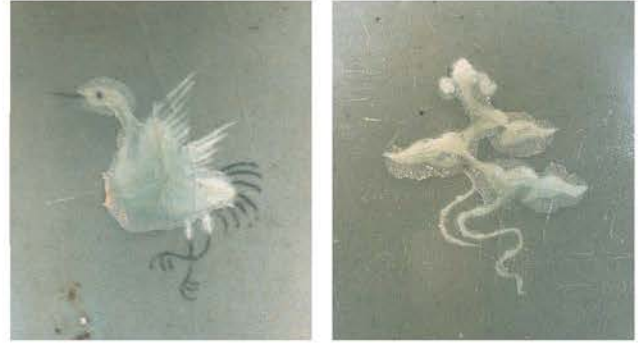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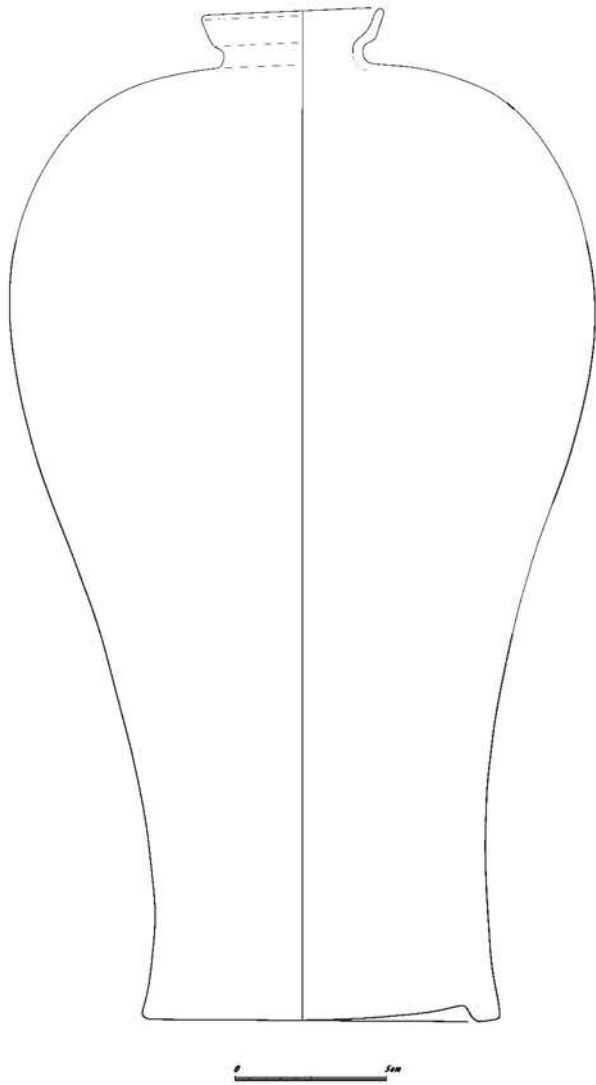
Celadon Meiping Vase with Incised Peony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높이 39.3 | 입 지름 6.5 | 굽 지름 15.3 | 굽 너비 1.0 |

무게 4,000.3 | 부피 9,604.7

동체보다 아가리의 지름이 작고 어깨가 둥글게 벌어졌으며,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다가 밑 부분에서 약간 밖으로 벌어졌다. 초기 매병에 비해 어깨가 올라가고 밑 부분의 곡선이 밖으로 벌어지면서 부드러운 S자형을 이루고 있다. 밑 부분의 번개 무늬를 제외한 그릇 전체에 모란을 배치하였다. 이때 만개한 꽃봉오리는 크기를 다양하게 시문하였으며, 꽃앞에 다시 세선(細線)을 음각하여 줄기와 잎맥까지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태토와 유약은 정선되었으나 유약이 일부 산화되었으며 기포가 많은 편이다. 구울 때 굽 안 바닥 중앙이 솟아올라 불안정하다. 굽은 안 바닥을 깎아 낸 속 굽으로 굽바닥의 유약을 닦아 낸 후 거친 내화토 비집을 받쳐 구웠다. 🌱





08

청자상감운학문매병

靑磁象嵌雲鶴文梅瓶

Celadon Meiping Vas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높이 33.1 | 입 지름 6.0 | 굽 지름 11.8 | 굽 너비 1.2 |
무게 2,444.0 | 부피 4,560.2

밑 부분이 어깨보다 약간 길게 성형되었으나 당당한 형태와 여백의미를 느낄 수 있는 수작이다. 어깨와 밑 부분은 각각 여의두(如意頭) 무늬와 번개 무늬를 돌렸으며, 측면의 중심 무늬는 구름 5장과 학 3마리를 배치하였다. 매병 전체에 양식화된 무늬를 촘촘하게 상감한 유형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학이 날아오르기 위해 날개 짓을 하는 모습, 이미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 등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여의두와 번개, 구름은 백상감으로, 학은 흑백상감으로 시문하였다. 태토와 유약이 정선되었으나 일부 산화되어 갈색을 띠는 곳도 있다. 굽은 안 바닥을 깎아 낸 속 굽으로 굽바닥의 유약을 닦아 낸 후 거친 내화토를 받쳐 구웠다. 🇰🇷



09

청자상감모란문매병

靑磁象嵌牡丹文梅瓶

Celadon Meiping Vase with Inlaid Peony Design

出光美術館(일본) | 높이 28.3 | 입 지름 5.0 | 굽 지름 10.7



동체 3곳에 등간격으로 단정하게 모란꽃 가지를 배치하고 밑 부분에 번개 무늬를 돌려 여백의미를 강조한 매병이다. 태토와 유약이 정선되었으나 일부 산화되어 갈색을 띠는 곳도 있다. 굽은 안 바닥을 깎아 낸 속 굽으로 굽바닥의 유약을 닦아 낸 후 5곳에 거친 내화토 비집을 받쳐 구웠다. 🌱





10

청자상감연화유문 '덕천' 명매병

靑磁象嵌蓮花柳文 '德泉' 銘梅瓶 (보물 제1452호)

Celadon Meiping Vase with Inlaid Lotus and Willow Design and Inscribed 'Deokcheon'

호림박물관 | 높이 27.8 | 입 지름 5.1 | 굽 지름 11.1

기형은 입술이 외반되고 어깨에서 허리에 이르는 윗부분은 둥근 구형(球形)으로 성형되었으며, 밑 부분은 허리가 매우 잘록하고 굴곡이 심해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느낌을 준다. 유색은 갈색 또는 녹색을 띠고 있다. 1345년 제작된 《청자상감유노문 '을유사온서' 명 매병(靑磁象嵌柳蘆文 '乙酉司醞署' 銘 梅瓶)》보다 동체가 팽창되고 허리가 더욱 가늘어지고 있어 분청자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형임을 알 수 있다. 무늬는 중심 무늬가 있는 동체의 경우 물결 무늬를 배경으로 연꽃과 버드나무를 간략하게 시문하였다. 어깨 부분에는 커다란 연꽃잎과 변형 여의두(如意頭) 무늬를, 밑 부분에는 크고 약화된 백상감 연꽃잎을 돌렸다. '덕천' 명은 무늬 사이에 필각(筆刻)하였다. 굽은 바닥을 편평하게 만든 평저형이며 모래를 받쳐 구웠다. 제작 시기는 덕천창(德泉倉) 또는 덕천고(德泉庫)에 해당하므로 1308년~1403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 되는데 그릇의 형태와 무늬가 1345년에 제작된 《청자상감유노문 '을유사온서' 명 매병》보다 훨씬 퇴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1345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덕천' 명 매병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소장하고 있다. 🇰🇷



11

청자구룡형정병

靑磁九龍形淨瓶 (일본 중요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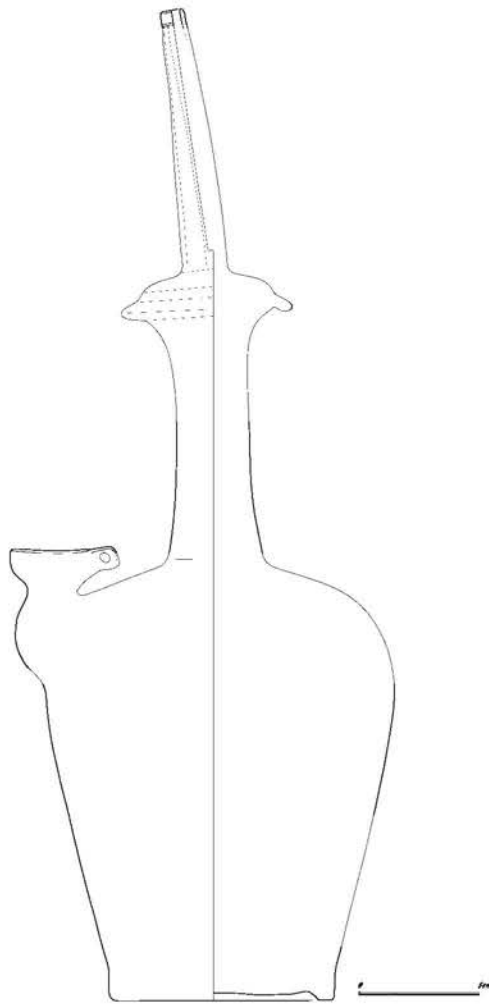
Celadon Nine Dragon-shaped Kundika

大和文華館(일본) | 강진 고분 출토 | 높이 33.5 | 등체 지름 12.5



입수구(入水口)와 출수구(出水口), 환대(環臺)의 윗면, 어깨 부분에 세밀하게 표현된 용 9마리의 머리를 붙여 만든 매우 이례적인 정병이다. 어깨와 동체에는 용머리와 연결되는 용의 몸을 열은 부조(浮彫)로 표현하였다. 파도 속에서 힘차게 역동적으로 상승하는 용의 모습이 긴박감을 주고 있다. 용의 눈은 철화로 그렸으며, 비늘과 파도는 칼날을 얹혀 윤곽을 그린 다음 얇은 선각 기법으로 정밀하게 시문하였다.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게 용융된 곳이 있으나 전성기 비색(翡色)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고품격의 양질 청자이다. 승반과 함께 고려 고분에서 출토되었으나 현재까지 승반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12

청자상감모란문정병

靑磁象嵌牡丹文淨瓶

Celadon Kundika with Inlaid Peony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높이 41.1 | 입수구 입 지름 3.5 | 동체 지름 14.5 |
 굽 지름 9.4 | 굽 너비 0.8 | 무게 1,778.3 | 부피 1,473.1

정병은 불교에서 부처나 보살에게 바치는 맑은 물을 담은 물병이다. 일반적인 물병과 달리 물을 담은 입수구(入水口)가 동체 옆에 있고, 물을 따르는 출수구(出水口)를 따로 만들어 정병의 목 부분에 접합하고 중간에 둥글고 넓은 환대(環臺)를 붙여 만들었다. 원래 입수구에는 뚜껑이 있어 고리를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되었으나 결실되었다. 동체 전면(全面)에 활짝 핀 모란꽃 가지를 자유롭게 배치하였는데, 위치가 일정하지 않다. 아랫부분 3곳과 입수구 왼쪽의 모란은 봉오리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란을 시문하면서 면적이 좁아지자 크기가 작은 봉오리 형태로 변형시킨 것으로 장인의 재치가 엿보인다.

가늘고 긴 출수구는 팔각형으로 각이 저 있는데 굽는 과정에서 약간 휘어졌다. 8면을 모두 무늬로 채우지 않고 4곳에만 교대로 넝쿨 무늬를 상감하여 여백을 주었다. 출수구 아가리와 환대 가장자리, 밑 부분에는 번개 무늬를 돌렸으며, 환대의 둥근 윗면에도 모란꽃을 4송이 상감하였다. 입수구 위쪽에는 연꽃잎 띠를 상감하고, 볼록하게 튀어나온 아래쪽은 음각기법으로 넓은 연잎을 표현하였는데, 가장자리가 두 겹으로 겹치도록 처리하여 입체감을 주었다. 입수구 내측에는 고리를 붙여 끈으로 뚜껑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과 동체 일부는 약간 산화되어 갈색을 띠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유약이 잘 녹아 담록색(淡綠色)을 띤다. 바깥 면 전체에 무늬가 있으나, 대부분 백상감으로 시문하여 화려해 보이지 않고 단정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굽은 안 바닥을 깎아 낸 속 굽으로 굽바닥의 유약을 깨끗이 닦아 낸 후 거친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13

청자양각연판문양이병

靑磁陽刻蓮瓣文兩耳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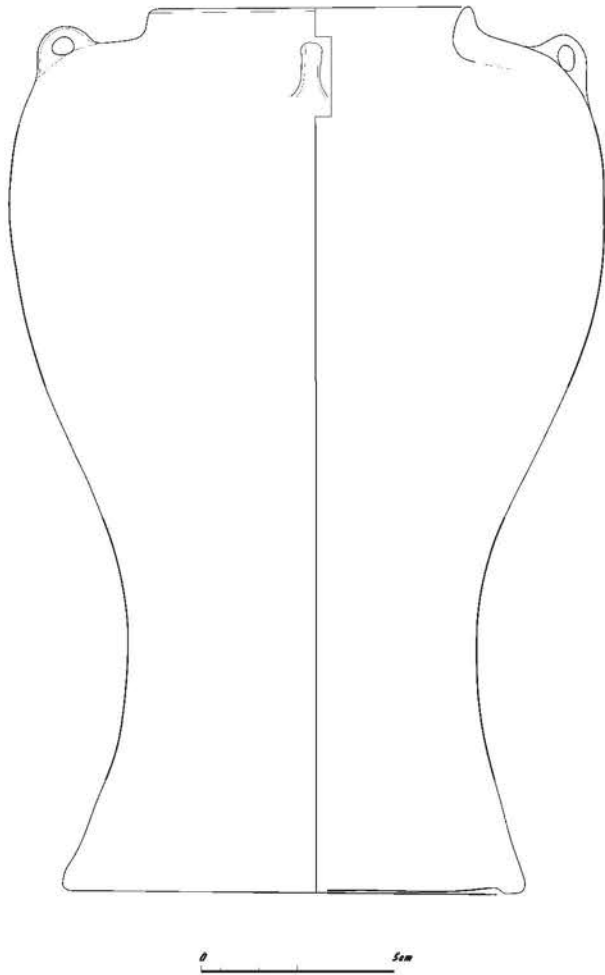
Celadon Bottle with Raised Lotus Petal Design

선문대학교박물관 | 높이 25.0 | 입 지름 9.6 | 굽 지름 10.5 | 굽 너비 0.6



어깨 양쪽에 S자형 귀와 둥근 고리가 부착된 양이병이다. 길게 곡선을 이루는 어깨부와 외반된 아가리, 둥글고 풍만한 동체를 지니고 있으며, 굽은 높고(2.3cm) 외반되었다. 무늬는 어깨에 여의두(如意頭) 무늬(15개)를, 밑 부분에는 연꽃잎 무늬(13개)를 돌렸다. 또한 여의두 무늬 위는 1줄의 퇴화(堆花) 점무늬를 돌렸으며, 연꽃잎 위에는 꽃술을 세밀하게 음각으로 시문하였다. 비색(翡色)의 유약을 두텁게 시유하였으나 굽 부분 등 일부 시유되지 않은 곳이 있다. 굽 안 바닥 2곳에 규석 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





14

청자상감매노학접문사이호

靑磁象嵌梅蘆鶴蝶文四耳壺

Celadon Jar with Inlaid Apricot Flower, Reed,
Crane and Butterfly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높이 23.0 | 입 지름 8.3 | 굽 지름 12.0 | 굽 너비 0.7 |
무게 1,631.8 | 부피 1,936.6

갈대를 중심 무늬로 부수적인 소재를 여백에 배치한 사이호이다. 원래 뚜껑이 있었으나 남아 있지 않다. 입 지름이 넓고 아가리를 짧게 곧추 세운 형태이다. 어깨에는 여의두(如意頭) 무늬를 돌렸으며, 작은 고리 4개가 부착되었다. 무늬는 동체 전면(全面)에 상감하였는데, 먼저 2곳에 갈대를 크게 배치한 다음 갈대 사이의 공간에 가는 줄기에서 피어나는 매화를 대각선 구도로 작게 표현하였다. 특히 갈대 줄기와 잎은 선명한 흑상감으로 표현하여 시선을 집중시킨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는 나비 18마리와 학 4마리를 배치하였다. 갈대를 보면, 양쪽 가장자리에 있는 갈대는 꺾여 있고 나머지는 위를 향해 있다. 갈대 끝에는 각각 2마리의 나비를 새겨 놓았다. 또한 학은 매화를 중심으로 1마리는 나비를 올려다 보고 있고, 다른 1마리는 고개를 숙여 뭔가를 찾는 모습이다. 따라서 무늬의 소재와 구도, 배치 등을 미리 계획적으로 충분히 구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밑 부분은 백상감 번개 무늬를 돌렸다. 유색은 부분적으로 산화(酸化)되어 갈색을 띠고 있으며 유약이 묻쳐 있는 곳도 있다. 굽은 안바닥을 깎아 낸 속 굽으로 굽 부분의 유약을 닦아 낸 후 굽은 내화토 가루를 받쳐 구웠다. 🌈









15

청자상감모란문편호

靑磁象嵌牡丹文扁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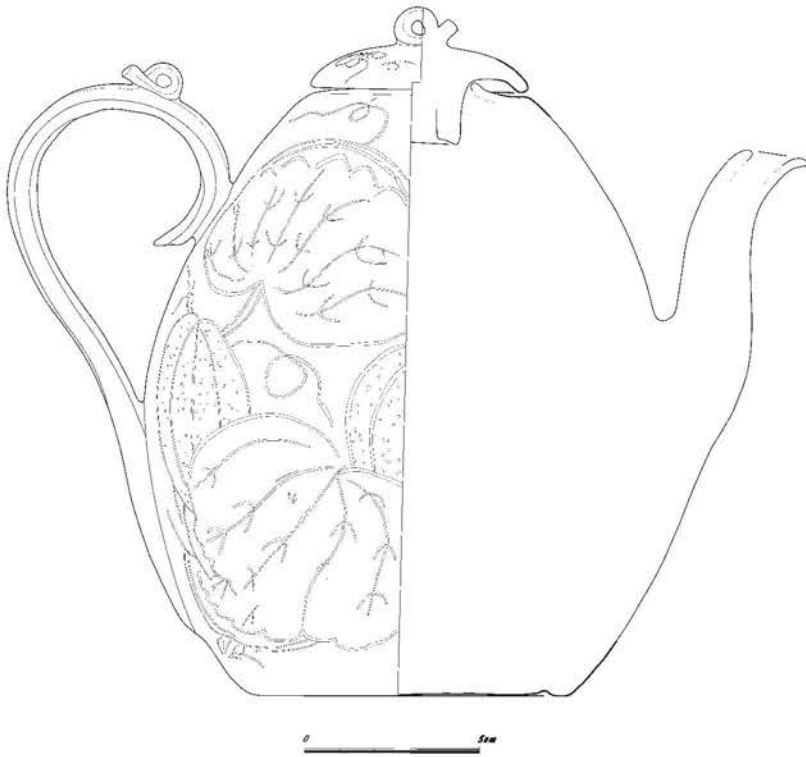
Celadon Flat Jar with Inlaid Peony Design

高麗美術館(일본) | 높이 28.0 | 입 지름 7.8 | 굽 지름 11.8



고려 후기 원(元)의 영향을 받아 동체 양면을 편평하게 만든 편호이다. 어깨에는 연주문(連珠文)과 연꽃잎, 여의두(如意頭) 무늬를 돌렸으며, 밑 부분에는 연꽃잎 무늬를 돌렸다. 측면의 편평한 면에는 여의두와 2줄의 신문으로 능화형(菱花形) 창을 만든 다음 그 안에 흑백상감으로 커다란 모란을 시문하였다. 창 밖은 전면(全面)에 운학문(雲鶴文)을 촘촘하게 인쇄상감(印花象嵌)하였는데, 곡면부 양측면에 시문한 학은 위·아래에 2마리, 중간에 1마리를 배치하였다. 굽은 안 바닥을 깎아 낸 속 굽으로 굽바닥의 유약을 깨끗이 닦아 낸 후 거친 내화토 가루를 받쳐 구웠다. 🇰🇷





16

청자음각과문주자

靑磁陰刻瓜文注子

Celadon Pitcher with Incised Melon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총 높이 19.6 | 총 무게 1,438.8 |
 뚜껑 높이 3.7 | 뚜껑 입 지름 2.2 | 뚜껑 무게 53.7 |
 주자 높이 17.5 | 주자 입 지름 3.3 | 주자 굽 지름 9.1 | 주자 굽 너비 0.7 |
 주자 무게 1,385.0 | 주자 부피 1,673.8

가름한 형태의 손잡이와 물을 따르는 주구, 뚜껑을 모두 갖춘 주자이다. 뚜껑과 손잡이 위에는 넝쿨의 줄기를 본뜬 작은 고리를 붙여 끈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름한 주자의 측면에는 주렁주렁 매달린 참외와 넝쿨이 음각되어 있는데, 참외의 표면에는 점을 찍고 넝쿨과 꽃까지 세밀하게 시문하여 사실감을 더하고 있다. 손잡이는 흙을 내 성형하였으며, 뚜껑에 참외 꽃을 대칭으로 음각 시문하였다. 굽바닥의 유약을 닦아 낸 후 5곳에 거친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참외는 열매와 씨앗이 많고 넝쿨이 줄기차게 이어져 있어 자손의 번성과 끊이지 않는 생명력을 상징한다. 🌱





고려청자 천년만의 강진귀항



17

청자죽순형주자

靑磁竹筍形注子

Celadon Bamboo-shaped Pitcher

선문대학교박물관 | 총 높이 25.0 |

뚜껑 높이 7.7 | 뚜껑 입 지름 3.3 |

주자 높이 19.4 | 주자 입 지름 4.2 | 주자 굽 지름 10.0 | 주자 굽 너비 0.6



뚜껑과 동체를 죽순 형태로 단정하게 성형하였다. 주구(注口)와 손잡이는 대나무의 마디 형태로 만들었는데 손잡이에는 뚜껑과 끈에 연결할 수 있도록 고리가 붙어 있다. 동체 무늬는 음각과 양각 기법으로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유색은 전성기의 비색(翡色)을 띄며, 굽 주변의 유약을 닦아 낸 다음 굽바닥 5곳에 거친 내화토 비집을 받쳐 구웠다. 🌱





고려청자 천년만의 강진귀항



18

청자과형주자

靑磁瓜形注子

Celadon Melon-shaped Pitcher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태안 대섬(죽도) 해저유적 출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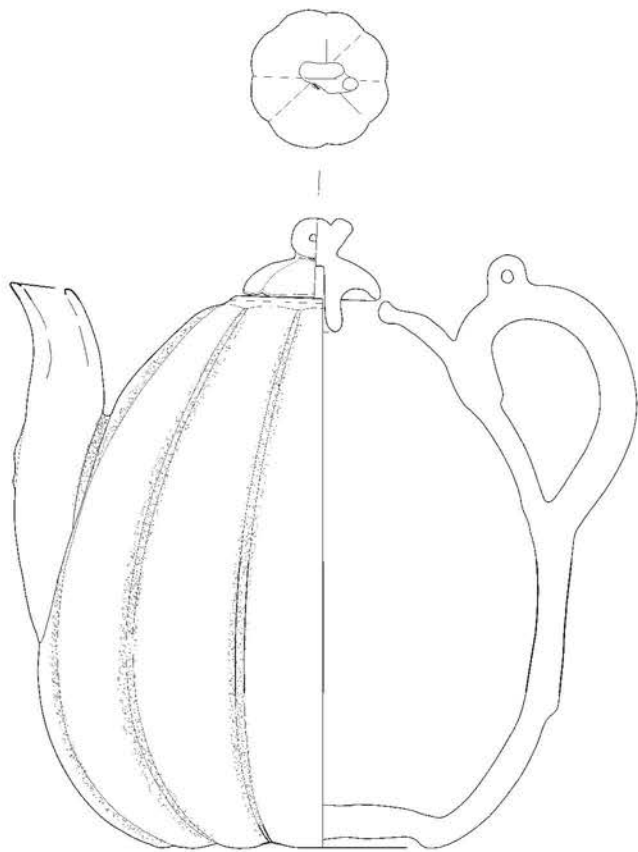
뚜껑 높이 3.6 | 뚜껑 입 지름 6.5 |

주자 높이 16.8 | 주자 입 지름 4.8 | 주자 굽 지름 7.3



뚜껑과 주자의 측면에 곱을 내 참외 형태로 성형하여 풍만한 곡선을 이룬다. 뚜껑은 참외 꼭지처럼 성형하였으며 중앙에 고리로 도 사용할 수 있는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 뚜껑에 끼워 넣었다. 주자의 손잡이와 주구(注口) 역시 따로 만들어 붙였다. 손잡이는 잡기 편리하도록 곱을 내었으며, 위에는 뚜껑과 끈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다. 굽은 안 바닥을 깎아 낸 속 굽으로 굽바닥 6곳에 백색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19

칭자과형주자

靑磁瓜形注子

Celadon Melon-shaped Pitc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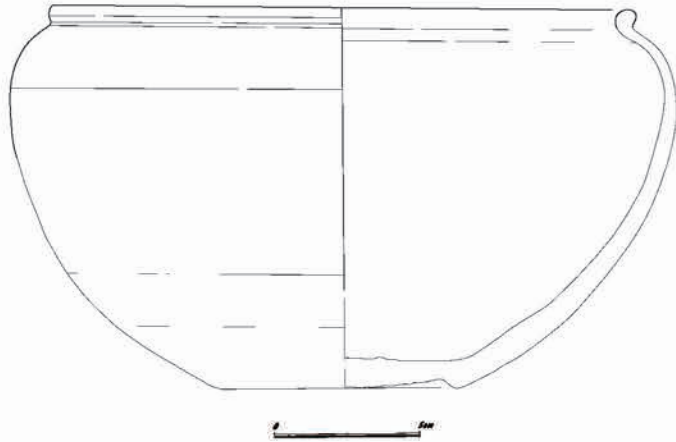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태안 대섬(죽도) 해저유적 출토 |

뚜껑 높이 3.1 | 뚜껑 입 지름 4.0 |

주자 높이 16.5 | 주자 입 지름 4.5 | 주자 굽 지름 7.5

뚜껑과 주자의 측면에 골을 내 참외 형태로 성형하여 풍만한 곡선을 이룬다. 뚜껑은 참외 꼭지처럼 성형하였으며 중앙에 고리로도 사용할 수 있는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 뚜껑에 끼워 넣었다. 주자의 손잡이와 주구(注口) 역시 따로 만들어 붙였다. 손잡이는 잡기에 편리하도록 골을 내었으며, 위에는 뚜껑과 끈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다. 굽은 안 바닥을 깎아 낸 속 굽으로 굽바닥 7곳에 백색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단독으로 번조(燔造)하였으나 번조당시 주구에 주변의 다른 기물과 붙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





20

청자항

靑磁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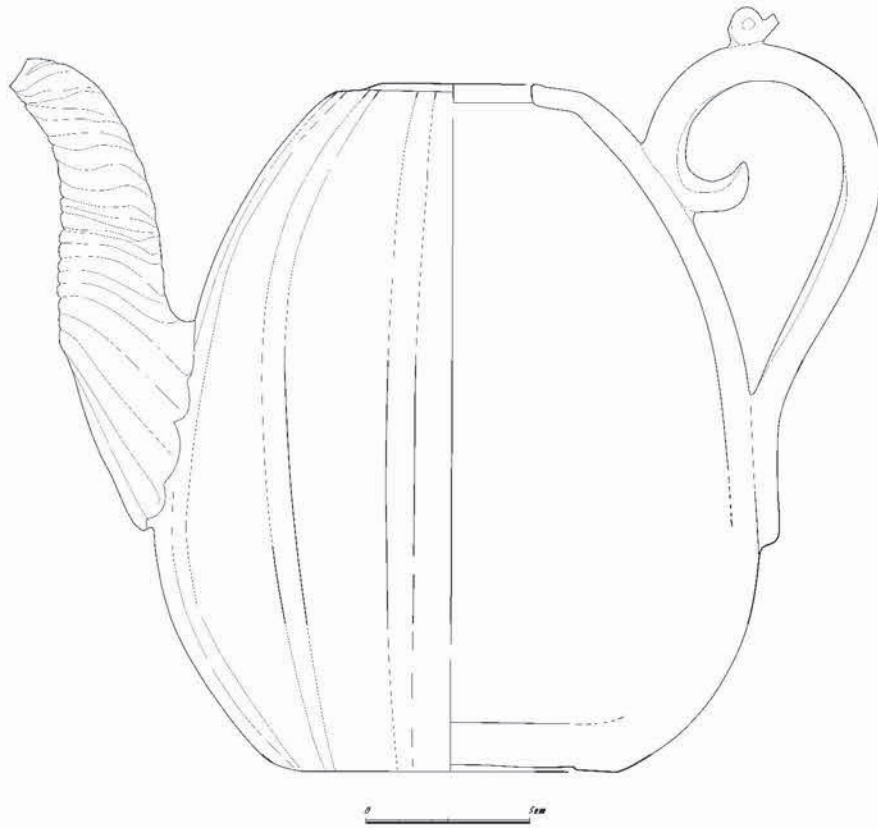
Celadon Jar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태안 대섬(죽도) 해저유적 출토 |

높이 13.3 | 입 지름 20.8 | 굽 지름 8.0

입 지름이 넓고 내만된 향으로 아가리는 끝이 도톰한 옥연형(玉緣形)이다. 동체는 어깨가 최대로 벌어지고 밑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좁아진다. 내저면 3곳에 백색 내화토 비짐의 흔적이 남아 있어 다른 기물과 포개 구웠음을 알 수 있다. 굽은 안 바닥을 깎아 낸 속 굽으로 굽바닥에 모래를 받쳐 구웠다. 🇰🇷





21

청자상감연국모란문과형주자

靑磁象嵌蓮菊牡丹文瓜形注子 (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92호)

Celadon Melon-shaped Pitcher with Inlaid Lotus, Chrysanthemum, and Peony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높이 23.6 | 입 지름 5.0 | 굽 지름 10.0 | 굽 너비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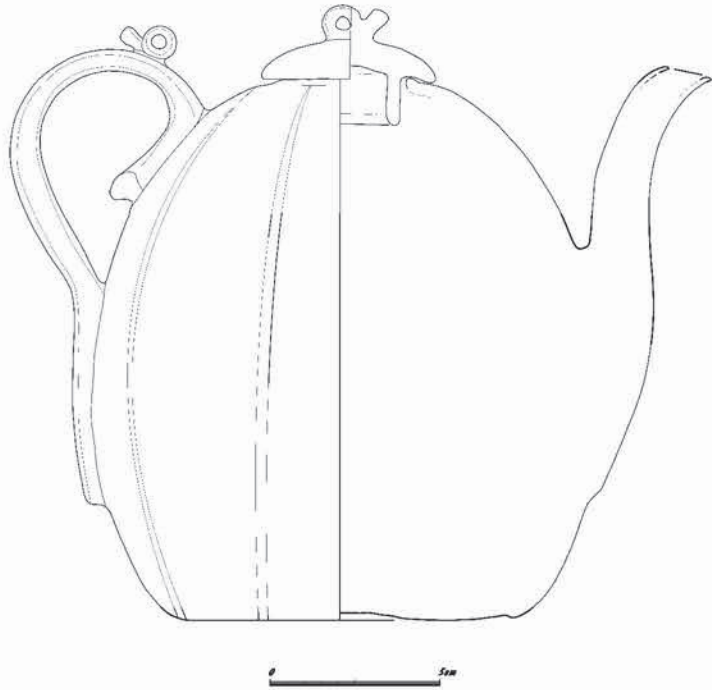
참외와 같은 비례와 규격의 몸통에 세로로 골을 낸 후 손잡이와 주구(注口)를 따로 만들어 붙인 주자이다. 이러한 형태의 주자는 비교적 특별한 조건에서 제작하여 품질과 조형이 매우 우수하다. 이 주자는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데 전체적인 비례가 이상적인 수준이며, 참외 모양의 동체와 손잡이, 주구의 균형도 안정적이다. 특히 주구에 연잎을 말아 붙인 듯한 모양으로 조각된 예가 많지 않아 그 품격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흑토와 백토로 상감된 무늬는 위·아랫부분에 연꽃잎을 돌려 동체 중앙에 넓은 공간을 만들고 12개의 주름 면마다 연꽃, 모란, 국화, 해바라기의 꽃가지를 새겼는데, 가늘고 정교하게 시문하여 상감 무늬 가운데서도 보기 드문 완성미를 갖추었다. 기형과 무늬, 유색, 태토의 조화는 이 주자의 가장 뛰어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균일하게 용융된 유층(釉層)은 가는 기포가 있으며 부분적으로 굵은 균열이 있으나 비교적 가는 빙열(氷裂)이 성글게 남아 있다. 약간 담록색의 은은하면서 맑고 투명한 유약과 매우 정선된 태토는 안정적으로 밀착되어 있다. 유약은 내면까지 시유하였으며, 내면에 성형할 때의 물레 흔적이 남아 있다. 굵은 안 바닥을 깎아 낸 속 굽으로 굽바닥의 유약을 닦아 낸 후 6곳에 거친 내화토 비집을 받쳐 구웠다. 🌈





고려청자 천년만의 강진귀향





22

청자상감연화문과형주자

靑磁象嵌蓮花文瓜形注子

Celadon Melon-shaped Pitcher with Inlaid Lotus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총 높이 18.4 | 총 무게 1,321.8 |

뚜껑 높이 3.4 | 뚜껑 입 지름 2.8 | 뚜껑 무게 37.3 |

주자 높이 15.8 | 주자 입 지름 3.9 | 주자 굽 지름 9.9 |

주자 무게 1,284.3 | 주자 부피 1,561.0

참의 모양처럼 뚜껑과 주자에 세로로 길게 홈을 주어 8개의 면으로 나눈 후 연꽃을 다양하게 상감하였다. 주자는 입술부와 밑 부분에 연꽃잎 무늬를 돌렸으며, 측면에는 좁고 긴 공간에 어울리도록 연꽃과 연잎을 꽃가지 형태로 길게 변형하여 표현하였다. 물이 나오는 주구(注口)도 넓은 연잎 모양을 음각 기법으로 장식하였다. 뚜껑의 8면도 간략한 넝쿨 무늬를 상감하였으며, 손잡이는 중간 부분이 튀어나오도록 조각하여 화려함을 더했다. 또한 뚜껑과 주자에 고리를 붙여 끈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태토와 유약도 정선되었으며, 굽은 매우 낮고 약간 돌출되었다. 굽은 안 바닥을 깎아 낸 속 굽으로 굽바닥과 안 바닥 가장자리의 유약을 닦아 낸 다음 거친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23

청자음각모란당초문표형주자·승반

靑磁陰刻牡丹唐草文瓢形注子·承盤

Celadon Gourd-shaped Pitcher and Tray with Incised Peony and Arabesque Design

出光美術館(일본) | 총 높이 24.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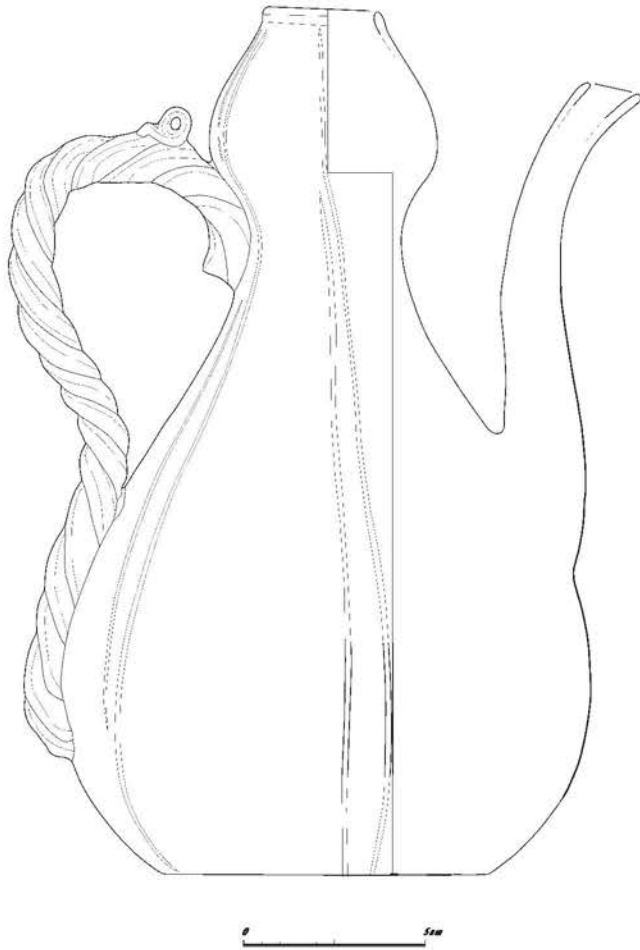
주자 높이 22.0 | 주자 입 지름 2.9 | 주자 굽 지름 8.6 |

승반 높이 6.2 | 승반 입 지름 17.7 | 승반 굽 지름 9.4



승반과 뚜껑을 모두 갖춘 전성기의 비색(翡色) 주자이다. 뚜껑은 손잡이와 끈을 연결할 수 있도록 고리가 붙어 있으나 손잡이의 고리는 결실되었다. 주자의 동체는 전면(全面)에 음각 모란을 유려하게 시문하여 비색(翡色)과 조화를 이룬다. 손잡이는 흙띠 2개를 넝쿨 모양으로 꼬아 만들었고, 물이 나오는 주구(注口)에도 넓은 연잎 모양을 음각으로 장식하였다. 그릇 전체를 시유한 후 굽바닥 5곳에 규석을 받쳐 감번(匣燻)하였다. 승반은 외측에 골을 내어 10화형으로 성형한 다음 각 면에 1송이의 음각 모란을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1장의 연잎을 단아하게 시문하여 절제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굽 안 바닥 5곳에 규석을 받쳐 감번(匣燻)하였다. 🇰🇷





24

청자표형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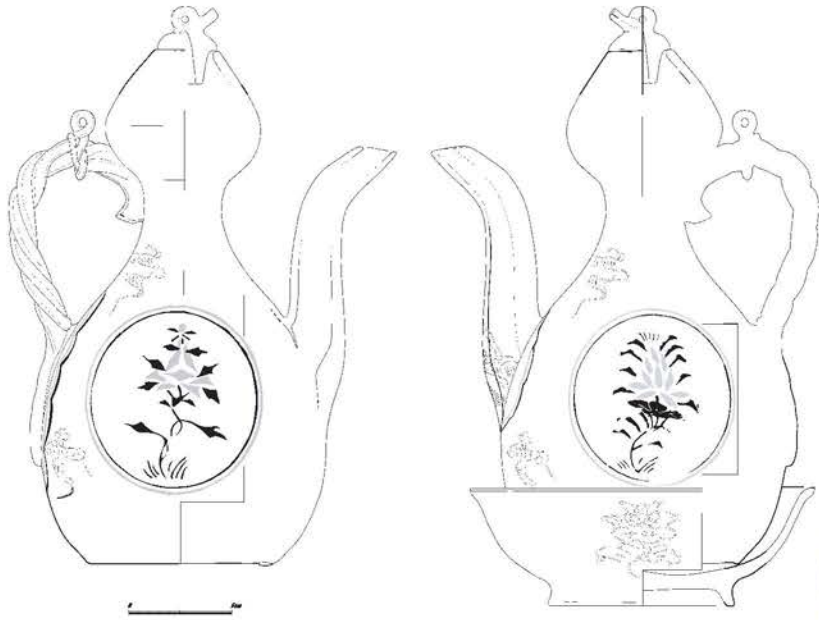
靑磁瓢形注子

Celadon Gourd-shaped Pitcher

강진청자박물관 | 높이 23.8 | 입 지름 3.3 | 굽 지름 8.9 |
무게 1,132.8 | 부피 1,438.3

표주박 모양의 주자에 등간적으로 6개의 음각선을 길게 시문하여 표주박과 참외 모양을 결합한 형태로 성형하였다. 유약과 태토의 품질이 매우 좋으며 전체 형태와 손잡이, 주구(注口)의 비례가 안정적이다. 손잡이는 흙띠 2개를 넝쿨 모양으로 꼬아 만들었으며, 주구는 약간 높은 곳에 부착되어 있다. 손잡이 위쪽에 끈으로 뚜껑과 연결할 수 있도록 고리가 붙어 있다. 입술은 약간 도톰하게 성형하였으며, 표주박 모양은 상·하 모두 아래쪽이 볼록하다. 굽은 바닥이 편평한 평저형(平底形)으로 굽바닥 가장자리의 유약을 깨끗하게 닦아 낸 후 6곳에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25

청자상감모란연화문표형주자·승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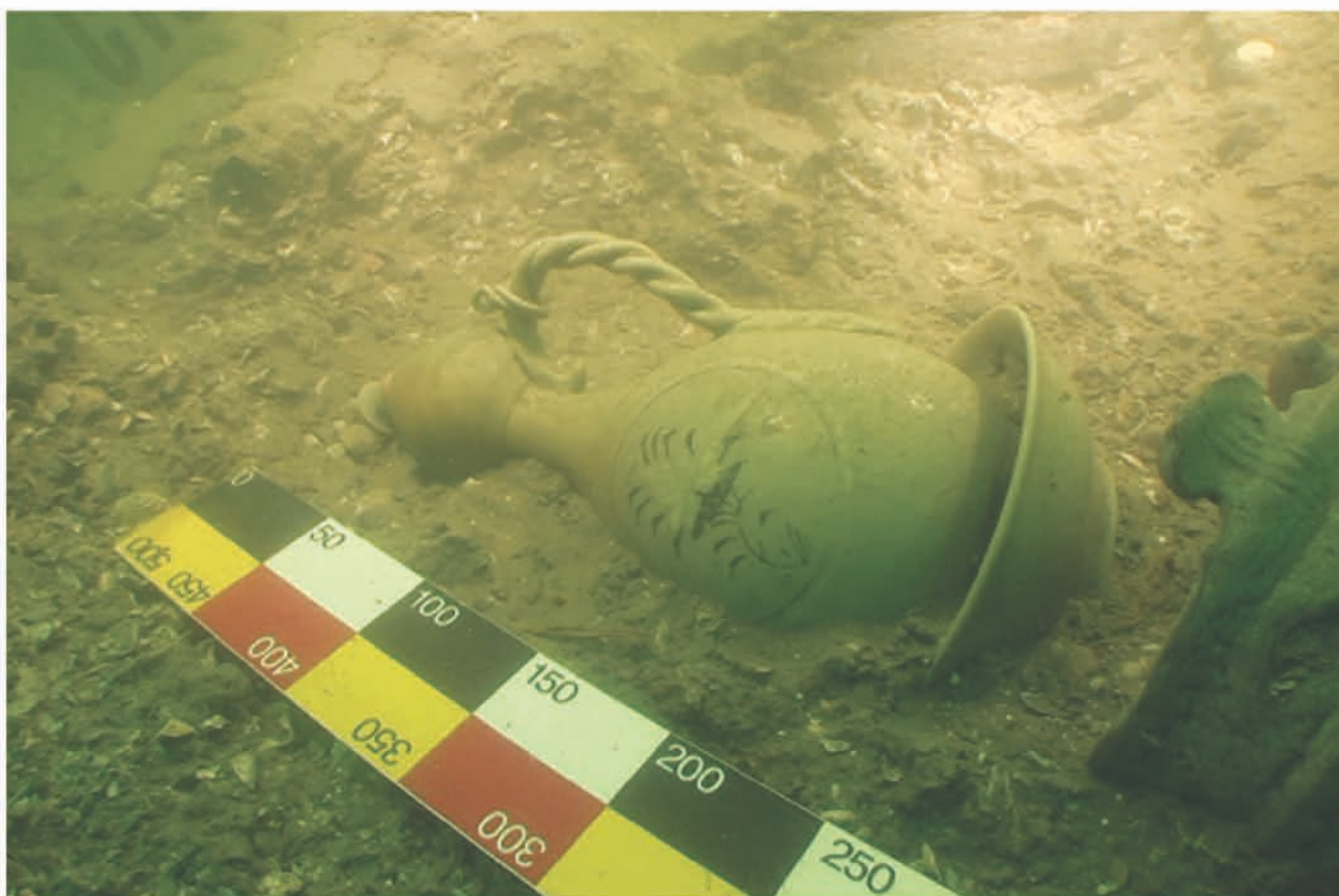
靑磁象嵌牡丹蓮花文瓢形注子·承盤

Celadon Gourd-shaped Pitcher and
Tray with Inlaid Peony and Lotus Desig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태안 마도 1호선 출토 |
주자 높이 25.9 | 주자 입 지름 2.4 | 주자 굽 지름 8.9 |
승반 높이 5.7 | 승반 입 지름 16.9 | 승반 굽 지름 9.4

승반과 뚜껑을 모두 갖춘 주자로 주구(注口)가 일부 파손되었다. 흙띠 2개를 닝쿨 모양으로 꼬아 만든 손잡이와 살짝 휘어진 주구는 동체의 양면에 붙어 있다. 주구는 6각으로 성형하여 수직에 가깝게 부착하였다. 동체에는 모란꽃 가지와 연꽃 가지를 중심 무늬로 시문하였다. 주구와 손잡이가 부착된 부분은 능화(菱花) 무늬를 2겹으로 상감 시문하였으며, 주구의 하단에도 역시 2겹의 능화 무늬를 음각으로 시문하였다. 중심 무늬인 모란과 연꽃 주변은 음각으로 구름 무늬를 배치하였다. 뚜껑에는 손잡이와 끈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둥근 형태의 고리가 붙어 있다. 굽은 안 바닥을 깎아 낸 속 굽으로 굽 부분의 유약을 닦아 낸 후 6곳에 거친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승반은 밑 부분에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와 아가리가 외반하는 형태이다. 중심 무늬는 내·외면에 음각으로 간략하게 초화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은 중앙의 경우 음각선을 2줄 돌리고 측면 3곳에 등간격으로 초화문을 배치하였다. 외면도 내측면과 비슷한 위치에 연꽃 가지를 음각하였다. 단독으로 번조(播造)하여 내저면에 구울 때의 이물질이 붙어 있다. 굽 안 바닥의 유약을 닦아 낸 후 3곳에 거친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26

청자주자

靑磁注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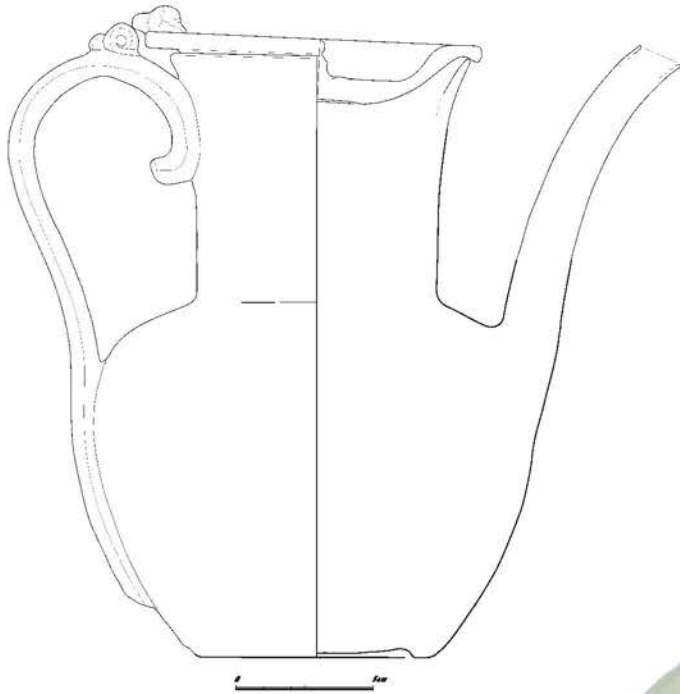
Celadon Pitcher

선문대학교박물관 | 총 높이 15.4 | 뚜껑 높이 2.4 | 뚜껑 입 지름 8.2 |

주자 높이 14.4 | 주자 입 지름 7.4 | 주자 굽 지름 9.1

둥근 반원형 동체에 직립된 목과 아가리, 주구(注口), 손잡이가 달린 단정한 형태의 주자이다. 뚜껑은 접시 모양으로 성형하였는데 손잡이는 연꽃 봉오리 형태이며 아래의 편평한 면에 3개의 규석을 받쳐 구웠다. 주자의 주구는 따로 만들어 붙였는데 유색도 동체와 다르며 내면의 끝이 튀어나와 있어 그 흔적이 뚜렷하다. 무늬는 없으며 굽은 바닥을 편평하게 만든 평저형(平底形)으로 3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갑번(匣燔)으로 번조(燔造)하여 굽바닥에 부분적으로 갑발의 흔적이 남아 있다. 전성기의 비색(翡色) 청자로 청동주자에 그 원형이 있는데, 딱딱한 부분을 부드러운 선으로 처리한 우수작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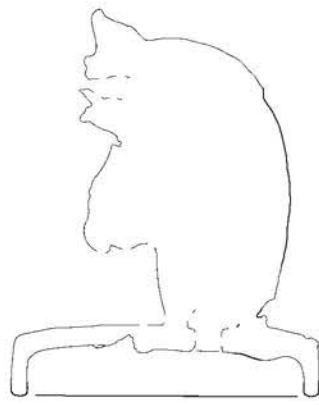


27
청자주자
靑磁注子
Celadon Pitcher

강진청자박물관 | 총 높이 23.2 | 총 무게 1,629.9 |
뚜껑 높이 3.2 | 뚜껑 입 지름 12.1 | 뚜껑 무게 130.5 |
주자 높이 22.2 | 주자 입 지름 11.0 | 주자 굽 지름 8.3 | 주자 굽 너비 0.9 |
주자 무게 1,499.4 | 주자 부피 1,936.0

원형 동체와 나팔 모양의 입 부분이 결합된 주자로 무늬는 없다. 손잡이 가운데에 깊은 선을 만들어 잡기 편하다. 뚜껑에는 보주형(寶珠形) 손잡이가 달려 있고, 뚜껑과 손잡이를 끈으로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구멍 뚫린 고리가 달려 있다. 뚜껑은 평저 접시처럼 아래 부분을 편평하게 성형하였으며 중앙 부분은 시유 후 유약을 닦아 내었다. 또한 불완전 번조(燻造)로 용융 상태가 불량하다. 주자의 굽은 안 바닥을 깎아 낸 속 굽으로 굽바닥의 유약을 닦아 낸 후 백색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28

청자사자형향로

靑磁獅子形香爐

Celadon Lion-shaped Incense Burner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태안 대섬(죽도) 해저유적 출토 |

뚜껑 높이 13.9 | 뚜껑 입 지름 11.0 | 동체 높이 9.0 | 동체 입 지름 15.5

원형 동체에 사자형 뚜껑을 갖춘 향로이다. 뚜껑은 해학적인 사자의 형상으로 제작되어 매우 특징적이다. 구울 때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오른쪽 수염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입을 벌린채 웅크리고 앉아 뒷다리 위에 보주(寶珠)를 올려서 앞다리로 누르고 있다. 돌출된 눈꺼풀 주변을 깊게 파내고 철화(鐵畫)로 점을 찍어 눈동자를 표현하였다. 삼각형의 높은 코, 고리 모양으로 붙인 귀와 V자 형태의 머리털에 음각선을 장식하고, 등부터 입 주변까지 갈기를 소용돌이 형태로 음각하였다. 가슴에는 음각선 2줄을 두르고 아래에 둥근 방울을 붙였다. 사자가 앉아 있는 원형 뚜껑은 수평으로 벌어지다 수직으로 꺾여 아가리로 이어진다. 사자는 뚜껑 중앙에 엹혀 있는데 음각선을 가장자리는 1줄, 측면은 2줄을 돌렸다. 목과 뒷다리 부분은 구울 때 팽창되면서 터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자의 아래에 구멍이 있어 연기가 입으로 나가도록 제작하였다. 그릇 전체를 시유하였으나 왼쪽 볼 부분과 어깨로 이어지는 부분이 일부 노태(露胎)되었다. 뚜껑 내면 5곳에 백색 내화토 비집을 받쳐 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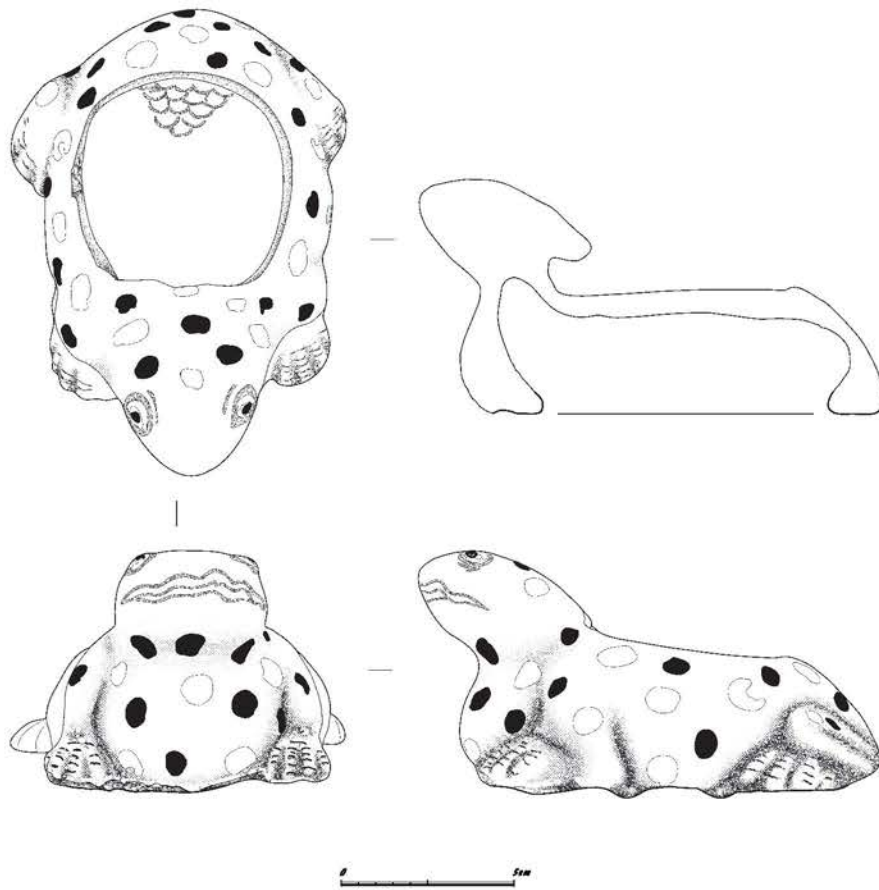
동체 3곳에 사자 형상의 다리를 갖추고 있다. 아가리는 끝이 직각으로 꺾인 편평한 전으로 처리하였다. 전 가장자리에 음각선 1줄을 얇게 돌렸을 뿐 다른 무늬는 없다. 내부는 불완전 번조(燔造)로 용융 상태가 불량하며, 단독 번조로 구울 때 떨어진 이물질이 붙어 있다. 내지면 5곳에 백색 내화토 비집을 받쳐 구웠다. 🇯🇵





고려청자 천년만의 강진귀향





29

청자철화퇴화문섬형벼루

靑磁鐵畫堆花文蟾形硯

Celadon Toad-shaped Inkstone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태안 대섬(죽도) 해저유적 출토 | 높이 7.0 | 길이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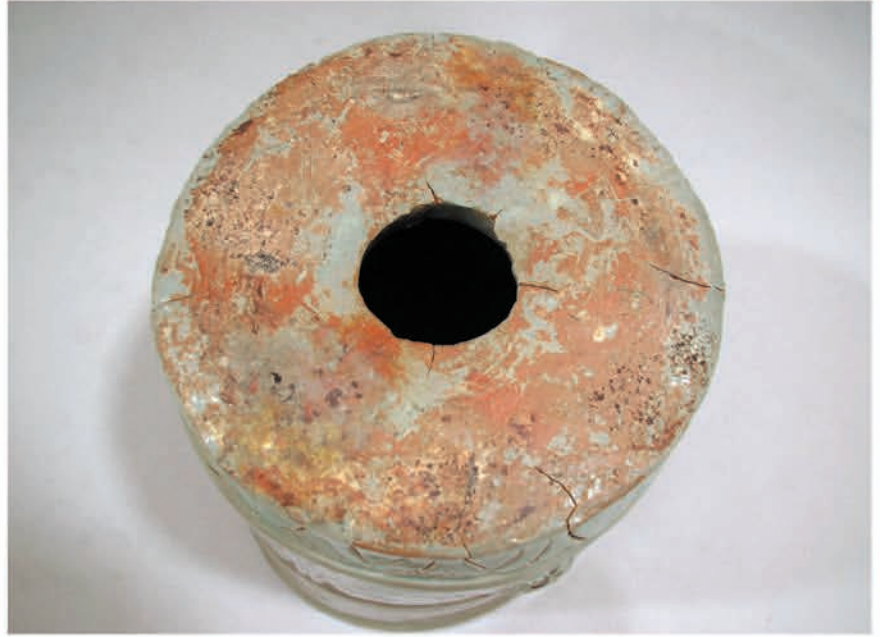
고개를 위로 들고 손과 발을 웅크리고 있는 두꺼비 형상의 벼루로, 고려청자의 뛰어난 조형성을 엿볼 수 있다. 두꺼비의 눈동자는 철화로 표현하였으며, 눈 윤곽은 음각으로 시문하였다. 피부는 철화와 퇴화 무늬로 표현하였다. 곡선으로 표현된 입과 짧은 선으로 표현된 다리는 음각으로 새겼다. 연당(硯堂)은 시유하지 않았으며, 약간 경사가 있도록 제작하였다. 연당 한 변은 반원의 음각선을 중첩하여 먹이 쉽게 갈리도록 하였다. 유약은 연당과 굽바닥을 제외한 전체를 고르게 시유하였다. 내부는 비어 있고 굽바닥에 백색 내화토 비집을 받쳐 구웠다. 🇰🇷





고려청자 천년만의 강진귀항





30

청자상감모란국화문화분

靑磁象嵌牡丹菊花文花盆

Celadon Flowerpot with Inlaid Peony and Chrysanthemum Design

高麗美術館(일본) | 높이 21.5 | 입 지름 26.6 | 굽 지름 19.5

상당한 두께와 무게가 있는 화분으로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기형이다. 밑 바닥에는 물을 빼기 위한 구멍이 지름 4cm 정도 뚫려 있다. 무늬는 양각 돌대로 상·하 3단의 문양대를 구성한 후 상단은 번개 무늬와 보상당초문(寶相唐草文)을 돌렸다. 중간은 좌·우에 양각 돌대로 문양대를 나누어 모란과 국화를 대칭이 되도록 각각 2곳씩 시문하였다. 하단은 음각 연꽃잎 무늬를 돌렸다. 굽은 바닥을 편평하게 만든 평저로 유약을 닦아 낸 후 거친 내화토 가루를 받쳐 구웠다. 🇯🇵





31

청자상감연국화문 '정릉' 명통

青磁象嵌蓮菊花文 '正陵' 銘筒

Celadon Cup with Inlaid Lotus and Chrysanthemum Design and Inscribed 'Jeongnung'

선문대학교박물관 | 높이 17.6 | 입 지름 11.5 | 굽 지름 8.2 | 굽 너비 0.8

기형이 비교적 큰 원통형으로 무늬는 외면에만 시문하였다. 위·아래에 백상감 번개 무늬와 흑백상감 연꽃잎 무늬를 돌렸 다. 중앙부는 4곳에 백상감 원열(圓烈) 무늬와 이중원권(二重圓圈) 내측에 국화 3송이를 흑백상감하였으며, 그 사이로 흑백상 감 주렴문(珠簾文)을 시문하였다. 밑 부분은 연꽃잎 위에 연꽃과 버드나무를 교대로 시문하였다. 유약은 녹청색으로 고르지 않으며, 산화되어 녹갈색을 띠는 부분도 있다. 굽 안 바닥에는 구울 때 터짐을 방지하기 위한 다짐 흔적이 남아 있다. 굽 부분은 불완전 번조(燔造)로 용융상태가 불량하며 굽바닥에 모래를 받쳐 구웠다.

'정릉(正陵)'은 1365년(공민왕 14년)에 축조한 고려 제31대 공민왕(恭愍王)의 비인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의 능호(陵號)이다. '정릉' 명 청자는 역사적 배경으로 보아 1365~1374년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강진 사당리와 용운리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지와 소비지, 제작시기까지를 모두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









32

청자상감모란운학문침

靑磁象嵌牡丹雲鶴文枕

Celadon Pillow with Inlaid Peony, Cloud and Crane Design

국립중앙박물관 | 높이 12.7 | 길이 23.3 | 너비 9.4

장방형 베개로 상·하면과 전·후면의 중앙을 오목하게 성형하여 실용성과 곡선미를 함께 갖추고 있다. 무늬는 베개 전체에 짙게 시문하였다. 상·하면의 중심에는 이중원권 내에 구름과 학을 시문하였는데 한 면은 학이 위를 향하고 있으며 반대 쪽에서는 아래를 향하고 있다. 전·후 측면 중심에는 능화형(菱花形) 창을 만들고 내부에 시문하였는데, 한 면은 모란만 배치하였으나 반대 면은 모란과 마주 보는 나비 2마리를 함께 표현하였다. 상·하면과 전·후 측면 중심 무늬 주변은 역상감 넝쿨 무늬를 배경으로 새기고 내부에 다시 음각선으로 세부를 표현하였다. 가장자리는 연꽃잎과 반원의 국화를 시문하여 화려함을 더하였고 좌·우 측면은 중앙에 능화형을 배치한 후 주변에 역시 역상감과 음각으로 시문한 넝쿨 무늬를 표현하여 가장자리를 마무리하였다. 또한 구울 때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좌·우 측면에는 원형 구멍을 뚫었으며, 한 면에만 규석을 받쳐 구웠다. 화려한 베개로 아름다운 무늬와 뛰어난 조형성을 엿볼 수 있는 우수작이다. 🌈





고려청자 천년만의 강진귀향



33

청자상감모란국화문도판

Celadon Plate with Inlaid Peony and Chrysanthemum Design

선문대학교박물관 | 높이 22.5 | 너비 30.6 | 두께 0.3



장방형 사각판으로 가장자리에 번개 무늬를 돌린 후 각 모서리에 국화 3송이를 상감 시문하였다. 중앙에는 번개 무늬로 능화형(菱花形) 창을 구획한 후 그 안에 활짝 핀 모란을 배치하였다. 상감 무늬 이외의 면에는 음각으로 촘촘하게 초화문을 시문하였다. 각 모서리를 짧게 깎아 내어 마무리하였으며, 뒷면은 유약을 시유하지 않았다. 🌈





34


청자음각운룡문 '상약국' 명합

靑磁陰刻雲龍文 '尙藥局' 銘盒 (보물 제1023호)

Celadon Bowl with Incised Cloud and Dragon Design and Inscribed 'Sangyakguk'

국립중앙박물관 | 개성 출토 | 총 높이 9.3 | 입 지름 7.0 | 굽 지름 5.5

뚜껑과 동체를 갖추고 있는 원통형 합이다. 무늬는 뚜껑 상단면에 매우 섬세하게 음각으로 운룡문이 시문되었으며, '상약국' 명은 뚜껑 외측면 하단과 동체 외측면 상단에 가로로 서로 대칭되도록 음각으로 시문하였다. 뚜껑 상단과 동체 아래의 모서리 부분을 곡면으로 성형하여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유약은 투명하며 가는 빙열(氷裂)이 그릇 전체에 있다. 그리고 서로 맞닿는 부분인 뚜껑 아가리 내측과 동체 드림새는 시유 후 깨끗하게 닦았으며, 각각 10곳에 내화토 비집 흔적이 있어 함께 구웠음을 알 수 있다. 뚜껑은 파편 4개를 수복하였으며 상면과 측면 경계부 2곳에 구울 때 묻은 잡물이 있다. 상면은 편평하게 성형하였으며, 측면과의 경계 부분에는 곡면으로 단을 주었다. 측면은 동체의 드림새와 맞도록 수직으로 성형하였다. 동체는 원통형으로 아가리는 직립되었는데 단을 주어 뚜껑과 맞도록 제작하였다. 내면 역시 드림새 단에 해당하는 부분에 단이 있는데, 이는 얇게 성형한 드림새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측 밑 부분도 곡면의 단을 주어 굽과 연결하였다. 굽은 매우 낮게 성형하였으며 유약으로 인해 평저에 가깝다. 굽 안 바닥에 규석을 받쳤으며 갑발의 흔적이 남아 있다. 또한 밑 부분과 굽 부분 등에도 구울 때의 잡물이 남아 있다.

'상약국' 명 합은 왕실용으로 제작되었으며, 강진 사당리와 용운리, 삼흥리 가마터에서도 같은 유형의 합이 확인되었다. 



참고 사진

35

청자음각 '상약국' 명합

靑磁陰刻 '尙藥局' 銘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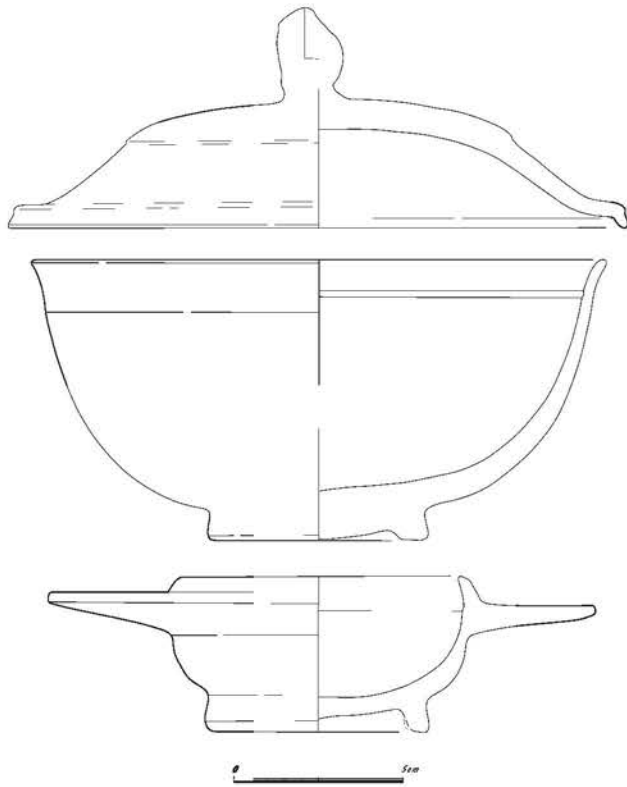
Celadon Bowl with Inscribed 'Sangyakguk'

大和文華館(일본) | 높이 6.1 | 입 지름 6.4 | 굽 지름 6.3 | 굽 너비 0.2



뚜껑은 결실되고 동체만 남아 있다. 그릇 형태는 원통형이며, 무늬는 '상약국' 명 이외에는 없다. '상약국' 명은 외측면 드림새 하단에 가로로 음각하였다. 아가리는 직립되었는데 단을 주어 뚜껑과 일체가 되도록 제작하였다. 내면 역시 드림새 단에 해당하는 부분에 단이 있는데, 이는 얇게 성형된 드림새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측 밑 부분은 곡면에 단을 주어 굽과 연결하였다. 굽은 매우 낮게 성형하였으며 두터운 유층으로 인해 평저에 가깝다. 특히 굽 안 바닥은 구울 때 팽창하여 높이가 굽바닥과 거의 비슷하다. 유약은 부분적으로 큰 빙열(氷裂)이 있으나 비색조(翡色調)의 유약이 그릇 전체에 고르게 용융되었다. 그리고 드림새 부분은 시유 후 깨끗하게 닦았는데, 아가리 윗부분은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다. 뚜껑과 맞닿는 드림새에 내화토 빚음 흔적이 있어 뚜껑과 함께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굽바닥 2곳과 굽 안 바닥 3곳에 규석을 등간격으로 받친 후 갑번(匣燻)하였다. 굽 안 바닥에 미세한 검은 반점이 보이며, '尙' 자 우측에 일부 파열(破裂) 흔적이 있다. 아가리에 우회전한 물레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는 매우 정선되었으며, 굽바닥은 사용으로 인해 마모되었다. 후대에 향로로도 이용된 흥미로운 자료이다. 📖





36

청자상감운학국화문개합

靑磁象嵌雲鶴菊花文蓋盒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93호)

Celadon Bowl and Lid with Inlaid Cloud, Crane and Chrysanthemum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총 높이 18.0 | 총 무게 1,417.1 | 뚜껑 높이 6.7 | 뚜껑 입 지름 18.4 | 뚜껑 무게 430.0 |
 발 높이 8.3 | 발 입 지름 17.4 | 발 굽 지름 6.3 | 발 굽 너비 0.8 | 발 무게 631.6 | 발 부피 883.7 |
 받침 높이 4.6 | 받침 입 지름 16.1 | 받침 굽 지름 6.5 | 받침 굽 너비 0.6 | 받침 무게 355.6

뚜껑과 발, 받침이 함께 조합을 이루는 매우 특징적인 합이다. 무늬는 주로 도장을 찍어 새겼는데 발과 뚜껑, 받침까지 모두 내·외면에 가득 시문하고 있어 특별한 용도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뚜껑 손잡이는 용을 간략하게 형상화하였으며, 위쪽부터 연꽃잎과 국화, 운학(雲鶴), 번개 무늬를 배치하였다. 여러 개 무늬가 동심원을 이루도록 하였는데 학 4마리를 등간격으로 배치하였다. 내면은 내저면 중앙에 이중원권(二重圓圈)과 여의두(如意頭) 무늬를 돌렸으며, 그 주위에 운학문을 배치한 후 입술부에 번개 무늬를 돌렸다. 발의 입술과 맞닿는 입술부는 90°로 짧게 꺾여 있다. 입술부의 유약을 깨끗이 닦아 낸 후 8곳에 거친 내화토 비집을 받쳐 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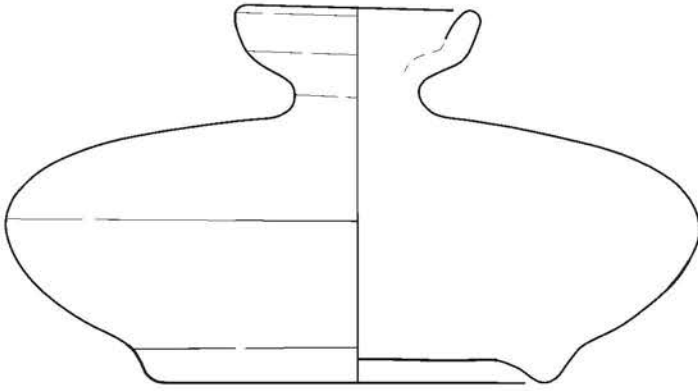
발 역시 내면은 중심에 국화 한 송이를 시작으로 연주문(連珠文)과 여의두 무늬를 돌리고, 측면에는 운학문을, 입술 아래에는 번개 무늬를 상감하였다. 학 4마리는 등간격으로 배치하였다. 외면에도 입술 아래에 번개와 구름, 측면에 넝쿨 이중원권 모란, 밑 부분에 연꽃잎 무늬를 상감하였다. 이중원권 모란 무늬는 4곳에 등간격으로 배치하였다. 기형은 내저가 깊고 밑 부분이 둥글게 벌어져 오르다가 입술이 약간 밖으로 벌어지는 형태인데 이러한 유형은 고려 후기에 주로 제작되었다. 내저면 역시 둥근 곡면이고, 그릇 전체를 시유한 후 굽바닥의 유약을 닦아 낸 다음 굽은 모래를 받쳐 구웠다.

받침은 완형(甁形)으로 성형하였으며, 무늬를 보면 윗면은 잔좌 측면에 점열(點列) 무늬를 시문한 후 운학문과 번개 무늬 띠를 배치하였다. 아랫면은 넝쿨 무늬와 4곳에 등간격으로 배치된 국화 무늬 4곳을 중심으로 입술부는 번개 무늬를 시문하였으며, 밑 부분은 연꽃잎 무늬를 돌렸다. 굽은 높고 직립하며 굽바닥의 유약을 닦아 낸 후 모래를 받쳐 구웠다. 🌿









37

청자음각연판문병

靑磁陰刻蓮瓣文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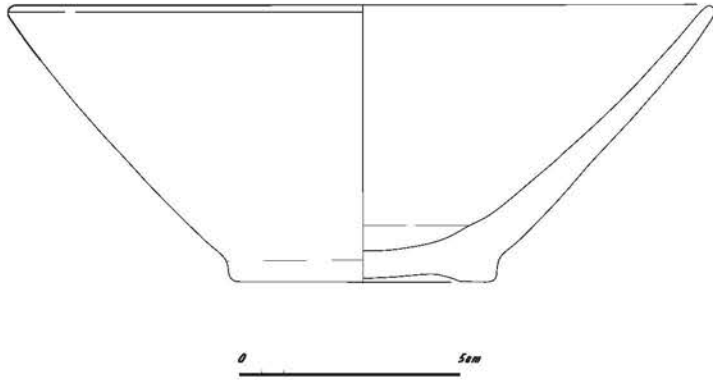
Celadon Bottle with Incised Lotus Petal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높이 4.7 | 입 지름 3.1 |

굽 지름 5.5 | 굽 너비 0.4 | 무게 173.4 | 부피 64.7

태토와 유약은 품질이 매우 좋으며 무늬 구성과 배치가 아름다운 소형 병이다. 동체 지름에 비해 입술이 작으며 목이 좁고 짧다. 동체는 바둑알처럼 납작하며, 굽도 매우 낮다. 무늬는 납작한 동체 윗면에 음각으로 시문하였는데 목 둘레에 이중으로 된 연꽃잎 무늬와 넝쿨 무늬를 돌렸다. 연꽃잎 안에는 가는 선으로 세부를 표현하였다. 태토와 유약이 정선되어 표면이 매끄럽고 유색도 일정하다. 굽 안 바닥 3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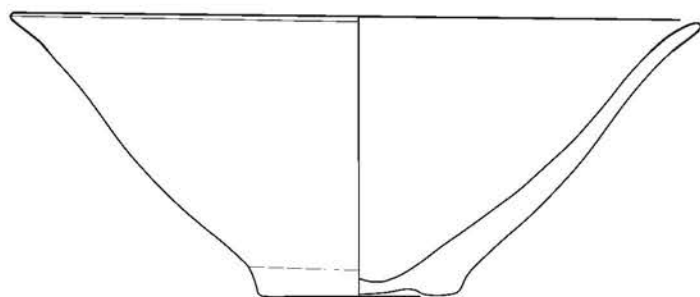


38
 청자완
 靑磁盥
 Celadon Bowl

강진청자박물관 | 높이 6.3 | 입 지름 16.0 |
 굽 지름 6.1 | 굽 너비 1.2 | 무게 341.4 | 부피 447.4

굽 높이가 낮고 굽바닥이 넓은 해무리굽 완이다. 무늬는 없으며 측면선이 밑 부분에서 입술까지 사선을 이룬다. 해무리굽 완은 초기 청자 시기에 주로 만들어진 그릇으로, 해무리굽 완의 형식 변화는 청자의 발생시기 연구에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이 완은 굽 지름과 굽 너비도 넓을 뿐 아니라 그릇 크기도 비교적 크고 내저원각(內底圓刻)이 희미하게 남아 있어 초기 단계를 벗어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태토와 유약이 매우 정선되었으며 유약의 용융(鎔融) 상태도 일정하다. 굽바닥의 유약을 일부 닦아 낸 후 5곳에 백색 내화토 비집을 받쳐 구웠다. 🇰🇷






39

청자양각국화문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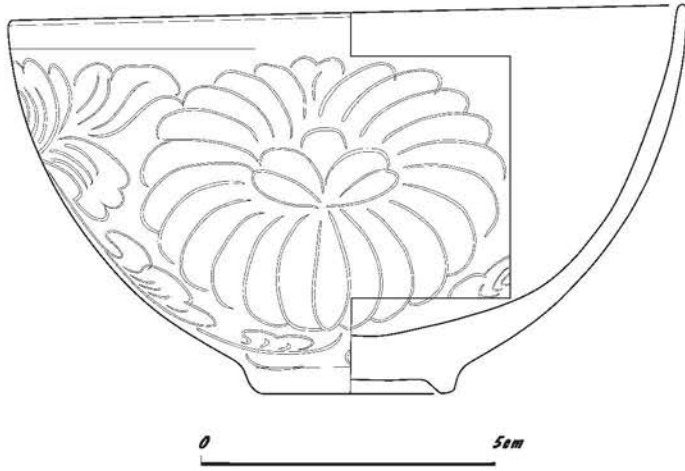
靑磁陽刻菊花文盃

Celadon Bowl with Raised Chrysanthemum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높이 4.6 | 입 지름 11.1 | 굽 지름 3.3 | 굽 너비 0.4 |
무게 101.0 | 부피 149.3

크기가 작고 정교한 무늬가 아름다운 완이다. 해무리굽 단계를 지나 완이 소형화되는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측면선은 밑 부분에서 거의 사선으로 오다가 입술이 약간 넓게 벌어진다. 무늬는 내면에만 있는데 꽃잎이 5장 있고 그 안에 각각 국화를 1송이씩 압출양각 기법으로 표현하여 국화꽃이 수면(水面)으로 서서히 떠오르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내저면에는 작은 내저원각(內底圓刻)이 있다. 굽은 지름이 작고 높이가 낮으며 너비도 좁다. 유약과 태토가 매우 정선되어 있으며 비색(翡色)을 띤다. 굽바닥의 유약을 일부 닦아 내고 3곳에 거친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40

청자음각보상화문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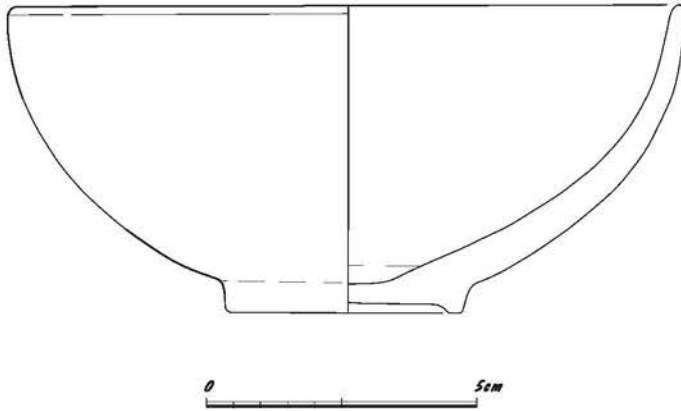
靑磁陰刻寶相花文盥

Celadon Bowl with Incised Arabesque 'Bosangwha'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높이 6.3 | 입 지름 11.5 | 굽 지름 3.7 | 굽 너비 0.3 |
무게 166.4 | 부피 309.9

이 완은 기벽이 매우 얇고 단정한 형태로 측면선은 그릇 밑 부분에서 입술까지 완전한 곡선을 이룬다. 굽은 높이가 낮고 지름은 크기에 비해 작다. 그릇 내·외면에 음각으로 무늬를 시문하였는데 내면은 중앙에 뚜렷하게 구름 무늬를 배치한 후 전체를 파도 무늬로 시문하였다. 외면은 보상화(寶相華)와 넝쿨 무늬를 가득 시문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완은 기형을 비롯하여 내면의 파도, 외면의 보상화문이 언제나 동일한 유형으로 확인되며, 태도와 유약, 조각기법 등이 뛰어나 특별하게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굽바닥에 바른 유약을 부분적으로 닦아 낸 후 굽 안 바닥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






41

청자상감모란운학문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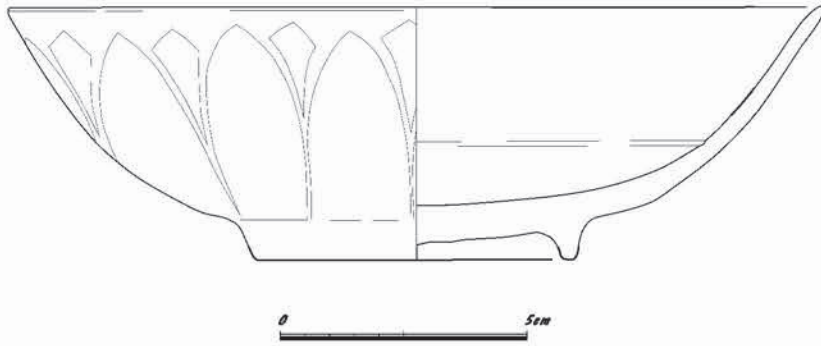
靑磁象嵌牡丹雲鶴文盃

Celadon Bowl with Inlaid Peony, Cloud and Crane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높이 5.7 | 입 지름 12.5 |
 굽 지름 4.4 | 굽 너비 0.3 | 무게 217.4 | 부피 317.5

입술에서 밑 부분까지 반원형으로 곡선을 이루며, 굽이 낮고 안쪽으로 기울어진 형태이다. 내저면 중심에 지름 1.0cm의 작은 원각(圓刻)이 있다. 무늬는 내·외면 전체에 상감하였는데, 내저원각과 그 둘레에 꽃잎 11장으로 구성된 큰 꽃을 상감하고 내측면 4곳에 이중원권 모란을 배치하였다. 모란 무늬 사이에는 학 2마리와 구름을 시문하였는데 학의 동체 부분과 구름은 도장을 찍어 상감하였다. 입술부에는 사선화된 간략한 넝쿨 무늬를 돌렸다. 외면은 운학문과 연꽃잎 무늬를 상·하 종속 무늬 띠로 구성한 다음 그 가운데에 넝쿨 무늬를 배경으로 이중원권 국화를 4곳에 등간격으로 시문하였다. 태토에 검은 반점이 많이 섞여 있으나 유약과 태토는 정선되었다. 굽바닥과 안 바닥의 유약을 깨끗이 닦아 낸 후 거친 내화토를 받쳐 구웠다. 





42

청자양각연판문대접

靑磁陽刻蓮瓣文大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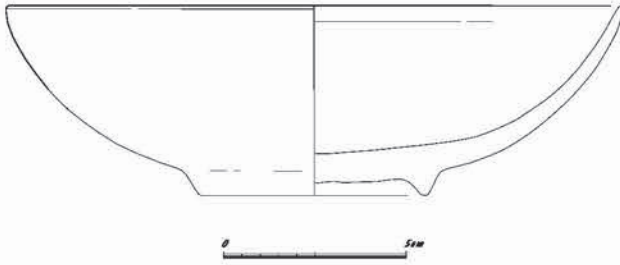
Celadon Bowl with Raised Lotus Petal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높이 5.2 | 입 지름 16.6 |

굽 지름 6.6 | 굽 너비 0.3 | 무게 292.1 | 부피 422.2

전체적으로 비례와 균형을 갖추어 조화로우며, 연꽃을 조각한 기술이 뛰어나고, 비색(翡色)의 유층(釉層)을 갖고 있어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양질의 대접이다. 높이가 비교적 낮고 측면선은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내면 역시 완만한 곡면이며 음각선 1줄만 돌렸을 뿐 무늬는 없다. 외면에는 연꽃잎 14장을 이중으로 겹치게 조각하였는데 꽃잎 가장자리 바깥쪽을 얇게 깎아 내어 꽃잎을 도톰하게 표현하였다. 굽 깎음 역시 단정하며, 굽 안 바닥 3곳에 규석을 받쳐 감번(匣燻)하였다. 🌸





43


청자음각앵무문대접

靑磁陰刻鸚鵡文大椗

Celadon Bowl with Incised Parrot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높이 5.3 | 입 지름 17.0 |

굽 지름 6.5 | 굽 너비 0.3 | 무게 334.0 | 부피 496.7

비교적 높이가 낮은 대접으로 전성기의 양질 청자이다. 입술부터 밑 부분까지 측면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굽 깎음새도 U자형으로 단정하게 성형하였다. 무늬는 대접 내면에만 있는데 입술부에 1줄 음각선을 돌리고 그 아래에 8장의 구름을 등간격으로 배치하였다. 내저면은 중심에 1장의 구름을 시문한 후 그 주위에 4마리의 앵무를 서로 겹치면서 원을 그리듯 배치하여 대칭과 비례를 맞추었다. 기늘고 긴 앵무 꼬리는 일정한 간격과 두께로 시문하여 뛰어난 기술을 보여준다. 외측면 일부에 산화(酸化)된 곳이 있어 약간 갈색을 띠는 곳도 있다. 굽 안 바닥 3곳에 규석을 받쳐 갑번(匣燻)하였다. 





44

청자양각촉구문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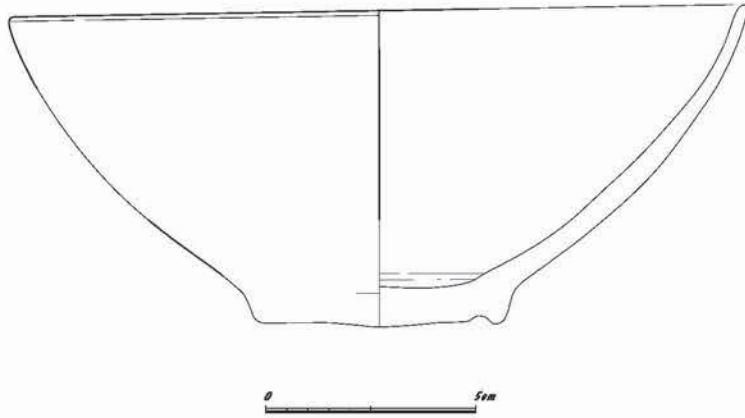
靑磁陽刻蜀葵文大椀

Celadon Bowl with Raised Rose Mallow Design

高麗美術館(일본) | 높이 7.5 | 입 지름 19.0 | 굽 지름 6.5

내저원각(內底圓刻)이 있는 대접으로 태토는 정선되었다. 무늬는 내저원각을 포함한 내측 전체에 도범(陶范)을 이용한 인화(印花) 기법으로 시문하였는데, 내측면은 4곳에 등간격으로 꽃을 배치한 후 주변에 잎 4~6장을 곁들였다. 유약은 고루 시유하였으며 굽 안 바닥 3곳에 규석을 받쳐 갑번(匣燻)하였다. 촉구는 무규(戊葵)라고도 하는데 장마철에 홍색과 보라색, 흰색 꽃을 피우는 다년초(多年草) 식물로 줄기는 키가 크고 가지가 없다. 🌿





45

청자음각앵무문대접

靑磁陰刻鸚鵡文大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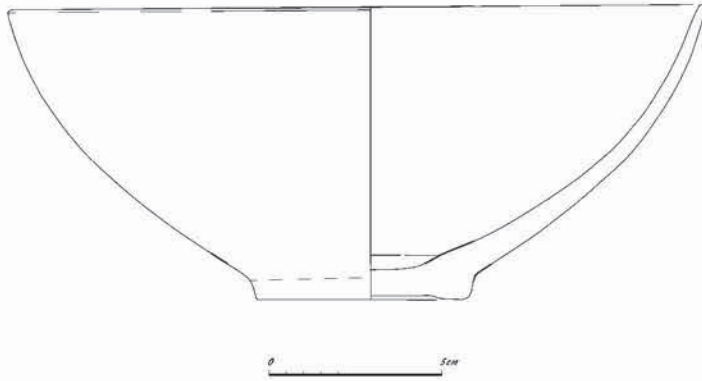
Celadon Bowl with Incised Parrot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높이 7.3 | 입 지름 17.5 |

굽 지름 6.5 | 굽 너비 0.3 | 무게 377.8 | 부피 710.4

굽는 과정에서 입술이 약간 일그러졌으나 입 지름과 굽 지름의 크기, 측면선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는 대접이다. 측면선이 입술에서 밑 부분까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굽은 낮고 안쪽으로 약간 기운 형태이다. 무늬를 보면 내면은 입술 아래에 음각선 1줄을 돌렸으며, 측면에는 등간격으로 앵무 3마리를 배치한 후 그 사이에 구름을 1장씩 음각하였다. 내저원각(內底圓刻) 내에는 국당초문(菊唐草文)을 시문하였다. 태토와 유약은 정선되었으나 유층(釉層)에 가는 빙열(氷裂)이 많고 그릇 밑 부분과 굽이 일부 산화되어 갈색을 띠는 곳도 있다. 굽 안 바닥이 굽바닥보다 얇게 깎여 있으며, 3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





46


청자상감여지문대접

靑磁象嵌荔枝文大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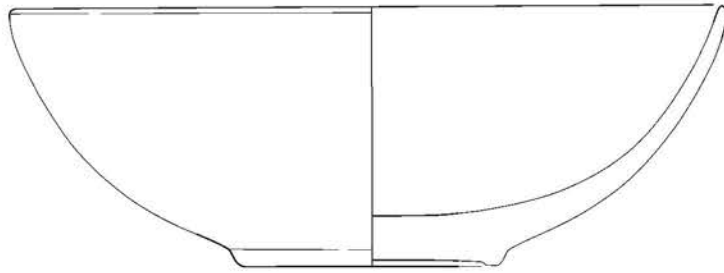
Celadon Bowl with Inlaid Litchi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높이 8.8 | 입 지름 20.3 |

굽 지름 6.3 | 굽 너비 0.4 | 무게 558.6 | 부피 1,090.5

여지는 중국 남방에서 많이 나는 과일로 서역(西域)과 고려, 일본까지 전해졌으며, 공예품 무늬로 많이 애용되었다. 밑 부분에서 입술까지 반원형으로 곡선을 이루고 있다. 내저면에 작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굽은 지름이 좁고 내경(內傾)한 형태이다. 무늬는 내·외면 모두 백상감으로 시문하였는데, 내면은 입술 부분에 ningkul 무늬를 돌린 후 측면 4곳과 내저원각에 여지문을 상감하였다. 외면은 입술 바로 아래 8곳에 구름을 배치한 후 ningkul 무늬를 돌렸다. 측면에는 상감선 2줄을 돌린 후 위·아래 5곳에 서로 엇갈리도록 국화를 배치하였다. 태토와 유약이 매우 정선되었으며, 굽 안 바닥 3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0 5cm



47

청자상감여지문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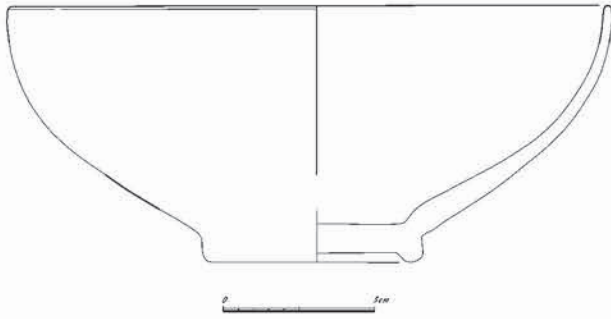
靑磁象嵌荔枝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laid Litchi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높이 6.9 | 입 지름 18.9 |
굽지름 7.2 | 굽 너비 0.5 | 무게 546.4 | 부피 834.4

밑 부분부터 입술까지 반원형으로 곡선을 이루며, 굽은 지름이 좁고 내경한 형태이다. 무늬는 모두 상감으로 시문하였는데, 내지면 중심과 측면 5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지 무늬를 상감하였다. 입술 아래는 넝쿨 무늬를 돌렸다. 외면에는 입술 바로 아래에 넝쿨 무늬를 돌렸으며, 중심 무늬는 4개의 이중원권 모란 무늬와 넝쿨 무늬를 시문하였다. 밑 부분에는 상감선 2줄을 돌린 후 등간격으로 4곳에 국화를 상감하였는데 모란과 엇갈리도록 배치하였다. 태토와 유약이 매우 정선되었으며, 굽 안 바닥 3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





48

청자상감화훼조충문대접

靑磁象嵌花卉鳥蟲文大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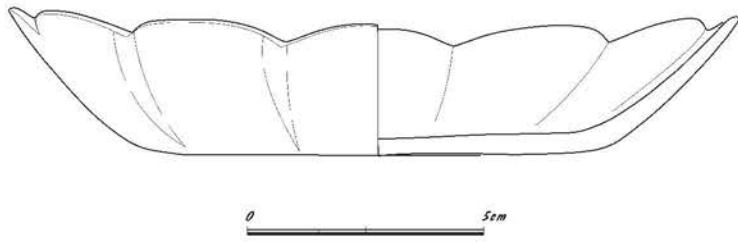
Celadon Bowl with Inlaid Flower, Bird and Bug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높이 8.3 | 입 지름 20.1 |

굽 지름 7.2 | 굽 너비 0.6 | 무게 634.7 | 부피 1,182.3

입술이 내만(內灣)하고 내저면 중심에 원각(圓刻)이 있는 대접으로, 굽 안 바닥에 ‘市’ 부호가 찍혀 있다. 무늬는 내·외면 모두 상감으로 시문하였는데, 내면에는 꽃가지 4개와 새와 나비를 4개씩 등간격으로 구성한 중심 무늬가 있고, 위·아래 종속 무늬로 넝쿨과 연꽃잎 무늬가 돌려져 있으며, 내저원각에는 국화 3송이가 상감되어 있다. 외면 역시 넝쿨 무늬를 배경으로 이 중원내에 국화 무늬가 4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위·아래의 종속 무늬로 넝쿨과 연꽃잎 무늬가 확인된다. 굽 안 바닥 3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市’ 부호는 강진 사당리와 용운리 가마터에서 확인되고 있어 생산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49

청자화형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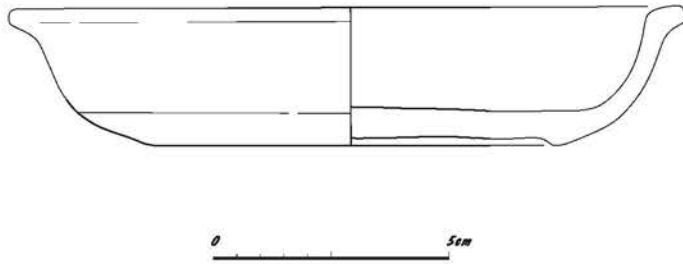
靑磁花形碟匙

Celadon Flower-shaped Dish

강진청자박물관 | 높이 3.2 | 입 지름 15.4 | 굽 지름 9.9 | 무게 206.5 | 부피 205.0

무늬가 없는 꽃모양의 접시로 전성기의 비색(翡色) 청자이다. 입술을 12장의 꽃잎 모양으로 볼록하게 도려 내어 위에서 보면 활짝 핀 꽃을 보는 듯하다. 도려낸 입술의 홈에 맞춰 접시 측면도 바깥에서 세로로 길게 눌러 꽃모양을 강조하였다. 그릇 형태가 단정하고 절제된 듯한 느낌을 주며, 비색(翡色) 유약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준다. 인종(仁宗) 장릉(長陵) 출토품 가운데 비슷한 유형의 접시가 있다. 굽은 바닥이 편평한 평저형으로 3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





50

청자양각연화문화형접시

靑磁陽刻蓮花文花形楩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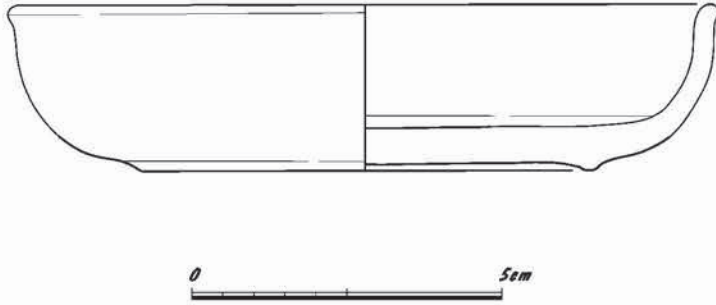
Celadon Flower-shaped Dish with Raised Lotus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높이 3.0 | 입 지름 14.3 |

굽 지름 8.6 | 무게 236.2 | 부피 202.6

높이가 낮고 입술이 외반한 전 접시로 입술부를 꽃 모양으로 성형하여 화려하게 만들었다. 도범(陶范)을 이용한 압출(壓出) 양각 기법으로 무늬를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내저면은 중앙에 연꽃을 배치한 후 주위에 여의두(如意頭) 무늬를 돌렸으며, 측면은 12개의 면으로 구분되는 돌출된 선과 면 각각에 국화를 시문하였다. 입술 역시 12개로 성형한 후 각 면 가운데 부분을 다시 꽃잎처럼 뾰족하게 조각하였다. 태토와 유약은 품질이 매우 좋으며, 굽은 안 바닥을 깎아 낸 속 굽으로 굽 안 바닥 3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





51


청자상감국화문접시

靑磁象嵌菊花文楪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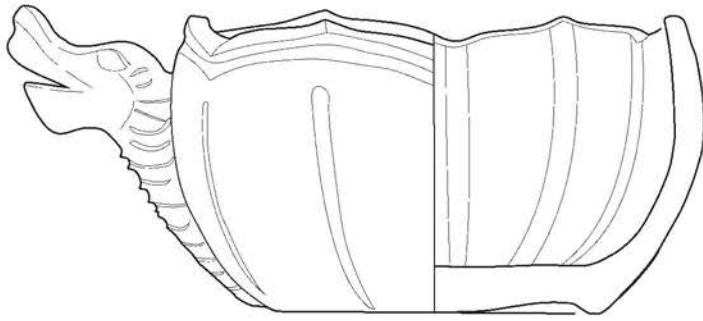
Celadon Dish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높이 2.6 | 입 지름 11.5 |

굽 지름 7.4 | 굽 너비 0.2 | 무게 154.3 | 부피 134.5

내저면이 넓고 편평하며 입술이 도톰하게 성형된 접시이다. 굽은 매우 낮아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다. 무늬는 내·외면 모두 상감으로 시문하였는데, 내면은 입술 아래에 상감선 1줄이 돌려져 있고, 측면은 6곳에 등간적으로 모란을 배치하였다. 내저면에도 이중원권 안에 국화 3송이와 주위에 꽃송이 6장을 일정하게 상감하였는데 측면 모란 무늬와 서로 엇갈리도록 하였다. 외면은 중간부 상감선 1줄을 경계로 위에는 국화 6송이를, 아래는 연꽃잎을 시문하였다. 태토와 유약은 정선되었으나 외측 밑 부분에 유약이 일부 덜 녹아 황록색을 띠기도 한다. 굽 안 바닥 3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52

청자상감국화문화형용두잔


青磁象嵌菊花文化形龍頭盞

Celadon Flower-shaped Cup with Inlaid Chrysanthem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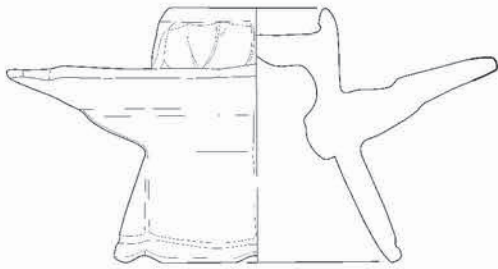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높이 4.2 | 입 지름 6.7 |

굽 지름 4.6 | 굽 너비 0.2 | 무게 100.9 | 부피 92.8

용머리 장식을 손잡이로 붙인 꽃모양 잔이다. 이 잔은 형태와 조각기법, 용머리 장식 등으로 볼 때 특별한 용도를 위해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꽃잎 6장으로 이루어진 꽃모양을 하고 있는데 입술을 도려 내고 외측면 입술부에 1줄 음각선을 돌려 입술이 도톰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6장의 꽃잎은 중간 지점을 다시 2줄 음각선으로 깎아 12개의 공간을 만들었다. 또한 음각선 밑에 상감선 2줄을 입술 모양에 맞추어 돌렸으며, 밑 부분에도 상감선 2줄을 새겨 넣었다. 12개 면에는 흑백상감으로 세로 선을 새기고, 빈 공간에 국화를 3단으로 시문하였다. 손잡이는 용머리와 용의 목을 조각하여 측면에 붙였으며, 눈동자는 점토를 둥글게 빚어 붙였다. 가늘고 긴 용의 목은 4면으로 각이 져 있으며, 비늘을 표현하기 위해 반달 모양 도구를 이용해 4면을 촘촘히 눌러 표현하였다. 굽은 안 바닥을 깎아 낸 속 굽으로 안 바닥 가장자리 3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53


청자상감 '왕' 명잔탁

靑磁象嵌 '王' 銘盞托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94호)

Celadon Cup and Saucer with Inscribed 'Wang(King)'

강진청자박물관 | 높이 7.1 | 입 지름 13.8 |

굽 지름 7.7 | 굽 너비 0.4 | 무게 458.5

일반적으로 잔과 조합을 이루는 잔 받침이다. 중앙에 솟아 있는 잔좌(盞座)를 연꽃잎 모양을 이중으로 조각하였으며, 입술 전 가장자리와 굽은 꽃잎 6장으로 이루어진 꽃 모양으로 도려 냈다. 잔 윗면에 있는 꽃잎 6장은 백상감 선으로 뚜렷하게 구획한 다음 각 꽃잎마다 '王' 자를 흑상감하였다. 굽은 높고 밖으로 벌어졌으며, 일부가 파손되었다. 태토는 회색을 띠며 검은 반점과 기포가 약간 있다. 유약은 짙은 회청색을 띠고, 굽과 잔의 하부는 유약이 완전히 용융되지 않아 탁한 갈색을 띤다. 굽과 받침을 따로 만들어 붙였으며 굽 내측면 3곳에 태토 비집을 받쳐 구웠다. 강진 사당리 41호(강진청자박물관 부근)에서 수습하여 생산지를 뚜렷하게 알 수 있다. 





54

청자상감모란문합

靑磁象嵌牡丹文盒

Celadon Case with Inlaid Peony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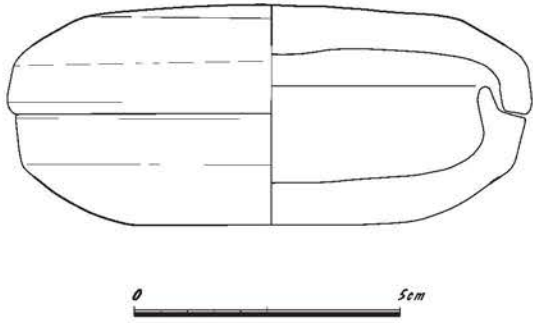
강진청자박물관 | 총 높이 3.5 | 총 무게 202.5 |

뚜껑 높이 1.7 | 뚜껑 입 지름 8.5 | 뚜껑 무게 95.7 |

동체 높이 2.4 | 동체 입 지름 7.2 | 동체 굽 지름 4.5 | 동체 굽 너비 0.3 | 동체 무게 106.8 | 동체 부피 51.4

뚜껑과 동체 전면(全面)에 무늬가 가득 시문된 합이다. 다른 합과 마찬가지로 편평한 뚜껑 윗면에서 수직의 입술과 이어지는 부분이 경사져 단을 이루고 있다. 동체도 굽이 매우 낮아 약간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다. 뚜껑 윗면에 모란꽃 가지가 흑백상감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번개 무늬가 백상감되어 있다. 경사진 부분에는 촘촘하게 음각선이 있으며, 동체 역시 입술부터 굽 가장자리까지 음각선이 촘촘하게 시문되었다. 뚜껑과 동체의 입술 외측면은 넝쿨 무늬를 음각하였다. 태토와 유약이 정선된 편이나 유색이 약간 어두운 비색(翡色)을 띤다. 뚜껑과 동체가 결합되는 입술 가장자리는 유약을 깨끗이 닦아 내고 6곳에 백색 내화토 비짐을 받쳐 뚜껑을 덮은 상태로 함께 구웠다. 굽은 안 바닥을 깎아 낸 속 굽으로 굽 부분 3곳에 구석을 받쳐 구웠다. 📐





55

청자상감봉황문합


靑磁象嵌鳳凰文盒

Celadon Case with Inlaid Phoenix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총 높이 4.3 | 총 무게 298.0 |

뚜껑 높이 2.1 | 뚜껑 입 지름 9.6 | 뚜껑 무게 137.6 |

동체 높이 2.8 | 동체 입 지름 8.1 | 동체 굽 지름 4.7 | 동체 무게 160.4 | 동체 부피 73.6

뚜껑 가장자리는 완만한 경사로 이어져 입술은 수직을 이루어 동체와 조합을 이루는 합이다. 뚜껑과 동체가 맞물리는 입술 부는 각각 완만한 경사로 단(段)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합은 대부분 그릇 높이가 낮아 굽을 안 바닥만 얇게 깎는 속 굽 형태로 성형한다. 또한 뚜껑과 동체가 맞물리는 부분은 유약을 깨끗이 닦아 내고 그곳에 내화토 비짐을 받쳐 뚜껑과 함께 구웠는데, 이 합은 내화토 비짐을 7곳에 받치고 있다. 무늬는 뚜껑 뒷면에 연꽃 봉오리를 입에 물고 있는 봉황 2마리를 대칭으로 원을 그리듯 시문하였다. 태토와 유약이 정선되어 유약도 맑은 비색(翡色)을 띤다. 굽은 안 바닥을 깎아 낸 속 굽으로 3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유물 목록



- | | | | |
|--|------------------------------|--|---|
| <p>01 청자음각여의운문병 靑磁陰刻如意雲文瓶
Celadon Bottle with Incised
Yeoui and Cloud Design</p> | <p>개인 소장
(보물 제1035호)</p> | <p>높이 29.0 입 지름 5.9 굽 지름 9.5</p> |  |
| <p>02 청자음각여의운문병 靑磁陰刻如意雲文瓶
Celadon Bottle with Incised
Yeoui and Cloud Design</p> | <p>강진청자박물관</p> | <p>높이 30.4 입 지름 5.2 굽 지름 11.9
굽 너비 0.6 무게 1,317.7 부피 2,449.0</p> |  |
| <p>03 청자상감유노수금문병 靑磁象嵌柳蘆水禽文瓶
Celadon Bottle with Inlaid Willow, Reed,
and Waterfowl Design</p> | <p>강진청자박물관</p> | <p>높이 35.3 입 지름 8.4
굽 지름 11.0 굽 너비 0.9
무게 2,289.9 부피 3,045.0</p> |  |
| <p>04 청자상감국연학문병 靑磁象嵌菊蓮鶴文瓶
Celadon Bottle with Inlaid Chrysanthemum,
Louts, and Crane Design</p> | <p>선문대학교박물관</p> | <p>높이 33.9 입 지름 8.9 굽 지름 12.1
굽 너비 0.8</p> |  |
| <p>05 청자음각연화문매병 靑磁陰刻蓮花文梅瓶
Celadon Meiping Vase with Incised
Lotus Design</p> | <p>호림박물관</p> | <p>높이 34.0 입 지름 6.2 굽 지름 12.5</p> |  |
| <p>06 청자음각연화문매병 靑磁陰刻蓮花文梅瓶
Celadon Meiping Vase with Incised
Lotus Design</p> | <p>出光美術館(일본)</p> | <p>높이 30.4 입 지름 5.8 굽 지름 9.5</p> |  |
| <p>07 청자음각모란문매병 靑磁陰刻牡丹文梅瓶
Celadon Meiping Vase with Incised
Peony Design</p> | <p>강진청자박물관</p> | <p>높이 39.3 입 지름 6.5 굽 지름 15.3
굽 너비 1.0
무게 4,000.3 부피 9,604.7</p> |  |
| <p>08 청자상감운학문매병 靑磁象嵌雲鶴文梅瓶
Celadon Meiping Vas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p> | <p>강진청자박물관</p> | <p>높이 33.1 입 지름 6.0
굽 지름 11.8 굽 너비 1.2
무게 2,444.0 부피 4,560.2</p> |  |
| <p>09 청자상감모란문매병 靑磁象嵌牡丹文梅瓶
Celadon Meiping Vase with Inlaid
Peony Design</p> | <p>出光美術館(일본)</p> | <p>높이 28.3 입 지름 5.0 굽 지름 10.7</p> |  |
| <p>10 청자상감연화유문 '덕천' 명매병
靑磁象嵌蓮花柳文 '德泉' 銘梅瓶
Celadon Meiping Vase with Inlaid Lotus and
Willow Design and Inscribed 'Deokcheon'</p> | <p>호림박물관
(보물 제1035호)</p> | <p>높이 27.8 입 지름 5.1 굽 지름 11.1</p> |  |

<p>11 청자구룡형정병 青磁九龍形淨瓶 Celadon Nine Dragon-shaped Kundika</p>	<p>大和文華館(일본) 강진 고분 출토 (일본 중요문화재)</p>	<p>높이 33.5 동체 지름 12.5</p>	
<p>12 청자상감모란문정병 青磁象嵌牡丹文淨瓶 Celadon Kundika with Inlaid Peony Design</p>	<p>강진청자박물관</p>	<p>높이 41.1 입수구 입 지름 3.5 동체 지름 14.5 굽 지름 9.4 굽 너비 0.8 무게 1,778.3 부피 1,473.1</p>	
<p>13 청자양각연판문양이병 青磁陽刻蓮瓣文兩耳瓶 Celadon Bottle with Raised Lotus Petal Design</p>	<p>선문대학교박물관</p>	<p>높이 25.0 입 지름 9.6 굽 지름 10.5 굽 너비 0.6</p>	
<p>14 청자상감매노학접문사이호 青磁象嵌梅蘆鶴蝶文四耳壺 Celadon Jar with Inlaid Apricot Flower, Reed, Crane and Butterfly Design</p>	<p>강진청자박물관</p>	<p>높이 23.0 입 지름 8.3 굽 지름 12.0 굽 너비 0.7 무게 1,631.8 부피 1,936.6</p>	
<p>15 청자상감모란문편호 青磁象嵌牡丹文扁壺 Celadon Flat Jar with Inlaid Peony Design</p>	<p>高麗美術館(일본)</p>	<p>높이 28.0 입 지름 7.8 굽 지름 11.8</p>	
<p>16 청자음각과문주자 青磁陰刻瓜文注子 Celadon Pitcher with Incised Melon Design</p>	<p>강진청자박물관</p>	<p>총 높이 19.6 총 무게 1,438.8 뚜껑 높이 3.7 뚜껑 입 지름 2.2 뚜껑 무게 53.7 주자 높이 17.5 주자 입 지름 3.3 주자 굽 지름 9.1 주자 굽 너비 0.7 주자 무게 1,385.0 주자 부피 1,673.8</p>	
<p>17 청자죽순형주자 青磁竹筍形注子 Celadon Bamboo-shaped Pitcher</p>	<p>선문대학교박물관</p>	<p>총 높이 25.0 뚜껑 높이 7.7 뚜껑 입 지름 3.3 주자 높이 19.4 주자 입 지름 4.2 주자 굽 지름 10.0 주자 굽 너비 0.6</p>	
<p>18 청자과형주자 青磁瓜形注子 Celadon Melon-shaped Pitcher</p>	<p>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태안 대섬(죽도) 해저유적 출토</p>	<p>뚜껑 높이 3.6 뚜껑 입 지름 6.5 주자 높이 16.8 주자 입 지름 4.8 주자 굽 지름 7.3</p>	
<p>19 청자과형주자 青磁瓜形注子 Celadon Melon-shaped Pitcher</p>	<p>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태안 대섬(죽도) 해저유적 출토</p>	<p>뚜껑 높이 3.1 뚜껑 입 지름 4.0 주자 높이 16.5 주자 입 지름 4.5 주자 굽 지름 7.5</p>	
<p>20 청자항 青磁缸 Celadon Jar</p>	<p>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태안 대섬(죽도) 해저유적 출토</p>	<p>높이 13.3 입 지름 20.8 굽 지름 8.0</p>	

21 청자상감연국모란문과형주자
靑磁象嵌蓮菊牡丹文瓜形注子
Celadon Melon-shaped Pitcher with Inlaid Lotus, Chrysanthemum, and Peony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전라남도 유형
문화재 제292호)

높이 23.6 | 입 지름 5.0 |
굽 지름 10.0 | 굽 너비 0.9



22 청자상감연화문과형주자
靑磁象嵌蓮花文瓜形注子
Celadon Melon-shaped Pitcher with Inlaid Lotus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총 높이 18.4 | 총 무게 1,321.8 |
뚜껑 높이 3.4 | 뚜껑 입 지름 2.8 |
뚜껑 무게 37.3 |
주자 높이 15.8 | 주자 입 지름 3.9 |
주자 굽 지름 9.9 |
주자 무게 1,284.3 | 주자 부피 1,561.0



23 청자음각모란당초문표형주자·승반
靑磁陰刻牡丹唐草文瓢形注子·承盤
Celadon Gourd-shaped Pitcher and Tray with Incised Peony and Arabesque Design

出光美術館(일본)

총 높이 24.0 |
주자 높이 22.0 | 주자 입 지름 2.9 |
주자 굽 지름 8.6 |
승반 높이 6.2 | 승반 입 지름 17.7 |
승반 굽 지름 9.4



24 청자표형주자 靑磁瓢形注子
Celadon Gourd-shaped Pitcher

강진청자박물관

높이 23.8 | 입 지름 3.3 | 굽 지름 8.9 |
무게 1,132.8 | 부피 1,438.3



25 청자상감모란연화문표형주자·승반
靑磁象嵌牡丹蓮花文瓢形注子·承盤
Celadon Gourd-shaped Pitcher and Tray with Inlaid Peony and Lotus Design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태안 마도 1호선
출토

주자 높이 25.9 | 주자 입 지름 2.4 |
주자 굽 지름 8.9 |
승반 높이 5.7 | 승반 입 지름 16.9 |
굽 지름 9.4



26 청자주자 靑磁注子
Celadon Pitcher

선문대학교박물관

총 높이 15.4 | 뚜껑 높이 2.4 |
뚜껑 입 지름 8.2 |
주자 높이 14.4 | 주자 입 지름 7.4 |
주자 굽 지름 9.1



27 청자주자 靑磁注子
Celadon Pitcher

강진청자박물관

총 높이 23.2 | 총 무게 1,579.9 |
뚜껑 높이 3.2 | 뚜껑 입 지름 12.1 |
뚜껑 무게 130.5 |
주자 높이 22.2 | 주자 입 지름 11.0 |
주자 굽 지름 8.3 | 주자 굽 너비 0.9 |
주자 무게 1,499.4 | 주자 부피 1,936.0



28 청자사자형향로 靑磁獅子形香爐
Celadon Lion-shaped Incense Burner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태안 대선(죽도)
해저유적 출토

뚜껑 높이 13.9 | 뚜껑 입 지름 11.0 |
동체 높이 9.0 | 동체 입 지름 15.5



29 청자철화퇴화문섬형벼루
靑磁鐵畫堆花文蟾形硯
Celadon Toad-shaped Inkstone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태안 대선(죽도)
해저유적 출토

높이 7.0 | 길이 13.9



30 청자상감모란국화문화분
靑磁象嵌牡丹菊花文花盆
Celadon Flowerpot with Inlaid Peony and Chrysanthemum Design

高麗美術館(일본)

높이 21.5 | 입 지름 26.6 | 굽 지름 19.5



<p>31 청자상감연국화문 '정릉' 명통 靑磁象嵌蓮菊花文 '正陵' 銘筒 Celadon Cup with Inlaid Lotus and Chrysanthemum Design and Inscribed 'Jeongnung'</p>	<p>선문대학교박물관</p>	<p>높이 17.6 입 지름 11.5 굽 지름 8.2 굽 너비 0.8</p>	
<p>32 청자상감모란운학문침 靑磁象嵌牡丹雲鶴文枕 Celadon Pillow with Inlaid Peony, Cloud and Crane Design</p>	<p>국립중앙박물관</p>	<p>높이 12.7 길이 23.3 너비 9.4</p>	
<p>33 청자상감모란국화문도판 靑磁象嵌牡丹菊花文陶板 Celadon Plate with Inlaid Peony and Chrysanthemum Design</p>	<p>선문대학교박물관</p>	<p>높이 22.5 너비 30.6 두께 0.3</p>	
<p>34 청자음각운룡문 '상약국' 명합 靑磁陰刻雲龍文 '尙藥局' 銘盒 Celadon Bowl with Incised Cloud and Dragon Design and Inscribed 'Sangyakguk'</p>	<p>국립중앙박물관 개성 출토 (보물 제1023호)</p>	<p>총 높이 9.3 입 지름 7.0 굽 지름 5.5</p>	
<p>35 청자음각 '상약국' 명합 靑磁陰刻 '尙藥局' 銘盒 Celadon Bowl with Inscribed 'Sangyakguk'</p>	<p>大和文華館(일본)</p>	<p>높이 6.1 입 지름 6.4 굽 지름 6.3 굽 너비 0.2</p>	
<p>36 청자상감운학국화문개합 靑磁象嵌雲鶴菊花文蓋盒 Celadon Bowl and Lid with Inlaid Cloud, Crane and Chrysanthemum Design</p>	<p>강진청자박물관 (전라남도 유형 문화재 제293호)</p>	<p>총 높이 18.0 총 무게 1,417.1 뚜껑 높이 6.7 뚜껑 입 지름 18.4 뚜껑 무게 430.0 발 높이 8.3 발 입 지름 17.4 발 굽 지름 6.3 발 굽 너비 0.8 발 무게 631.6 발 부피 883.7 받침 높이 4.6 받침 입 지름 16.1 받침 굽 지름 6.5 받침 굽 너비 0.6 받침 무게 355.6</p>	
<p>37 청자음각연관문병 靑磁陰刻蓮瓣文瓶 Celadon Bottle with Incised Lotus Petal Design</p>	<p>강진청자박물관</p>	<p>높이 4.7 입 지름 3.1 굽 지름 5.5 굽 너비 0.4 무게 173.4 부피 64.7</p>	
<p>38 청자완 靑磁盪 Celadon Bowl</p>	<p>강진청자박물관</p>	<p>높이 6.3 입 지름 16.0 굽 지름 6.1 굽 너비 1.2 무게 341.4 부피 447.4</p>	
<p>39 청자양각국화문완 靑磁陽刻菊花文盪 Celadon Bowl with Raised Chrysanthemum Design</p>	<p>강진청자박물관</p>	<p>높이 4.6 입 지름 11.1 굽 지름 3.3 굽 너비 0.4 무게 101.0 부피 149.3</p>	

40 청자음각보상화문완 靑磁陰刻寶相花文盃 Celadon Bowl with Incised Arabesque 'Bosangwha'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높이 6.3 입 지름 11.5 굽 지름 3.7 굽 너비 0.3 무게 166.4 부피 309.9	
41 청자상감모란운학문완 靑磁象嵌牡丹雲鶴文盃 Celadon Bowl with Inlaid Peony, Cloud and Crane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높이 5.7 입 지름 12.5 굽 지름 4.4 굽 너비 0.3 무게 217.4 부피 317.5	
42 청자양각연판문대접 靑磁陽刻蓮瓣文大椀 Celadon Bowl with Raised Lotus Petal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높이 5.2 입 지름 16.6 굽 지름 6.6 굽 너비 0.3 무게 292.1 부피 422.2	
43 청자음각앵무문대접 靑磁陰刻鸚鵡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cised Parrot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높이 5.3 입 지름 17.0 굽 지름 6.5 굽 너비 0.3 무게 334.0 부피 496.7	
44 청자양각촉규문대접 靑磁陽刻蜀葵文大椀 Celadon Bowl with Raised Rose Mallow Design	高麗美術館(일본)	높이 7.5 입 지름 19.0 굽 지름 6.5	
45 청자음각앵무문대접 靑磁陰刻鸚鵡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cised Parrot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높이 7.3 입 지름 17.5 굽 지름 6.5 굽 너비 0.3 무게 377.8 부피 710.4	
46 청자상감여지문대접 靑磁象嵌荔枝枝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laid Litchi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높이 8.8 입 지름 20.3 굽 지름 6.3 굽 너비 0.4 무게 558.6 부피 1,090.5	
47 청자상감여지문대접 靑磁象嵌荔枝枝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laid Litchi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높이 6.9 입 지름 18.9 굽 지름 7.2 굽 너비 0.5 무게 546.4 부피 834.4	
48 청자상감화훼조충문대접 靑磁象嵌花卉鳥蟲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laid Flower, Bird and Bug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높이 8.3 입 지름 20.1 굽 지름 7.2 굽 너비 0.6 무게 634.7 부피 1,182.3	
49 청자화형접시 靑磁花形椀匙 Celadon Flower-shaped Dish	강진청자박물관	높이 3.2 입 지름 15.4 굽 지름 9.9 무게 206.5 부피 205.0	

<p>50 청자양각연화문화형접시 青磁陽刻蓮花文花形碟匙 Celadon Flower-shaped Dish with Raised Lotus Design</p>	<p>강진청자박물관</p>	<p>높이 3.0 입 지름 14.3 굽 지름 8.6 무게 236.2 부피 202.6</p>	
<p>51 청자상감국화문접시 青磁象嵌菊花文碟匙 Celadon Dish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p>	<p>강진청자박물관</p>	<p>높이 2.6 입 지름 11.5 굽 지름 7.4 굽 너비 0.2 무게 154.3 부피 134.5</p>	
<p>52 청자상감국화문화형용두잔 青磁象嵌菊花文花形龍頭盞 Celadon Flower-shaped Cup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p>	<p>강진청자박물관</p>	<p>높이 4.2 입 지름 6.7 굽 지름 4.6 굽 너비 0.2 무게 100.9 부피 92.8</p>	
<p>53 청자상감 '왕' 명잔탁 青磁象嵌 '王' 銘盞托 Celadon Cup and Saucer with Inscribed 'Wang(King)'</p>	<p>강진청자박물관 (선라남도 유형 문화재 제294호)</p>	<p>높이 7.1 입 지름 13.8 굽 지름 7.7 굽 너비 0.4 무게 458.5</p>	
<p>54 청자상감모란문합 青磁象嵌牡丹文盒 Celadon Case with Inlaid Peony Design</p>	<p>강진청자박물관</p>	<p>총 높이 3.5 총 무게 202.5 뚜껑 높이 1.7 뚜껑 입 지름 8.5 뚜껑 무게 95.7 동체 높이 2.4 동체 입 지름 7.2 동체 굽 지름 4.5 동체 굽 너비 0.3 동체 무게 106.8 동체 부피 51.4</p>	
<p>55 청자상감봉황문합 青磁象嵌鳳凰文盒 Celadon Case with Inlaid Phoenix Design</p>	<p>강진청자박물관</p>	<p>총 높이 4.3 총 무게 298.0 뚜껑 높이 2.1 뚜껑 입 지름 9.6 뚜껑 무게 137.6 동체 높이 2.8 동체 입 지름 8.1 동체 굽 지름 4.7 동체 무게 160.4 동체 부피 73.6</p>	

강진 청자의 생산과 유통

한성옥 | 민족문화유산연구원

목 차

- I. 머리말
- II. 전라도 지역의 도자사적 배경
- III. 강진 청자의 생산과 유통
- IV. 맺음말

I. 머리말

한반도에서 청자가 생산된 것은 신라 통일기에 두 가지 혁신적인 변화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배경은 첫째 삼국시대부터 도입되었던 중국 청자에 대한 인식이 크게 증가된 것이며, 둘째 高火度 灰釉陶器가 자기 제작기술 직전 단계까지 발전해 있었다. 특히 9세기경부터는 張保臯 大使의 해상활동과 渡唐 유학 등을 통한 중국과의 폭 넓은 교역을 통해 浙江省 越州窯와 廣東省 銅管窯 청자, 河北省 邢窯와 定窯 백자 등이 경주(黃龍寺, 雁鴨池 등)를 비롯하여 서남해안 지역(保寧 聖住寺, 扶餘 扶蘇山城, 益山 彌勒寺, 南原 實相寺, 莞島 淸海鎮, 光陽 玉龍寺 등)에 본격적으로 유입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이런 문화적 바탕 위에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던 회유도기의 제작기술과 중국의 기술력이 더해져 자체적으로 청자를 만들 수 있었으며 백자도 함께 생산할 수 있었다. 청자는 철분이 조금 섞인 태토에 철분이 1~3% 정도 들어 있는 장식질 유약을 입혀 환원염으로 구워 낸 것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약과 태토가 안정되고 문양이 시문되면서 다양한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청자는 고려의 창건과 비슷한 시기에 생산되어 고려의 성장과 함께 발전하며 고려의 쇠망에 맞추어 퇴락하고 있다. 따라서 청자는 고려의 흥망성쇠와 그 궤를 같이하는 특징적 공예품으로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어 고려 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강진은 청자가 생산되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그 기술이 유입되어 퇴장하는 시기까지 청자를 생산하고 발전시켰던 가장 대표적인 고려청자 窯場이다. 특히 강진은 도기를 만들던 전통적인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중국 도자 기술을 받아들여 독창적인 翡色 청자와 상감청자를 완성하였던 곳으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또한 강진은 국가 재정과 물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운영되었던 “所” 가운데 청자 생산을 담당하였던 大口所와 七良所가 운영되어 청자를 공급하였던 곳으로 국가의 통제와 토착세력의 관리하에 품질이 관리되었다. 따라서 강진청자와 고려청자는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唇亡齒寒의 관계로 강진청자의 변천사가 고려청자의 변천사이며, 고려청자의 변천사가 강진청자의 변천사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고려의 대표적 문화 예술품 가운데 하나인 청자가 강진에서 어떻게 생산되어 유통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강진에서 생산된 고려청자는 그 자체가 고려청자를 대변하는 것이므로 국가 제도와 강진 지역의 사회적 배경 등을 함께 검토하면서 정리하고자 한다.

1) 고려시대 청자 제작을 담당하였던 大口所와 七良所는 耽津縣 지역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朝鮮時代 이후 사용된 康津이라는 지명이 高麗를 배경으로 작성된 이 글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어 이를 사용하였다. 즉, 이 글은 강진이라는 현재의 지명을 사용하였으나 내용은 高麗時代 耽津縣과 大口所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II. 전라도 지역의 도자사적 배경

전라도는 한반도 서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바다와 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물산이 풍부하며 支石墓를 비롯한 독특한 문화유산을 많이 지니고 있다. 또한 고분시대의 독특한 묘제로 발달된 甕棺을 비롯하여 일찍부터 도자문화가 전개되어 한반도의 전통문화를 빛내는데 일조하였다. 특히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반도 도자생산의 핵심 지역으로 수많은 가마터가 분포하고 있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 가운데 고려시대는 청자 제작의 중흥기로 그 기원과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곳은 康津郡 大口面(사적 제68호)의 龍雲里(75기)·桂栗里(59기)·沙堂里(43기)·水洞里(6기)와 康津郡 七良面 三興里(5기; 기념물 제81호), 海南郡 花源面(기념물 제220호) 新德里(54기)·錦坪里(2기), 海南郡 山二面 珍山里(80기; 사적 제310호)·草松里(24기)·九星里(2기), 扶安郡 保安面 柳川里(사적 제69호; 45기), 扶安郡 鎭西面 鎭西里(사적 제70호; 40기) 가마터 등이 있다.²⁾ 이들은 산과 계곡, 구릉 경사지에 분포하며, 자기 제작이 시작된 시기부터 운영되어 청자의 기원과 변천을 잘 간직하고 있다. 수량에 있어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마가 이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한편 청자 발생기의 초기청자 가마터는 高興郡 豆原面 雲岱里(기념물 제80호)와 長興郡 蓉山面 豐吉里(기념물 제221호), 高敞郡 雅山面 龍溪里(사적 제345호), 鎭安郡 聖壽面 道通里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일찍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마가 분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에서 청자가 발생한 것은 중국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시작되었다. 즉, 吳越國이 宋에 의해 멸망하면서 각지로 흩어진 일부 도자 匠人들이 고려에 유입되어 그 기능을 전수하였던 것이다. 내적으로는 삼국시대 이후 발달한 도기 제작기술의 토대 위에 중국의 기술을 받아 들여 고려만의 독창적인 청자를 제작할 수 있었다. 이 요인 외에 신라말 9세기대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해상세력을 구축하였던 張保臯 大使에 의해 수입되었던 중국 청자가 고려에 더욱 확산되면서 마침내 자체적으로 청자를 만들어 공급하도록 하였다. 고려청자는 처음에는 開京과 가까운 白川과 高陽, 始興, 龍仁 등에서 만들기 시작하여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11세기가 되면 강진과 해남에 집중되어 고려만의 특징적인 청자문화를 발전시킨다. 전라도 지역에 요장이 집중되고 독창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배경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서해를 통한 해상활동으로 성장한 張保臯 淸海鎭 세력을 비롯한 호족들과 중국에 다녀온 유학생 등 새로운 지배세력이 唐·五代의 중국 문물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禪僧들에 의한 茶道 보급으로 도자문화가 확산되어 있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중국 자기를 구해 수요를 충족하였으나 점차 체제가 안정되고 지배층이 늘어나면서 수입 자기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게 되었다. 즉,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게 되자 그와 비슷한 제품을 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독자적인 청자문화를 발전시킨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고려의 건국과 함께 사회가 안정되고 제도가 정비되면서 새로운 수도인 開京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으로 가꾸기 위해 궁궐과 관청, 사찰 등 많은 건물이 신축되면서 이곳에서 사용할 고급 기물이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여러 지역에서 생산된 청자가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가운데 전라도지역이 청자생산의 중심이 된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왕실을 비롯한 수요층의 미감과 일치하였으며 기술력 또한 월등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수요층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력과 예술성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또한 고품질의 청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분업화된 공방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해 강진으로의 기술력 이전과 인적 집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³⁾ 이러한 강진으로의 기술 집약은 對蒙抗爭(1231~1273년) 이후 청자의 품질이 쇠퇴하면서 다시 한 번 재현된다. 對蒙抗爭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장인들의 流離로 부안 청자의 생산은 점차 위축되었으나 강진은 고려가 쇠망하는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청자를 생산할 수 있었

2) ① 木浦大學校博物館, 『海南의 靑磁窯址』, 2002.

②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扶安 柳川·鎭西里 靑磁窯址調査』, 1994.

③ 海剛陶磁美術館, 『康津의 靑磁窯址』, 1992.

3) 조선시대도 京畿道 廣州에 分院이 설치되면서 지방의 匠人들이 본원으로 집결하고 있다(표 3 참조).

다. 고려 후기 역시 체제가 안정되면서 전란으로 흐트러진 요업을 재정비하여 고품격의 청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재차 강진으로 기술 집약이 이루어지면서 부안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축소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강진이 부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자 생산에 안정적 체제를 갖추었으며 이를 운영하는 지역 세력층도 견재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부안은 고려의 材木 창고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목재를 생산하던 곳이었으나⁴⁾ 대몽항쟁 후 몽고의 요구에 의해 일본 원정을 위한 선박 건조를 위해 강진 인근의 長興 天冠山과 함께 造船所로 지정되어 많은 나무가 소비되었다.⁵⁾ 따라서 국가 재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나무의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였으며, 부안은 이 역할을 전담하기 위해 점차 요업을 축소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전라도 지역은 풍족한 물산과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고 이에 따라 자기에 대한 이해와 수요에 대한 욕구가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새로운 기물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자기 제작은 필수적이었으며 그 중심적 역할을 전라도 지역이 담당할 수 있었다. 특히 전라도 지역은 한반도의 곡창지대로 농경시대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많아 飲食과 飲酒, 飲茶 등 풍류문화가 발달한 곳으로 고급 도자문화를 적극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즉, 생산과 물류 뿐만 아니라 소비로서의 여건도 갖추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도자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닷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를 통한 선진 기술의 신속한 유입과 용이한 원료 수급, 편리한 유통 수단 등도 도자문화 발전을 촉진시켰다. 서해를 통해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동해안에 인접한 越州窯와 汝州窯, 宋代官窯, 龍泉窯 등 다양한 도자문화들과 교류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해로를 통한 원료 수급과 운송의 편리함은 고려시대 중앙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을 전문적으로 생산 공급하였던 所와 이들 貢物을 운반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던 漕倉의 전국적인 분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所는 청자를 비롯한 수공업 제품과 광산물, 해산물, 농산물 등을 생산한 특수지역으로⁶⁾ 전국에 275개가 설치되었는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라도와 충청도에 설치되었다.⁷⁾ 이들 貢物을 운반하기 위해 해안에 설치된 漕運倉 역시 13곳 가운데 전라도(6곳)와 충청도(3곳)에 집중 설치되고 있어⁸⁾ 전라도지역이 수공업 생산과 물류 운반에 용이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해로를 통해 청자를 운반했다는 사실은 서남해안에서 조사되고 있는 많은 해저유적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⁹⁾

강진과 해남, 부안이 위치한 전라도 지역은 겨울과 여름의 기온 차가 심하지 않고 일년 내내 온난하여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당한 곳이다. 또한 요장 주변에 품질이 우수한 태토가 매장되어 있으며 땀감과 수량이 풍부하여 우수한 도자 생산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풍부한 땀감은 대단위 요장의 입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자연조건의 유리함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麗蒙聯合軍의 일본 원정을 위한 전함을 강진과 인접한 長興의 天冠山과 扶安의 邊山에서 제작하고 있음에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이 지역에 일시에 많은 전함을 만들 정도로 목재가 매우 풍족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라도지역이 고려시대 도자문화를 선도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에 선진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과 우수한 문화, 그리고 이를 통제 운영할 수 있었던 세력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렇지만 이들 製磁勢力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기청자의 경우 청해진 장보고 대사 세력을 언급하고 있으나¹⁰⁾ 장보고 대사의 본거지인 청해진 유적에서 초기 청자가 전혀 출토되지

4) 李奎報, 『東文選』 66卷, 記, 南行月日記, 奉朝勅 譯伐木邊山 邊山之國之材府也 修營宮室 靡歲不採 然蔽牛之大 干霄之幹 常不竭矣.

5) 『高麗史』 27卷, 世家 27, 元宗 15年(1274) 6月 辛酉條, 遣大將軍羅裕如 元上中書省書曰 今年正月三日伏蒙朝旨 打造大船三百艘即行措置 遣樞密院副使許珙於全州道邊山 左僕射洪祿 遣於羅州道天冠山備材.

6) 『新增東國輿地勝覽』 7卷, 驪州牧 古跡 登神莊條, 今安 新羅建置州郡時 其田丁戶口 未堪爲縣者 或置鄉 或置部曲 屬于所在之邑 高麗時 又有稱所者 有金所 銀所 銅所 鐵所 絲所 紬所 紙所 瓦所 炭所 鹽所 墨所 蠶所 漆器所 魚梁所 置所之別 而各供其物 又有稱處者 又有稱莊者 分隸于各宮殿寺院及內莊宅 以輸其稅 右諸所 皆有土姓 吏民焉 金富 賦撰 三國史地理志 不復具錄 而鄭麟趾撰 高麗史 亦因之 今既著姓氏 則其姓氏所本之地 不可不載 故據周官六翼 而質之當今有 所可巧者 纔十之一二 並附入于遂邑古蹟之下云.

7) 張南原, 『高麗中期 青瓷의 研究』, 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p.30.

8) 『高麗史』 79卷, 志 33, 食貨 2, 漕運條(처음 12漕倉이었으나 文宗代 以北의 長湍에 安蘭倉을 두어 13漕倉으로 하였다).

9) 張南原, 『漕運과 陶器生産, 그리고 流通-海底引揚 高麗陶器를 中心으로-』, 『美術史研究』 22, 美術史研究會, 2008.

10) ① 姜鳳龍, 『海南地域 青磁 生産의 歷史·地理의 背景』, 『海南의 青磁窯址』, 木浦大學校博物館, 2002.
② 吉岡完祐, 『高麗青磁의 發生에 關한 研究』, 崇田大學校博物館, 1979.

않고 있어¹¹⁾ 역사적 배경만으로는 장보고 대사 관련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토착세력이 주도한 자기제작 가능성을 앞으로 심층적으로 연구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신라통일기와 고려 전기에 해남과 강진 지역을 관할하였던 陽武郡과 靈巖郡 세력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¹²⁾ 이는 羅州 五良洞·新加里와 光州 孝泉洞 등의 영산강 유역에서 대단위 도기 가마터들이 계속 조사되고 있으며¹³⁾ 이를 계승한 영암 구림리 도기가마의 제작 기술과 유사한 제품들이 청자 요장에서 확인되고 있어 제작 기술뿐만 아니라 제작 집단, 생산주체도 영산강에 기반을 둔 토착세력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이들 영산강 중심의 나주와 영암 세력이 고려 건국에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었음에서도 이들 세력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전라도 지역과 개경을 중심으로 한 중서부지역 제작기술을 살펴보면 가마 축조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중서부지역이 벽돌로 가마를 축조(塼築窯)하고 있는데 비해 전라도지역은 전통적인 방식인 진흙을 이용하여 가마를 축조(土築窯)하고 있다. 토축요가 중심을 이룬 전라도지역은 고화도의 용관묘를 제작하던 우수한 가마 축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의 선진기술이 필요하였던 중서부 지역처럼 벽돌 가마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¹⁴⁾ 전축요는 토축요에 비해 노동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축조술로 토축요 기술이 축적되어 있던 樂山江 유역 제작집단에게는 전축요가 불필요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중서부 지역과는 태토와 유색, 번조방법(번법) 등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¹⁵⁾ 따라서 이들은 중국의 서로 다른 제작기술을 수용하여 자기를 제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제작기술은 오랜 시기 각 지역별로 다종다양한 기형과 유색, 태토, 문양, 번법이 발전하고 있어 중국과의 관련성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그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국 가마 축조술은 전축요뿐만 아니라 토축요에도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한반도의 제작기술이 다양한 것은 당시 기술을 받아들였던 중국의 도입지가 달라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즉, 중서부지역 가마들이 중국 越州窯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강진을 비롯한 전라도지역 가마는 월주요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II. 강진 청자의 생산과 유통

1. 고려시대 강진의 역사적 배경

강진은 조선 태종대(1400~1418년) 道康縣과 耽津縣이 통합되면서 등장한 명칭이다. 따라서 고려시대는 도강현과 탐진현이 각각의 행정구역을 갖추고 있었으며, 청자를 생산하였던 大口所와 七良所는 탐진현 내에 있었다. 강진지역은 832년(신라 진성여왕 6) 甄萱이 光州를 중심으로 전남지방에 後百濟를 건국하면서 그 세력권에 편입되었으며 고려가 건국되면서 새로운 행정변화를 겪게 된다.

고려 초기 강진지역의 행정변화는 940년(태조 23) 신라통일기에 大郡이었던 陽武郡이 道康郡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속현이었던 耽津縣을 인접한 靈岩郡에 넘겨주고, 이후 1018년(현종 9) 道康郡이 속현이던 黃原·海南(浸溟)·竹山(固安)縣과 함께 영암군의 속현으로 포함되면서 독립된 행정영역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1124년(인종 2) 영암의 속현이던 定安縣이 長興府로 승격되면서 영암에 속해 있던 耽津縣이 장흥부로 移屬된다. 이 변화를 보면 고려 이전까지 영암·해남·강진을 아우르는 大郡이었던 강진지역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어 1018년 독립 행정영역을 상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려 건국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던 영암 세력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전남지

11) 國立文化財研究所, 『將島 淸海鎮』, 2001.

12) 崔盛洛·李海濤, 『海南地方의 文化的 背景』, 『海南郡의 文化遺蹟』, 木浦大學校博物館, 1986, pp.20~26.

13) ① 東新大學校博物館, 『羅州 新加里 遺蹟』, 2004.

② 木浦大學校博物館 外, 『羅州 五良洞 가마 遺蹟』, 2004.

③ 全南文化財研究院, 『光州 孝泉 2地區 住宅建設敷地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指導委員會 및 現場說明會資料』, 2009.

14) 전축요는 토축요에 비해 노동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축조술로 토축요 기술이 축적되어 있던 樂山江 유역 製瓷集團에게는 전축요가 불필요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15) 李鍾玟, 『韓國의 初期靑磁 研究』, 弘益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3.

역의 경우 羅州와 靈岩, 靈光 등이 성장하고 있어 이들에 의해 전남지역의 행정 체계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영암군은 현재의 영암과 강진, 해남, 장흥 등을 묶는 커다란 세력권을 형성하면서 호남 서남부의 행정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고려초 대대적인 행정개편은 중앙 정부가 어느 정도 전남지역의 토착 세력을 아우르고 그 기반을 확고히 다져가는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중심지로 나주·영암·영광 등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¹⁶⁾ 특히 영암은 고려 전기 청자 생산의 중심지인 耽津縣과 黃原郡(현 海南郡 山二面과 花源面)을 영역에 포함하고 있어 도자 산업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정비된 행정체계는 조직적인 편제는 아니었다. 많은 郡縣들이 領屬關係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었는데 강진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이 시기 지방관계는 중앙정부의 힘이 말단 군현까지 미치지 못했으며, 후기로 내려오면서 점차 監務를 파견하여 지배 체제를 강화하였다. 감무란 縣丞을 파견할 수 없는 작은 縣의 감독관과 같은 것으로 道康縣은 1172년(명종 2) 主縣으로 승격되면서 감무가 파견되었다. 그러나 大口所가 있던 탐진현은 감무가 파견되지 않고 靈巖과 長興의 속현으로 관리되었다. 한편 강진 지역에는 이들 道康縣과 耽津縣 외에 청자를 생산하였던 大口所와 七良所를 비롯하여 다양한 鄉·所·部曲이 존재하였으며,¹⁷⁾ 조선 太宗 9년(1409)에 혁파될 때까지 그 세력을 유지하였다.

강진지역은 바다와 접해 있어 일찍부터 해로가 발달하였다. 해로의 발달은 육상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로 올라갈수록 그 의미는 컸으며 서남해를 통과하는 해로는 국제문화의 交易路로서도 매우 주목되었다. 이는 耽津의 지명이 耽羅(현 濟州)와의 해상 교류 때문에 생긴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해로를 통한 문화교류가 본격적인 궤도에 이른 시기는 고려시대였으며 강진지역의 문화 역시 그 영향을 받아 더욱 발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해로의 발달은 강진의 청자 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해상교통의 발달은 강진지역 문화 발달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었으나 麗末鮮初에 이르면 왜구의 피해가 극심한 지역으로 전락하게 하였으며 결국 강진 도자문화의 쇠퇴를 가져온다. 즉 이 시기에 왜구 침입은 전라도의 해안과 도서지방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長興과 珍島 등의 治所가 내륙으로 이동하였으며, 해안으로부터 50리 이내에는 주민을 살지 못하게 할 정도로 피해가 극심하였다.

통일 신라 이래 無爲寺와 月南寺, 白蓮寺 등을 중심으로 꽃피웠던 佛敎文化 또한 강진 지역의 사회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王建의 스승으로 이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迥微의 住錫處가 無爲寺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渡唐遊學僧 출신인 형미는 迦智山門 體澄의 문하로 왕건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친 승려이다. 형미는 무위사에 常住하면서 서남해 지역 호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왕건은 그의 法弟子가 되어 그의 지원을 이끌었으며 그의 도움으로 榮山江 세력의 협조를유도할 수 있었다. 泰封의 弓裔는 왕건을 견제하기 위해 형미를 사형시키는데, 이는 이 지역 호족세력에 대한 견제이기도 하였다.¹⁸⁾ 또한 고려후기 역시 무신정권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던 白蓮結社의 중심 도량인 白蓮社와 修禪結社의 핵심적 사찰이었던 月南寺가 강진 지역에 위치하여 새로운 신앙결사 운동을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 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찰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 토호세력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지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2. 강진 청자의 생산 체제

고려는 재정확보와 각종 물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특정 鑛産物과 農水産物, 手工業品을 생산하는 다양한 “所”를 운영하였다. 이들은 專業的으로 생산한 물품을 常貢과 함께 중앙各司가 요구하는 別貢을 통해 貢納하면서 국가재정의 일부분을 담당하였다.¹⁹⁾ 이들 所는 新羅의 麗金成·濯錦成·寶劍成 등 수공업품 제작의 “成”제도를 계승하여 태

16) 李海濤, 「康津郡의 沿革」, 「康津郡의 文化遺蹟」, 木浦大學校博物館, 1989.
 17) 「世宗實錄地理志」, 康津縣條, 所八 山計 山深 大谷 大口 七良 種玉 舊溪 富元.
 18) 姜鳳龍, 「羅末麗初 西南海地方의 海洋勢力과 王建·甄萱」, 「張保皋와 동아시아 世界」, 高麗大學校博物館, 2002, pp.44~46.
 19) 金炫榮, 「高麗時期的 所에 對한 再檢討」, 「韓國史論」 15, 서울大學校國史學科, 1986, p.117.

祖 23년(940) 무렵 성립되었으며 成宗代(981~997년)에 실시된 지방제도로 완비되었다.²⁰⁾ 신라에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전문적으로 도기를 만들었던 지역이 확인되고 있어 뒷받침되고 있다.²¹⁾ 所는 국가의 지배를 받으며 各所의 所司 主管下에 운영되었다.²²⁾ 그러나 所는 外官이 파견되지 않아 所가 위치한 主縣에 의해 관리 감독되었기 때문에 국가와 주현 등에 의한 이중적 수탈관계에 놓여 있었다. 즉 국가의 지배하에 있었으나 실제 州府郡縣에서 관리하는 특수지역으로 필요한 물품을 중앙의 각 기관에서 직접 수취할 수 있는 구조였다.²³⁾ 所內에는 所民을 관리하는 土姓吏인 所吏와 工匠, 役戶들이 있는데 특히 役戶들이 工匠들보다 심한 노동력 수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⁴⁾ 또한 신분적으로도 工匠案을 작성하여 엄격하게 관리되었다.²⁵⁾ 所民은 貢納의 대상으로 租稅와 徭役을 부담하지 않았으나 武臣亂 이후 所制度가 붕괴되고 對蒙抗爭으로 所民의 신분이 점차 양인화되면서 貢納 대상의 특성이 상실되어 徭役의 대상이 되었다.²⁶⁾ 또한 所民에 대한 국가의 차별대우 즉, 가중한 貢物 부담과 신분적 제약은 睿宗 3년(1108)의 기록과²⁷⁾ 利旨銀所의 昇降,²⁸⁾ 明宗 6년(1176) 公州 鳴鶴所의 亡伊·亡所伊의 亂을²⁹⁾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청자 생산의 중심지인 大口所는 행정영역이 靈巖郡에서 長興府로 바뀌며 全盛期 비색청자를 생산하던 시기로 제자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12세기 이후 所民들에 대한 과중한 貢役 부담과 권력층의 所地域 占奪 등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貢物을 전담하던 所制度가 붕괴되고,³⁰⁾ 對蒙抗爭(1231~1273년) 이후 元의 일본 침공준비와 과도한 공물 요구로 貢役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서 所民의 流離를 재촉하였다.³¹⁾ 所民의 流亡은 瓷器所도 예외일 수 없는데, 이는 도자 생산의 확산을 가져왔으나 반대로 소규모 집단에 의한 분업화, 전문화되지 못한 도자생산과도 직결되어 질적 하락을 재촉하였다.³²⁾ 그러나 窯場 확산이 대량생산으로 연결되어 수요층의 폭 넓은 확대를 가져와 도자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충정왕 2년(1350)부터 시작된 왜구의 본격적 침입은 해상 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며 곡창의 중심지인 남해 연안의 전라도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이러한 왜구의 잦은 침략은 남해안에 위치한 大口所에도 큰 타격을 주어 도자 생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며 匠人의 流離를 더욱 재촉하여 대규모 생산 청자의 품질을 더욱 하락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는 왕실용 청자인 '正陵'銘 청자의 질적 하락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³³⁾

對蒙抗爭期 大口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이 지역의 巨刹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던 白蓮社의 靜明國師 天因(1205~1248년)이 高宗 34년(1247) 몽고난을 피해 莞島 法華社로 옮겨가고 있어³⁴⁾ 몽고의 6차 침입시에는 이 지역 도자 생산도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진도와 제주를 중심으로 전개

20) 홍희유, 『조선 중세 수공업사 연구』 지양사, 1989, pp.121~122.

21) 金元龍·李鍾宣, 『舍堂洞 新羅土器窯址 調査略報』, 『文化財』 11, 文化財管理局, 1977.(서울 서당동 도기요지(사적 제247호)에서 출토된 '○○縣器村 何支爲○○銘陶器를 통해 그릇을 전문적으로 만들던 "器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2) ① 李喜寬, 『高麗時代의 瓷器所와 그 展開』, 『史學研究』 77, 韓國史學會, 2005.

② 『高麗史』 84卷, 志 38, 刑法 1, 公式, 職制, 忠烈王 22年(1296) 5月條: 中贊洪子藩條上便民事... 一諸州縣及鄉所部曲人吏無一戶者多矣 外吏依勢避役者悉令歸鄉 丁吏亦令減數歸還

③ '辛丑五月十日造爲大口前戶正徐敬夫 清沙硯堂雙黃河寺銘青磁象嵌紫牡丹文버루(삼성미술관 소장, 보물 제1382호)

23) 田炳武, 『高麗時代 銀流通과 銀所』, 『韓國史研究』 78, 韓國史研究會, 1992, p.98.

24) 徐明禧, 『高麗時代 「鐵所」에 對한 研究』, 『韓國史研究』 69, 韓國史研究會, 1990.

25) ① 『高麗史』 75卷, 志 29, 選舉 3, 銓注, 限職, 文宗 27年(1073) 正月條: 有司奏 按令典 工商家 執技事上 專其業 不得入仕與士齒... 皆工人嫡孫 自慕九流 去其所業 已登朝行 不可復充工匠乞 各限時職 不許遷除

② 『高麗史』 75卷, 志 29, 選舉 3, 銓注, 限職, 辛禩 5年(1380) 正月條: 諫官言 工匠之徒 雖或有勞 勿許授職 其已授者 追奪職牒

26) 李貞熙, 『高麗時代 徭役의 運營과 그 實態』, 『釜大史學』 8, 釜山大學校史學會, 1984, p.54.

27) 『高麗史』 78卷, 志 32, 食貨 1, 田制, 貢賦, 睿宗 3年(1108) 2月條: 判京畿州縣 常貢外徭役頗重 百姓苦之 日漸逃流 主管所司 下問界首官 其貢役多少酌定施行 銅鐵瓷器 紙墨雜所 別貢物色徵求過極 匠人艱苦而逃避 仰所司以 其各所別常貢物多少酌定奏裁

28) ① 崔濬, 『拙叢千百』 2卷, 永州利旨銀所陞爲縣碑

② 『新增東國輿地勝覽』 27卷, 河陽縣 古跡, 利旨銀所條

29) 李貞信, 『高麗時代 公州 鳴鶴所民의 蜂起에 對한 一研究』, 『韓國史研究』 61·62, 韓國史研究會, 1988.

30) 『高麗史』 84卷, 志 38, 刑法 1, 職制, 忠烈王 22年(1296) 5月條: 中贊洪子藩 條上便民事... 一諸州縣及鄉所部曲人吏無一戶者多矣 外吏依勢 避役者悉令歸鄉 丁吏亦令減數歸還

31) 李貞熙, 『高麗時代 徭役의 運營과 그 實態』, 『釜大史學』 8, 釜山大學校史學會, 1984, p.64.

32) 도자는 대체로 대외적 군사적 혼란기에 유입과 확산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고려 청자의 발생은 中國 五代에 이루어졌으며, 고려 후기는 對中·對日 관계의 혼란으로 급속한 확산과 변화를 갖는다. 또한 壬辰倭亂의 경우 日本은 도자생산 기술이 유입되었으며, 조선은 이전에 통제되던 백자가 널리 확산되었다.

33) 韓盛旭, 『高麗後期 「正陵」銘象嵌青磁의 性格』, 『東岳美術史學』 6, 東岳美術史學會, 2005.

34) 林桂一, 『東文選』 83卷, 萬德山白蓮社靜明國師詩集序: ...丁未冬 避胡寇入象王山法華社...

된 三別抄의 對蒙抗爭도 도자 생산에 어려움을 주었다. 즉, 삼별초는 稅收 확보를 위해 元宗 13년(1272) 5월 大口所가 소재한 耽津縣을 공격하는 것을³⁵⁾ 비롯해 전라도 해안을 계속 공격하고 있어³⁶⁾ 남해안 지역은 중앙정부의 통제가 매우 힘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14세기 왜구의 피해는 大口所가 있는 耽津縣을 관할하던 長興府가 禰王 5년(1379) 治所를 鐵冶縣으로³⁷⁾ 옮겼다가 朝鮮 太祖 元年(1392)에 돌아오는 등 이 지역의 피해 역시 극심하였다.³⁸⁾ 이외에도 남해안에 위치한 珍島縣과 壓海縣, 興陽縣 등이 왜구를 피해 치소를 내륙으로 옮긴다.³⁹⁾ 또한 恭愍王 21년(1372) 耽津縣에 대한 왜구의 침입 기록과⁴⁰⁾ 恭愍王 1년(1352) 大口所와 마주보고 있는 白蓮寺가 왜구에 의해 폐허가 되었음을 통해서도 그 피해를 짐작할 수 있다.⁴¹⁾

이 시기는 收取體制가 문란하여 貢物을 징수하도록 諸道에 파견된 관리들이 공적업무를 빙자하여 사복을 채우고⁴²⁾ 鄕吏들과 결탁하여 불균등한 役制를 운영하여 民의 流亡이 더 확대되었다. 한편 이들 부정한 물품과 대규모 농장의 高利貸, 토지에서의 잉여생산물은 상업과 수공업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상업의 발전은 수공업자들의 생산 활동을 촉진시켜 역으로 所와 官工匠이 무너지는 역할을 하였다.⁴³⁾ 또한 鐵器나 鋤器를 자기로 대체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이는 충분한 도자 생산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⁴⁴⁾ 즉, 이 시기는 자기 요장이 확산되어 一道의 貢物이 80~90牛에 이르며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도자를 생산하였는데⁴⁵⁾ 이는 匠人 분포의 다양성을 내포하며, 貢物用 자기를 사사로이 처분할 수 있는 시장성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고려후기가 되면 도자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전 시기에 비해 실용성과 기능이 강조되는 각종 생활용 도자의 비율이 높아진다.⁴⁶⁾ 그리고 貢納 도자의 생산지가 확산된 것은 1350년 이후 倭寇의 침략에 따라 남해안에 위치한 大口所 지역의 청자생산과 貢納에 어려움이 있었음도 하나의 원인이다. 따라서 14세기가 되면 大口所를 비롯한 각지에서 청자를 생산하여 官營과 私營으로 도자 생산체제가 이원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司膳銘과 ‘德泉銘, ‘寶源銘 청자 등 공납용 청자가 大口所 이외의 곳에서 생산되고 있음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⁴⁷⁾ 이 시기 확산된 窯場은 『世宗實錄地理志』에 기록된 324개소의 磁器所 陶器所와 『經國大典』 公典 工匠條의 도자 장인에 기록된 101인의 外工匠 분포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表 1~3).

35) 『高麗史』 27卷, 世家 27, 元宗 13年(1272) 5月 丁丑條: 三別抄 焚掠耽津縣.

36) 李昇漢, 「三別抄 抗爭과 全南」, 『全羅南道誌』 3, 全羅南道, 1993, pp.231~252.

37) 현재 全羅南道 羅州市 鳳凰面 鐵川里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38) ① 『高麗史』 37卷, 世家 37, 忠定王 2年(1350) 夏四月 戊戌條: …倭寇百餘艘 寇順天府 掠南原求禮靈光長興漕船. … 五月庚辰倭船六十六艘 寇順天府 我兵追獲一艘 斬十三級. … 六月辛丑倭寇長興府安壤鄉.

② 『世宗實錄地理志』 長興都護府條: …麗季因倭寇 僑徙內地 本朝太祖元年壬申 築城于遂寧縣之中寧山….

③ 『新增東國輿地勝覽』 37卷, 長興都護府 古跡 皇甫城條: 李穡記…至正庚寅以來 日本島夷竊 發作亂夜 至天明輒 國家輕之 不以爲慮 日增月熾 白晝深入 彌旬月橫行 自得濱海民居於 是鶻然矣 朝廷每遣大將 驅逐稍定 勢窮事迫 移民之令出焉 長興流寓鐵冶縣 己未歲也 合寶城郡 己巳歲也….

④ 『新增東國輿地勝覽』 37卷, 康津縣 古跡 修因山城條: …高麗末 道康 耽津 寶城 長興 靈巖之民 皆避倭寇于此.

39) 『新增東國輿地勝覽』 35·40卷, 羅州牧·靈巖郡·興陽縣條.

40) 『高麗史』 43卷, 世家 43, 恭愍王 21年(1272) 3月 癸亥條: 倭寇 順天 長興 耽津 道康郡.

41) ① 『高麗史』 111卷, 列傳 24, 柳潁條.

② 『新增東國輿地勝覽』 37卷, 康津縣 佛宇 白蓮社條: 尹淮記…世傳 創始於新羅氏重新於高麗圓妙師 傳至十一代無畏師 恒爲法華道場 號東方名刹 繫島夷陸梁 負海輿 區鞠爲丘墟 寺亦隨其盛衰性….

③ 『東史綱目』 14上, 恭愍王 1年(1352) 正月條.

42) 『高麗史』 118卷, 列傳 31, 趙浚條: 司窰每歲 遣人於諸道 監造內用瓷器 一年爲次 憑公營私 侵漁萬端 而一道 賦載至八九十牛 所過騷然 及至京都 進獻者 皆百分之一餘 皆私之弊莫甚焉.

43) 李貞信, 「高麗時代 宗이의 生産實態와 紙所」, 『韓國史學報』 5, 高麗史學會, 1998, pp.255~256.

44) 『高麗史』 85卷, 志 39, 刑法 2, 禁令, 恭讓王 3年(1391) 3月條: 中郎將房士良上疏… 鎔銅本土不產之物也 願自今禁銅鐵器專用盜木以革習俗.

45) 『高麗史』 118卷, 列傳 31, 趙浚條: 司窰每歲 遣人於諸道 監造內用瓷器 一年爲次 憑公營私 侵漁萬端 而一道 賦載至八九十牛 所過騷然 及至京都 進獻者 皆百分之一餘 皆私之弊莫甚焉.

46) 김영진, 『조선도자사연구』 삼국-고려, 사회과학출판사, 1995, pp.88~89.

47) 박경자, 「14世紀 康津 磁器所의 解體와 窯業體制의 二元化」, 『美術史學研究』 238~239, 韓國美術史學會, 2003.

表 1. 『世宗實錄地理志』全國 磁器所・陶器所 現況

地域	磁器所					陶器所					合計
	上品	中品	下品	未詳	小計	上品	中品	下品	未詳	小計	
京畿道	1		13		14		6	12	2	20	34
忠清道		12	11		23		6	31	1	38	61
慶尙道	3	8	26		37		6	28		34	71
全羅道		15	12	4	31		8	23	8	39	70
江原道		2	2		4			10		10	14
黃海道		6	6		12		6	11		17	29
平安道		2	11		13		1	10	1	12	25
咸吉道			5		5			6	9	15	20
合計	4	45	86	4	139		33	131	21	185	324

表 2. 『世宗實錄地理志』全羅南道 地域 磁器所・陶器所 現況

界首官	地名	磁器所				陶器所				合計
		上品	中品	下品	未詳	上品	中品	下品	未詳	
羅州牧	羅州牧		1				1			2
	海珍郡			1				1		2
	靈巖郡		2					2		4
	靈光郡			1				1		2
	康津縣									
	咸平縣			1				5		6
	南平縣									
	務安縣		1				1			2
南原都監府	長城縣			1						1
	求禮縣									
	谷城縣			1				1		2
	光陽縣									
	長興都監府			1			1			2
	潭陽都監府		1				1			2
	順天都監府				1				3	4
長興都監府	武珍郡				1				1	2
	寶城郡									
	樂安郡									
	高興縣			1				1		2
	綾城縣		1				1			2
	昌平縣									
	和順縣							1		1
	同福縣		1							1
玉果縣			1				1		2	
合計	珍原縣									
			7	8	2		5	13	4	39

表 3. 經國大典 工典 工匠條 陶瓷 匠人 現況

京 工 匠				外 工 匠			
官 司	瓮 匠	沙器匠	瓦 匠	瓮 匠	沙器匠	瓦 匠	
本曹(工曹)	13			京畿 6	廣州	4	
奉常寺	10				楊州	1	
尙衣院	10				衿川	1	
司饗院		380			公州	3	
內資寺	8				林川	2	1
內贖寺	8				木川	2	
司樂寺	8			文義	2		
禮賓寺	8			青陽	2		
內需司	7	6		唐津	1		
昭格署	4			陰城	1		
司醴署	4			全義	1		
義盈庫	4			燕岐	1		
掌苑署	8			新昌	1		
司圃署	10			海美	1		
養賢庫	2			堤川	1		
瓦 署			40	鎭川	2		
				保寧	1		
				禮山	2		
				金海	8		
				居昌	1		
				清道	2		
				彦陽	2		
				宜寧	2		
				昌寧	2		
				咸安	2		
				梁山	2		
				軍威	2		
				高靈	6		
				丹城	1		
				昆陽	2		
				全州	2		
				羅州	4		
				靈光	2		
				靈巖	3		
				茂長	2		
				順天	6		
				潭陽	2		
				寶城	2		
				井邑	2		
				興德	2		
				扶安	6		
				高敞	2		
				玉果	2		
				綾城	2		
합계(631)	104	386	40	全羅 39		100	1

고려 초기 자기 생산과 관련된 중앙 관직은 甄官署의 甄官丞이 등장하며⁴⁸⁾ 이후 尙食局과 尙食局의 후신인 司膳署(司饗寺)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⁴⁹⁾ 尙食局과 司膳署는 왕실 소용의 도자를 관리하였으며, 왕실 이외의 관리체제는各司에 별도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⁵⁰⁾ 특히, 司饗寺는 녹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직책으로⁵¹⁾ 收取體制의 문란과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후기에 이르면 이들에게서 비롯된 폐단이 많아졌다.⁵²⁾ 따라서 所는 말단 관리로부터 상부 권력층에 이르기까지 침탈의 대상이 되면서 중앙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해체가 가속화되는데⁵³⁾ 大口所도 지역 세력집단인 耽津 崔氏와 主縣의 세력집단으로 탐진 최씨와 정치적 유대 관계에 있던 장흥의 定安 任氏 등에 의해 움직였을 가능성이 많다.⁵⁴⁾ 장흥지역에서는 이를 입증하듯 매우 이례적인 靑磁象嵌透刻龜甲文箱子를 비롯한 고품격 청자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어 그 위상을 느낄 수 있다.⁵⁵⁾ 특히 大口所가 있던 耽津縣은 監務가 파견되지 않은 지역으로 조선 태종 17년(1417)에서야 이웃 道康縣과 합해지면서 治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⁵⁶⁾ 따라서 감무가 없었던 耽津 지역은 국가가 직접 통제하기 보다는 지방 세력이 그 산업적 특권을 유지하면서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즉, 고려시대 감무의 파견은 왕권 강화와 재정 확보 등을 위해 실시되었는데⁵⁷⁾ 탐진현처럼 감무가 파견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세력 또는 중앙세력과 결탁된 지방세력의 힘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耽津縣은 고려 초 전라도의 강력한 지방세력 가운데 하나였던 靈巖의 속현이었으나 仁宗 2년(1124) 恭睿太后 任氏의 고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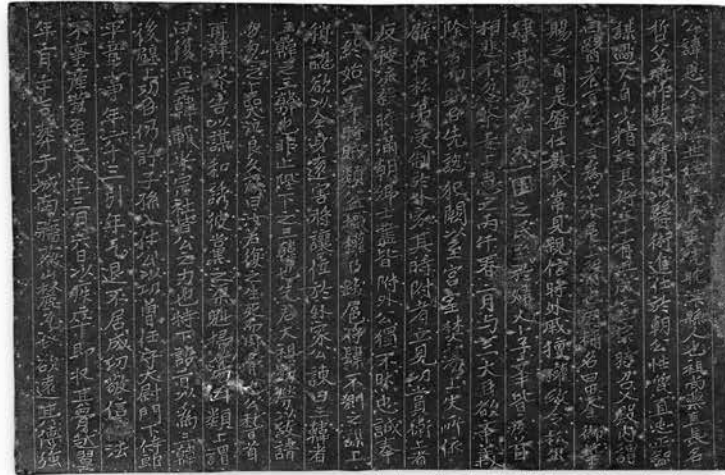


사진 1. 崔思全 墓誌銘(국립광주박물관 소장)

이라 하여 定安縣에서 승격된 長興府의 속현으로 행정체계가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공예태후의 納妃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崔思全(1067~1139년, 탐진 최씨의 시조, 사진 1)이 고려시대 강력한 세력권을 형성하였던 영암 세력으로부터 탈피하여 탐진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한 시기로 볼 수 있다.⁵⁸⁾ 한편 최근 泰安 竹島(대섬) 해저 유적에서 출토된 목간에서 ‘崔大卿’과 ‘安永’ 등의 목간이 출토되었는데⁵⁹⁾ 이들은 모두 탐진의 토착세력이다.⁶⁰⁾ 따라서 탐진현에

48) ① 『高麗史』 94卷, 列傳 7, 金殷傅條: 金殷傅 水州安山縣人 性勤儉 成宗朝(981~997年) 授甄官丞 ….
 ② 徐聖鎮, 『高麗前期 手工業 研究』, 서울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1, p.22.
 ③ 李鍾玟, 『韓國의 初期靑磁 研究』, 弘益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2, p.37.
 49) 宋聖安, 『高麗前期 瓷器手工業-瓷器所管 中心으로-』, 『慶大史論』 8, 慶南大學校史學會, 1995, pp.54~58.
 50) 고려에 설치되었던 大窰職 또는 諸窰職 『高麗史』 77卷, 志 31, 百官 2, 諸司都監各色條: 諸窰直[丙科權務] 『高麗史』 80卷, 志 34, 食貨 3, 錄條: 權務官錄條: 權務官錄 文宗三十年定…八石十斗…諸窰直…仁宗朝更定: 八石十斗 大窰直…을 도자 관련官司로 이해하였으나 『燃藜室記述』(李肯翊 『燃藜室記述』, 7卷, 官職典故 瓦署條: 신라에서 ‘瓦器與陶登局’이라 하였다. 고려에서는 ‘諸窰直’이라 하였다. 太祖朝諱는 東西窰直을 설치하였다가 후에 고쳐서 ‘瓦署’라 하고, 기와, 벽돌 만드는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등의 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51) 『高麗史』 118卷, 列傳 31, 趙浚條: …司饗古之尙食而 今之司膳也 今則司設食其祿而廢其職 司幕勤其事而不食祿 司饗以下之職亦然(司饗寺는 司膳署의 별칭으로 이해된다)
 52) 『高麗史節要』 34卷, 恭讓王 元年(333) 12月 壬寅條: 司饗每年 遣人於各道 監造內用瓷器 一年爲次 憑公器私 侵漁萬端 而一道 賦載至八九十牛 所費雖然 及至京都 進獻者 皆百分之一餘 皆私之弊莫甚焉.
 53) 李貞信, 『高麗時代 종이의 生産實態와 紙所』, 『韓國史學報』 5, 高麗史學會, 1998, p.257.
 54) 李海濤, 『康津地域 高麗靑磁의 發達 背景』, 『康津의 靑磁窯址』, 海剛陶磁美術館, 1992, p.368.
 55) ① 木浦大學校博物館, 『장흥덤 發掘 遺蹟과 遺物』, 2007.
 ② 木浦大學校博物館, 『長興 天冠寺』, 2009.
 ③ 韓盛旭, 『長興 茅山里出土 靑磁象嵌透刻龜甲文箱子 一括遺物』, 『長興文化』 17, 長興文化院, 1995.
 56) 『新增東國輿地勝覽』 37卷, 康津縣 建置沿革條.
 57) 元昌愛, 『高麗 中·後期 監務增置와 地方 制度의 變遷』,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碩士學位論文, 1983.
 58) 태안 죽도 해저유적 목간에서 확인되는 崔大卿은 耽津 崔氏로 추정되며 이 시기는 耽津 崔氏의 始祖인 崔思全이 李資謙(?~1126년)의 제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여 중앙 정계에서 탐진 최씨의 영향력이 확대되던 시기이다. 특히 일부의 주장처럼 목간의 干支가 壬子年(1132)이라면 崔思全과 직접 연결되는 시기로 매우 주목된다.
 59) 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 대섬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2009.
 ② 손환일, 『高麗 木簡의 書體-忠南 泰安 海저 출토 목간을 중심으로-』, 『한국 사상과 문화』 44, 2008, pp.401~426.
 ③ 임경희·최연식, 『태안 청자 운반선 출토 고려 목간의 현황과 내용』, 『목간과 문자』, 창간호, 2008, p.335.
 60) ① 『新增東國輿地勝覽』 37卷, 康津縣 姓氏條: 耽津 崔, 曹, 俞, 安, 鄭, 河, 康, 朴 모두 來姓이다. 大口 徐, 七陽 白.
 ② 『世宗實錄地理志』 康津縣條: 耽津姓六, 崔·曹·俞·安·鄭·河; 來接姓二, 康(幸州來)·朴(豐岩來) …, 大口所續姓一, 徐·七良所續姓一, 白.

설치되었던 대구소와 칠량소는 탐진현의 토착세력에 의해 통제되고 발전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⁶¹⁾

대몽항쟁 이후 점차 쇠퇴하는 청자의 질적 저하를 막고 청자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등 貢賦收取體制의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재차 大口所로 기술력과 인력을 집결하며 干支銘과 官司銘 등의 銘文 청자를 생산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구의 잦은 침입과 중앙통제의 해이 등으로 청자는 더욱 쇠퇴하는데 이는 왕실용인 '正陵'銘 청자의 질적 하락에서도 쉽게 엿볼 수 있다. 그리고 '正陵'銘 청자와 '尙藥局'銘 청자, 陰刻'○'文 청자 등의 예로 보아 공납용 청자는 대구소의 특정 공방에서만 생산되지 않고 다양한 공방에서 제작하여 납부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⁶²⁾ 또한 保寧 元山島 해저유적 출토품과 이들을 생산하였던 가마 출토품을 보면 한 가마에서 최상품과 이보다 질이 떨어지는 청자를 함께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⁶³⁾ 이는 조선시대 分院처럼 공납품과 商品을 함께 생산하여 유통하였으며 상품용 판매를 통해 요장을 자립 운영하였음을 알려준다.

한편 고려 후기 이후 쇠퇴를 거듭한 강진지역은 조선시대가 되면 도자 생산이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 전기의 기록인 『世宗實錄地理志』와 『經國大典』의 문헌에 자기생산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아 점차 퇴보하던 강진지역의 도자생산은 조선 건국 이후 완전히 쇠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의 기록에서도 강진지역은 土產과 物產, 方物條에 도자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그 역할이 민수용으로 매우 미미하였으며 생산 기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라도 해안지역이 유사한 양상으로 조선시대에는 내륙의 靈巖과 羅州 등에 많은 沙器匠이 배치되고 있다. 즉 대몽항쟁과 왜구의 침입으로 大口所 등의 瓷器所가 해체되어 도자생산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는데 전남지역에서는 이 역할을 내륙지역에서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⁶⁴⁾

3. 강진 청자의 요장 현황⁶⁵⁾

강진지역은 고려청자를 대표하는 가장 독보적 생산지로 窯場은 大口面(사적 제68호) 일대와 七良面 三興里(기념물 제81호) 일대에 분포한다. 이중 핵심은 大口面 일대로 특히 龍門川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이곳은 1914년 처음 알려지면서부터 지금까지 한국 도자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제작된 청자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들로 한국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大口面 가마터는 크게 龍雲里와 桂栗里, 沙堂里, 水洞里 등 4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가마터는 龍門川 상류인 용운리에서 발생하여 용문천을 따라 해안의 사당리까지 매우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확인된 가마터는 200여기

61) 특히 泰安 竹島 해저유적은 耽津縣이 長興都護府로 행정체계가 변환된 이후의 출항선으로 耽津 崔氏의 세력이 강했던 시기이다.

62) ① 韓盛旭, 「高麗後期 正陵'銘象嵌青瓷의 性格」, 『東岳美術史學』 6, 東岳美術史學會, 2005.

② 韓盛旭, 「高麗 陰刻'○'文과'○'文青瓷의 研究」, 『古文化』 70, 韓國大學博物館協會, 2007.

③ 韓盛旭, 「高麗青瓷陰刻雲龍文'尙藥局'銘盒についての一考察」, 『有光教一先生白壽記念論叢』, 高麗美術館, 2006.

63) 國立海洋遺物展示館, 「保寧 元山島 水中發掘調査 報告書」, 2007.

64) 韓盛旭, 「高麗後期 青瓷의 器形變遷」, 『美術史學研究』 232, 韓國美術史學會, 2001.

65) ① 姜景仁, 「史蹟 69號 高麗青磁陶窯址에서 出土된 青磁破片에 關하여」, 全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7.

② 康津文化院, 「康津의 歷史와 文化」, 1989.

③ 康津文化院, 「高麗青瓷 文化와 康津」, 1990.

④ 康津青磁資料博物館, 「高麗青磁 康津으로의 歸鄉-銘文·符號 特別展-」, 2000.

⑤ 國立光州博物館, 「康津 三興里窯址」 II, 2004.

⑥ 國立光州博物館, 「千年的 歲月, 그 빛 날다-康津 三興里 가마터 出土 遺物展-」, 2006.

⑦ 國立中央博物館, 「康津 龍雲里 青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 圖版編·本文編, 1996·1997.

⑧ 東邦文化財研究院, 「康津 大口面 陶窯址 綜合整備計劃 學術研究用 役 地區 內 文化財 地表調査 報告書」, 康津郡, 2011.

⑨ 朴敬子, 「14世紀 康津 磁器所의 解體와 窯業 體制의 二元化」, 『美術史學研究』 238·239, 韓國美術史學會, 2003.

⑩ 尹龍二, 「康津郡의 陶窯址」, 『康津郡의 文化遺蹟』, 木浦大學校博物館, 1989.

⑪ 朝鮮官窯博物館, 「康津 龍雲里 티마파크 造成敷地 內 文化財 地表調査 報告書」, 2008.

⑫ 崔淳雨, 「康津 沙堂里 窯址 出土 青磁瓦」, 『美術資料』 9, 國立中央博物館, 1964.

⑬ 崔淳雨, 「康津 沙堂里 出土 青磁象嵌 發願文片」, 『考古美術』 63·64, 韓國美術史學會, 1965.

⑭ 崔淳雨, 「康津 沙堂里窯址 出土 高麗青磁磚」, 『考古美術』 89, 韓國美術史學會, 1967.

⑮ 海剛陶磁美術館, 「康津의 青磁窯址」, 1992.

⑯ 湖南文化財研究院, 「康津 三興里窯址」, 2004.

로 한반도 청자가마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청자 발생기부터 14세기 쇠퇴 소멸기까지 고려시대 전 기간 동안에 사용되었던 가마터가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청자발생과 세련기, 절정기, 확산기의 전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다종다양한 모든 종류의 청자가 확인된다. 그리고 이곳은 국가의 통제를 받았던 瓷器所 가운데 大口所가 설치되어 있어⁶⁶⁾ 干支銘과 ‘尙藥局’, ‘準備色’, ‘正陵’ 등 貢納과 관련된 銘文이나 官司銘 등의 銘文 청자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그림 1·2, 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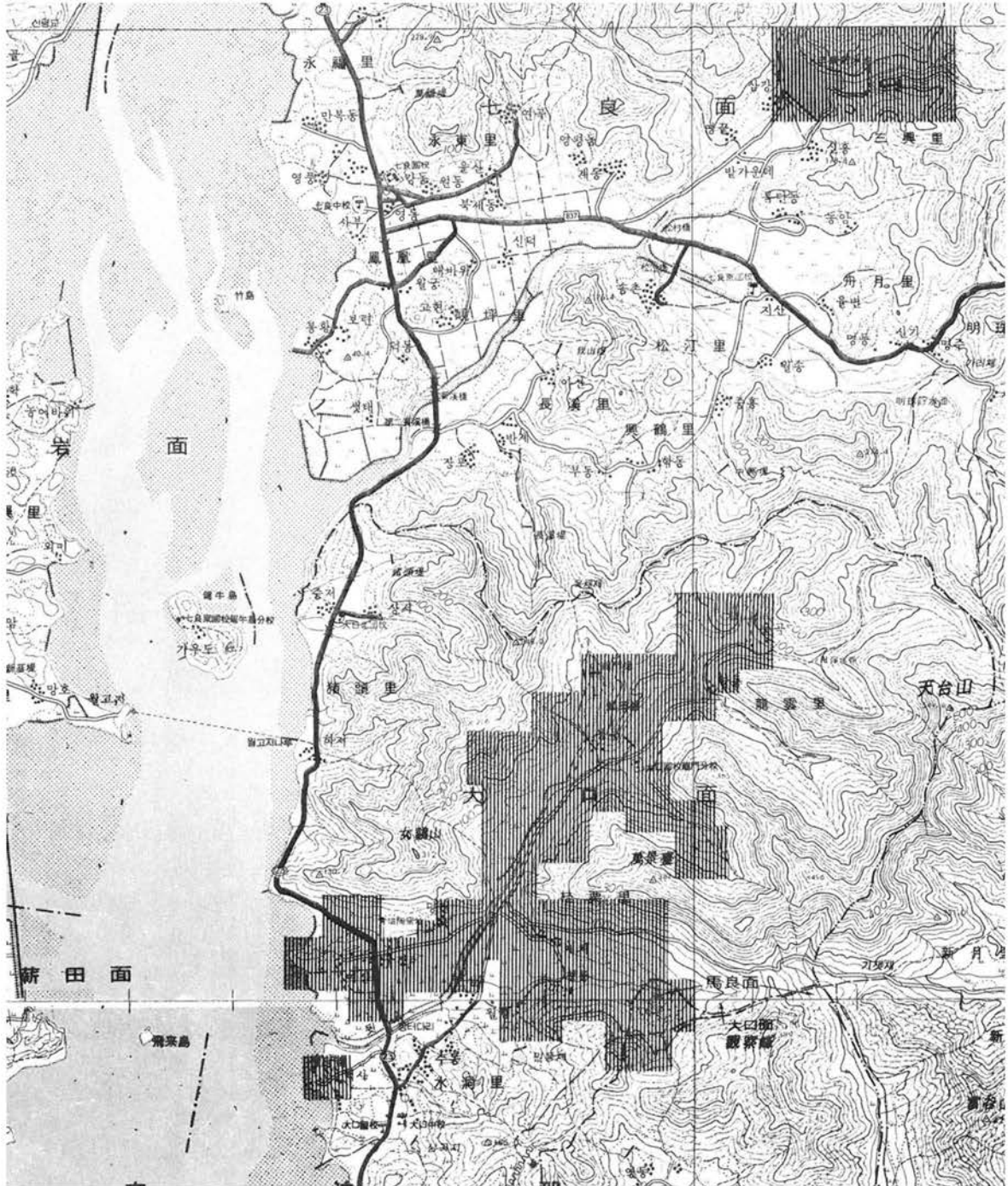


그림 1. 강진 청자 가마터 위치도

66) 『世宗實錄』地理志, 康津縣條: 所八 山計 山深 大谷 大口 七良 種玉 舊溪 富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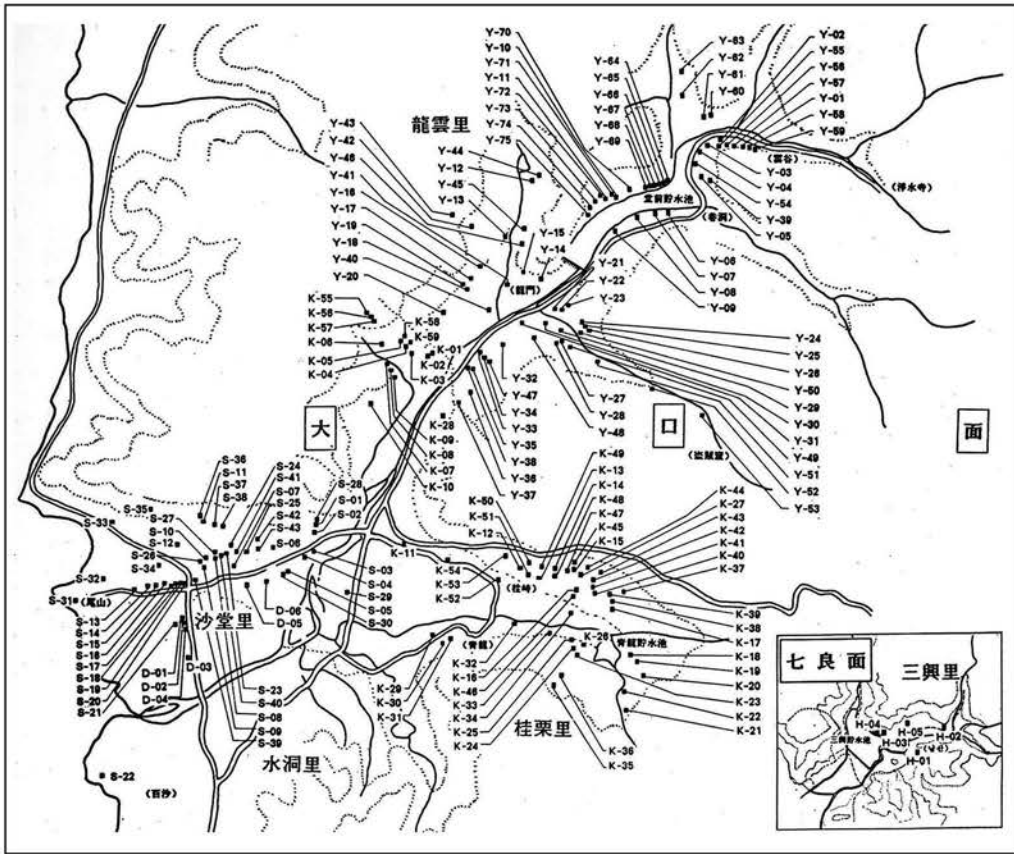


그림 2 강진 청자 가마터 분포도 (용운리 Y, 계율리 K, 사당리 S 수동리 D, 삼흥리 H)



사진 2 康津大口面 가마터 전경

龍雲리는 용문천 상류지역으로 雲谷, 巷洞, 龍門 마을로 구성되었으며 75기의 가마터가 있다. 이 지역은 산세가 험하고 가마터가 산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보존 상태가 아주 좋다. 이곳 가마는 대부분 청자 발생기 가마를 비롯한 초기 요지들이 분포하고 있어 청자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선해무리굽 완과 변형 해무리굽 완까지 초기청자의 특징과 발전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越州窯와 汝窯 등과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기형과 문양 등을 볼 수 있다. 기종은 일상 생활용기가 대부분으로 회백색 耐火土 비집을 받쳐 포개어 燔造하였으나 완은 1점씩 단독 변조하였다. 문양은 蓮瓣文과 菊唐草文이 있으며 한국식 해무리굽 완이 출토되는 가마터에서는 鐵畫와 堆花技法이 약간씩 나타난다. 그리고 圓筒形 匣鉢과 갑발 받침이 많이 출토되는데, 갑발 측면에는 다양한 음각 기호가 있어 주목된다(사진 3).

용문천 중류지역인 桂栗리는 桂峙와 靑龍, 卵山, 栗村 마을로 구성되었으며 59기의 가마터가 있다. 이곳은 초기 가마터도 일부 있으나 대체로 11세기 후반부터 13세기 전반의 것이다. 가마터의 일부가 계곡 동측 계곡에 저수지를 축조하면서 수몰되거나 논으로 변한 곳이 있으나 산사면에 위치하여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다. 이 지역은 용문리처럼 초기청자 가마터도 있으나 한국식 해무리굽 완의 다음 시기인 평저접시가 출토되는 가마가 중심을 이룬다. 문양은 음·양각과 堆花技法 등이 확인되며 기벽이 얇고 유약도 얇게 시유되어 있다. 이외에 13~14세기 상감청자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가마를 이동하면서 청자를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지역은 11세기 세련기 청자와 14세기 쇠퇴 확산기 청자를 함께 볼 수 있어 청자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곳이다(사진 4).



사진 3. 康津 龍雲里 가마터 전경



사진 4. 康津 桂栗里 가마터 전경

桂峙 계곡을 지나 용문천 하류의 비교적 넓은 들을 지나면 沙堂里가 위치하는데 이곳에서 고려청자는 절정기를 맞는다. 사당리는 고려시대에 가장 양질의 청자를 제작하였던 곳으로 국립박물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청자 기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沙堂里는 堂前과 尾山, 白沙 마을로 구성되었으며 43기의 가마터가 있다. 그러나 용문천의 침식과 비교적 넓은 들판에 위치하고 있어 전담으로 개간되어 훼손된 곳이 많다. 사당리는 강진청자의 핵심지역으로 1914년 조사 이래 가장 관심이 높았던 곳이다. 이 가운데 당전마을 가마터는 전성기 청자들로 黼色의 완성과 상감청자가 세련 발달되던 12세기 전반에서 13세기에 생산된 절정기 청자가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한국식 해무리굽 완이 출토되는 가마터도 일부 있으며 14세기 가마터가 다수 확인된다. 당전마을 가마는 해안에 위치한 이웃 미산마을로 연결되어 청자가 쇠퇴 확산되는 14세기까지 운영된다. 미산마을 가마는 12세기에서 13세기에 이어 14세기 쇠퇴 확산기 청자를 집중적으로 제작한 곳이다. 후기청자는 시문기법과 기종이 단순해지며, 상감청자가 보편화됨에 따라 문양이 圖式化 간략화되며 실용성이 강한 청자들이 제작된다. 그리고 1964년부터 8차례 실시한 당전마을 117번지 일대에 대한 국립박물관 발굴조사에서 청자 기와가 다수 발견되어 『高麗史』에 養怡亭과 觀瀾亭을 청자 기와로 덮었다는 기록과⁶⁷⁾ 그 제작지가 사당리로 확인되어 더욱 유명해졌다. 발굴 조사된 사당리 41호 가마터는 자연 경사면

67) 『高麗史』第18卷, 世家 第18, 毅宗 丁丑 11年(1157) 4月 丙申日.



사진 5. 康津 沙堂里 가마터 전경



사진 6. 康津 水洞里 가마터 전경



사진 7. 康津 三興里 가마터 전경

을 이용한 반지하식 登窯로 천정은 궁륭형이다. 가마의 특징은 火口 앞 측면에 작은 구덩이를 파놓은 것이다(사진 5).

水洞里는 사당리 남측 들판에 있는 마을로 6기의 가마터가 분포한다. 가마터는 전답으로 개간되면서 많이 훼손되었다. 이곳은 사당리 미산마을과 마찬가지로 쇠퇴 확산기인 13세기부터 14세기대의 후기 상감청자를 주로 생산하였다(사진 6).

七良面 三興里 요장은 삼흥저수지 주변과 저수지 동남쪽 南山마을 주위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大口面 요장과는 天台山을 경계로 바로 인접하여 있다. 칠량면 역시 국

가의 통제를 받았던 瓷器所 가운데 七良所가 있었던 곳으로⁶⁸⁾ 고려청자 요장과 조선 분청자 요장등이 함께 확인되고 있다(사진 7).

4. 강진 청자의 유통 구조

많은 수량을 한꺼번에 운반해야 하는 청자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 대부분 海路를 통해 유통되었다. 고려는 山岳地形이 많고 여름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자연 지리적 특성 때문에 稅穀과 같이 부피가 크고 무거운 화물의 운반은 주로 바닷길을 이용하여 漕運路가 발달되었다.

조운로는 국가의 公的인 운송수단으로 貢物을 현물 중심으로받았던 고려에서는 매우 중요한 운반 수단이었다. 따라서 고려시대 도자도 편리한 조운로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이송하였다. 특히 서해안에서 발견된 200여개소의 해저매장문화재(도자기) 발견지점이 모두 세곡 운반에 이용되었던 조운로와 거의 일치하고 있어 매우 특징적이다.⁶⁹⁾ 즉, 서해안을 따라 연결된 沿岸航路를 중심으로 세곡과 도자 등의 공물이 함께 운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자 운반에 이용된 漕運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三國史記』에 선박을 이용하였음을 간략하게 살펴 볼 수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⁷⁰⁾ 漕運의 의미는 선박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것을 이르는데, 고려시대부터는 하천과 해안에 설치

68) 『世宗實錄』 地理志, 康津縣條: 所八 山計 山深 大谷 大口 七良 種玉 舊溪 富元.

69) 朴禮理 「群山 飛雁島 海底出土 高麗靑瓷 研究」, 木浦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6.

70) 漕運의 의미는 선박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것을 이르는데, 고려시대부터는 하천과 해안에 설치한 漕運倉에 보관한 稅穀을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명칭으로 漕轉·轉漕·運漕·漕輓 등이 있다.

한 漕運倉에 보관한 稅穀을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명칭으로 漕轉·轉漕·運漕·漕輓 등이 있다. 고려시대의 조운은 漕倉을 거점으로 국가재정의 근원을 담당하였으며, 成宗代(981~997年)에서 顯宗代(1009~1031年)에 이르는 시기에 지방제도와 함께 완비되었다. 고려 초에는 穀倉地帶인 三南地方의 해안 또는 하천 연안에 12개소의 조창을 설치하였으며,⁷¹⁾ 이후 顯宗代에 13개소의 조창을 설치하면서 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⁷²⁾ 13개소의 조창은 慶尙道에 2곳, 全羅道에 6곳, 楊廣道에 4곳, 西海道에 1곳이 설치되었다(표 4). 즉, 開京 이북인 西海道 長湍에 1개소, 開京 이남에 1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모두 水運이 가능한 하천이나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였다. 이들 조창이 설치된 지역은 收租와 開京으로의 운송이 편리한 지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의 조운제도는 開京을 구심점으로 전국의 稅穀 집결소인 13조창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표 4. 高麗時代 漕倉 現況.

漕倉名	位置(現位置)	移動路
安瀾倉	西海道 長湍(黃海道 長湍)	海岸으로 海路 이용
興元倉	楊廣道 原州(江原道 原州)	內陸으로 漢江 이용
德興倉	楊廣道 忠州(忠清北道 忠州)	"
永豐倉	楊廣道 富城(忠清南道 瑞山)	海岸으로 海路 이용
河陽倉	楊廣道 牙州(忠清南道 牙山)	"
鎭城倉	全羅道 臨岐(全羅北道 群山)	"
安興倉	全羅道 保安(全羅北道 扶安)	"
芙蓉倉	全羅道 靈光(全羅南道 靈光)	"
海陵倉	全羅道 羅州(全羅南道 羅州)	"
長興倉	全羅道 靈巖(全羅南道 長興)	"
海龍倉	全羅道 昇州(全羅南道 順天)	"
通陽倉	慶尙道 泗川(慶尙南道 泗川)	"
石頭倉	慶尙道 合浦(慶尙南道 昌原)	"
計	7道 13倉	

71) 『高麗史』 79卷, 志 33, 食貨 2, 漕運條: 國初 南道水郡 置十二倉 忠州曰德興 原州曰興元 牙州曰河陽 富城曰永豐 保安曰安興 臨岐曰鎭城 羅州曰海陵 靈光曰芙蓉 靈巖曰長興 昇州曰海龍 泗州曰通陽 合浦曰石頭 又於西海道 長湍縣置安瀾倉.

72) 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 뱃길로 세금을 걷다』, 2009.

② 韓國歷史硏究會, 『高麗의 皇都 開京』, 創作과 批評社, 2002, pp.159~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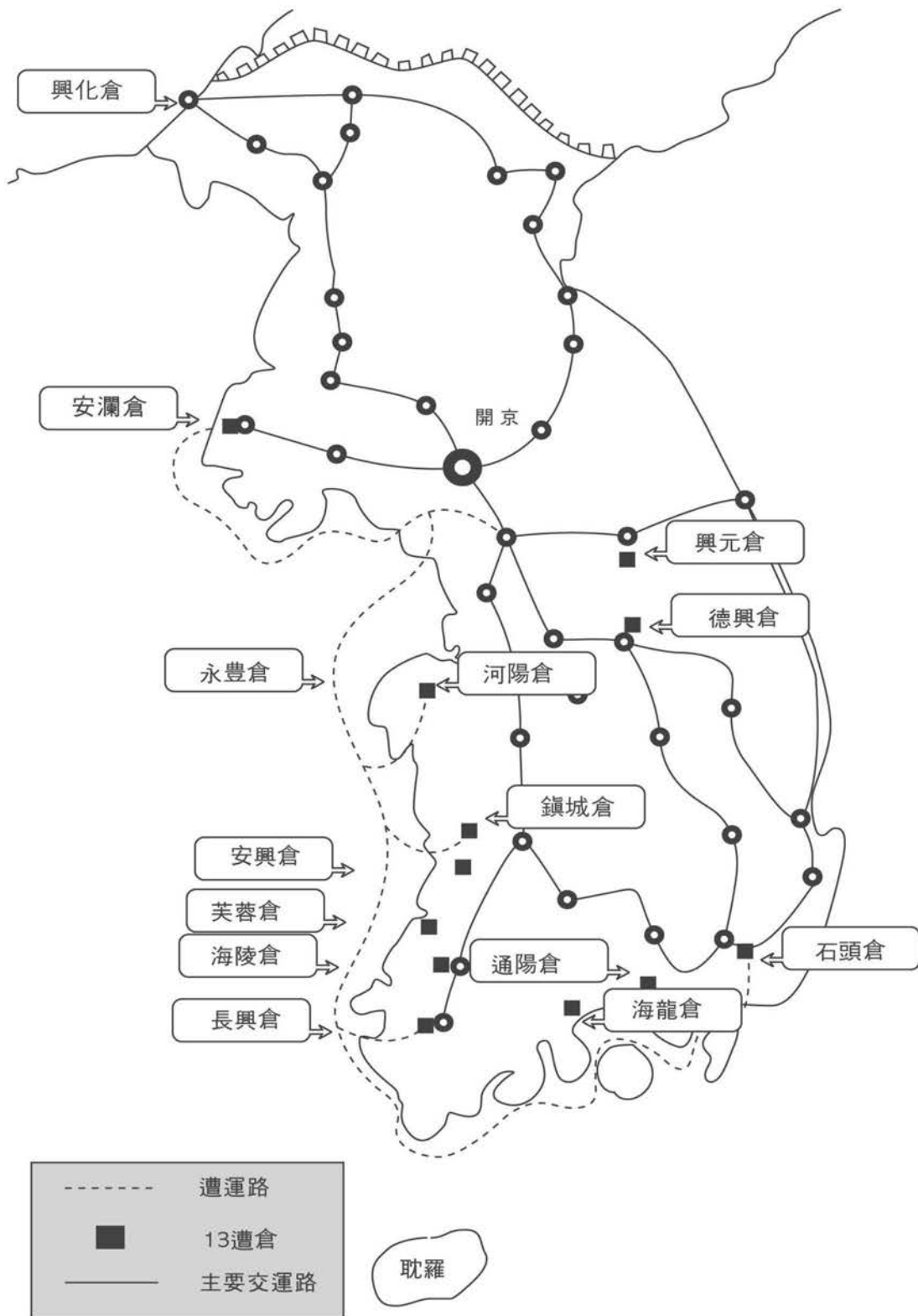


그림 3. 高麗時代 漕運路와 13漕倉의 位置

조창은 단순한 조운 기능뿐만 아니라 所管地域의 稅穀 수납과 조운을 책임지는 행정구역의 역할을 하였다. 고려 초 租稅의 수납과 보관, 운반은 지방호족들이 담당하였다. 또한 조창에는 判官을 배치하였으며, 중앙에서 監倉使를 파견하여 횡령 등 부정행위를 감독·조사하였다. 판관은 가을에 稅米를 수납하여 보관하였다가 다음해 2월부터 해로를 이용하여 開京으로 운송하였다. 開京에서 근거리 지역은 4월까지, 원거리 지역은 5월경까지 운송을 마무리하여야 했다. 운송 기한을 초과하거나, 기한을 넘겨 출항하여 운반선이 난파되었을 경우는 인솔관인 판관과 지방관인 鄉吏와 뱃사공인 水手가 공동 책임을 지고 변상하여야 했다. 그러나 기한 내에 출발하였으나 바람 등 운항조건이 순조롭지 못해 침몰한 경우는 책임을 면제하였다.⁷³⁾ 靖宗代(1035~1046年)에 開京까지 운반하는 漕運船의 비용을 제정하였는데, 石頭·通陽·河陽·永豐·鎭城·芙蓉·長興·海龍·海陵·安興은 각각 船舶 6隻인데 모두 哨馬船으로⁷⁴⁾ 1隻에 1千石을 선적하도록 하였다. 德興倉은 20隻, 興元倉은 21隻인데 모두 平底船으로⁷⁵⁾ 1隻에 2百石을 船積하도록 하였다.⁷⁶⁾ 한편 최근 조사된 태안 죽도 출토 목간에서도 운반을 책임졌던 선장의 서명으로 판단되는 명문이 ‘鄭’으로 추정되고 있어 항리들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즉, 鄭氏는 탐진현의 토착 성씨 가운데 하나로 이들이 청자 운반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⁷⁷⁾

高麗時代 13개소의 漕倉은 그 위치는 파악되었으나 所管地域에 대한 정확한 구역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13개창 가운데 興元倉과 德興倉을 제외한 11개 지역이 海路를 이용하여 漕運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漕倉 설치지역도 三南地方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穀倉地帶를 중심으로 稅穀을 운반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漕運倉의 위치를 중심으로 강진에서 생산된 청자의 유통구조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해안을 끼고 있어 조운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강진 생산의 청자는 현재 해저유적에서 확인되는 선박의 크기로 보아 長興倉의 책임 하에 인근의 尾山浦나 馬良港에서 선적되어(사진 8, 9)⁷⁸⁾ 靈巖→海南→務安→扶安→長津浦→元山鎮(洪城)→安興鎮(泰安)→昇天浦(江華)→碧瀾渡(開京) 등의 서해 연안항로를 따라 수도인 開京에 도착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항로는 선사시대부터 중국·일본과의 公的關係는 물론 私貿易에도 이용되었던 항로이다. 한편 강진 청자는 전국의 大刹과 官



사진 8. 康津 沙堂里와 尾山浦 전경



사진 9. 康津 馬良港 전경

73) 『高麗史』 79卷, 志 33, 食貨 2, 漕運條: 倉置判官 州郡租稅 各以附近輸諸倉 翌年二月漕運 近地限四月 遠地限五月 畢輸京倉. 限內發缸 因風失利 梢工三人以上 水手雜人五人以上并米穀漂沒者 勿徵 限外發缸 梢工水手三分之一 散沒者 其官色典梢工水手等 平均徵納

74) 哨馬船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漕運船이다.

75) 船底가 편평한 고려시대의 대표적 선박으로 현재까지 해저유적에서 확인되는 고려 선박은 모두 이 유형이다.

76) 『高麗史』 79卷, 志 33, 食貨 2, 漕運條: 靖宗朝 定十二倉漕船之數 石頭通陽河陽永豐鎭城芙蓉長興海龍海陵安興 各船六艘 並哨馬船 一船載一千石 德興二十艘 興元二十一艘 並平底船 一船載二百石.

77) ① 『新增東國輿地勝覽』 37卷, 康津縣 姓氏條: 耽津 崔, 曹, 俞, 鄭, 河, 康, 朴 모두 來姓이다. 大口 徐, 七陽 白.

② 『世宗實錄地理志』 康津縣條: 耽津姓六, 崔·曹·俞·安·鄭·河; 來接姓二, 康[幸州來]·朴[豐岩來]…; 大口所續姓一, 徐, 七良所續姓一, 白.

78) 1970년대까지 운영되었던 인근의 강진군 칠랑면 봉황리 응기의 경우 마을 앞 포구에서 응기를 선적하여 제주의 울릉도까지 운항하여 판매하고 있어 고려청자의 운반도 가까운 미산이나 미랑의 포구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韓盛旭, 『康津 鳳凰里 甕器工房』, 『全南文化財』 11, 全羅南道, 2004.)

術 등에서도 많이 확인되고 있어 開京으로의 유통 과정뿐만 아니라 지방으로의 유통 구조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강진을 출발한 청자 운반선은 대부분 개경이 목적지였지만 일부는 조정의 통제하에 지방의 거점 포구로 운송되어 지역 최상류층의 수요에 부응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부 고품격의 최상품은 일단 개경의 京倉으로 운반된 후 賜與의 형식으로 다시 지방에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있다.⁷⁹⁾

당시의 항해법은 대부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해안과 가까운 항로를 이용하는 원시적인 肉眼近接航路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漕運船은 이동 중에 해난사고가 자주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仁宗代(1122~1146년)와⁸⁰⁾ 恭讓王代(1389~1392년)에⁸¹⁾ 沿海航路 중 가장 위험한 충청도 瑞山 安興梁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泰安半島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運河 굴착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⁸²⁾

1270년(元宗 11) 三別抄가 봉기하여 珍島를 근거지로 활약하자 고려의 조운체계는 한동안 마비되어 극심한 재정난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고려 말인 14세기 후반부터 조선 초에는 倭寇의 猖獗⁸³⁾ 漕運船이 약탈되고 해안지방은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無人之境이 될 정도였다.⁸⁴⁾ 처음에는 조운의 중심지로 일본과 가까운 慶尙道와 全羅道 일대의⁸⁵⁾ 漕倉과 漕運船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禔王代(1374~1378년)에 이르면 開京 인근과 江華 일대까지 그 피해가 심했다. 왜구의 약탈과 그에 따른 조운 불통으로⁸⁶⁾ 국내문제가 심각해지자 고려 조정에서는 왜구 금압을 위해 對日交涉을 시도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자 해로에 의한 조운을 중단하고 陸運을 실시한다.⁸⁷⁾ 따라서 慶尙道와 全羅道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해상운송이 위축되었다. 稅穀을 비롯한 대부분의 화물이 倭寇가 접근할 수 없는 洛東江과 鷄立嶺(開慶 鳥嶺과 竹嶺 사이의 고개), 漢江, 東江浦(寧越)를 연결하는 교통로로 대체되었다. 恭愍王 21년(1372)부터는 倭寇의 노략행위가 최극성기에 접어들고 있어 1389년 趙浚 上疏文 등에서 보는 것처럼 漕運이 陸路로 운송되고 있다.⁸⁸⁾ 그러나 務安 道里浦 해저유적의 예를 보듯이 대량운반과 시간단축의 이점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해로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⁸⁹⁾ 한편 고려후기는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정부의 지방통치가 이루어져 많은 양의 청자가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恭讓王 元年(1389) 趙浚의 상소문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⁹⁰⁾ 도자 상업의 발달은 이외에도 李齊賢과⁹¹⁾ 銀川翁主 林氏의⁹²⁾ 기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같은 시기 양 질청자에 비해 청자의 질이 떨어지며 공적인 내용보다 사적인 내용을 적고 있는 목간이 출토된 泰安 竹島(대섬) 해저유적

79) 張南原, 『漕運과 陶器生産, 그리고 流通』, 『美術史研究』 22, 美術史研究會, 2008, p.189.

80) 『高麗史』 16卷, 世家 16, 仁宗 12年(1134) 秋7月條: 是月遣內侍鄭燮明 擊河于洪州蘇大縣 以安興亭下 海道爲衆流所激 又有岩石之險 往往覆舟 或有獻議 由蘇大縣境 擊河道之 則船行捷利 遣燮明發 勞郡卒數千人 擊之竟未就.

81) 『高麗史』 116卷, 列傳 29, 王康條: 康獻議曰 楊廣道 泰安瑞州之境 炭浦從南流 至興仁橋百八十餘里 倉浦自北流至 葦堤城下七十里 二浦開古有浚渠處 深擊者十餘里 其未擊者不過七里 若畢擊使 海水流通 則每歲漕運 不涉安興梁四百餘里之險 請始役於七月終於八月. 於是發丁夫浚之. 石在水底 且海漸往來隨 擊運塞未易 施功事竟無成. 康嘗舉前牧使呂稱 爲副使將代己任 人以劉晏之徒目之.

82) 孫允鉉, 『韓國海運史』, 曉星出版社, 1997, p.85.

83) 『高麗史』 133卷, 列傳 46, 辛禔 3年(1377) 6月 乙卯條: 遣判典客寺事 安吉祥于日本 請禁賊書曰 … 歲自庚寅(1350年)海盜始發擾 我島民各有損傷甚可憐愍….

84) 『高麗史』 83卷, 志 37, 兵 3, 船軍, 恭愍王 22年(1374) 5月條: … 初六道都巡察使崔瑩 造船二千欲以 六道軍騎船捕倭 百姓畏懼破家 逃役者十常五六及(中郎將鄭)准提等 建議事遂寢.

85) 『高麗史』 27卷, 世家 27, 元宗 12年(1271) 3月 癸巳條: …慶尙全羅貢賦 皆未得陸輸 必以水運….

86) ① 『高麗史』 39卷, 世家 39, 恭愍王 5年(1356) 6月 乙亥條: … 漕運不通 凡所轉輸 皆從陸路 宜令有司 量地遠近 營立院館 ….

② 『高麗史』 43卷, 世家 43, 恭愍王 21年(1272) 2月 庚辰條: 諫官以 全羅道漕運 常被倭掠 請令陸轉.

③ 『高麗史』 133卷, 列傳 46, 辛禔 2年(1376) 閏(9)月條: 因倭寇水路阻梗 罷漕運 全羅 楊廣 慶尙 沿海州郡 僑賦有差.

④ 『高麗史』 133卷, 列傳 46, 辛禔 4年(1378) 12月 丙午條: … 憲府上疏曰 近因倭寇 漕運不通 倉廩虛竭 除省宰封君 外其餘封君 請勿頒祿.

⑤ 『高麗史』 134卷, 列傳 47, 辛禔 7年(1381) 6月條: 料物庫及諸倉庫告罄 因倭寇與旱災 未納貢賦故也.

87) 張學根, 『바다와 韓國의 歷史』, 淵鏡文化社, 1998, p.135.

88) ① 鄭道傳, 『三峰集』 13卷, 朝鮮經國典 上, 賦典, 漕運條: … 國家三邊濱海 內有大江 漕運由之 民力可省 自倭寇作耗 沿海州郡 舍水而陸 崖險谷隘 秋凍冬雪 人夫疲頓 牛馬踴踏 民甚苦之 殿下即位 命有司修戰艦 增戍卒 水攻陸守 倭寇進不得掠 退無所獲 於是遠運 而海運通 陸輸州郡 遠者不過四五百里而達于江 民力省而國用裕 然吏不得人 措置之方 小失其宜 則言隨以生 不可不察也.

② 『高麗史』 118卷, 列傳 31, 趙浚條: 司囊每歲 遣人於諸道 監造內用瓷器 一年爲次 憑公營私 侵漁萬端 而一道 馱載至八九十牛 所過騷然 及至京都 進獻者 皆百分之一餘 皆私之弊 莫甚焉.

89) 國立海洋遺物展示館, 『務安 道里浦 海底遺蹟』, 2003.

90) 『高麗史節要』 卷34, 恭讓王 元年(1389) 12月 壬寅條: 司囊每年 遣人於各道 監造內用瓷器 一年爲次 憑公營私 侵漁萬端 而一道 馱載至八九十牛 所過騷然 及至京都 進獻者 皆百分之一餘 皆私之弊 莫甚焉.

91) 李齊賢, 『益齋亂藁』 卷4, 小樂府條: 耽羅地狹民貧 往時全羅之賈販盜器稻米者時至而稀矣….

92) ① 『高麗史』 89卷, 列傳 2, 后妃 2, 銀川翁主 林氏條: 銀川翁主林氏 商人信之女 丹陽大君之婢也 賣沙器爲業 王(忠惠王: 在位 1330~1332年, 1339~1344年)見而幸之有寵 ….

② 『高麗史』 109卷, 列傳 22, 李兆年條: …初商人林信女 丹陽大君之婢也 賣沙器爲業 王見而幸之有寵 授信大護軍.

출토품도 공납용보다는 상품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⁹³⁾ 이는 泰安 馬島 1호선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내용이다.⁹⁴⁾ 또한 群山 飛雁島 해저유적은 번조 과정에서 실패한 제품을 선별하지 않고 燻造한 상태로 운반하고 있는데⁹⁵⁾ 공납품이라면 선별하여 적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당시에도 立稻先賣의 상품 경제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예라 하겠다. 따라서 일찍부터 청자의 상품화가 진행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고려는 중국·일본과 다양한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에서 출토되는 고려청자의 양은 매우 한정적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교역보다는 사절 등을 통한 제한적 교류와 고려청자 기호자에 의한 소규모 교역을 중심으로 대외 수출이 실시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1350년대 본격적인 왜구 침입 이전에는 사신 왕래에 의한 公貿易과 중국을 경유하여 고려청자가 유입되었으며 鎌倉과 京都地域에서 특히 많이 출토되고 있다.⁹⁶⁾ 1350년대 이후에는 九州地域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 이는 왜구의 약탈과 포로 송환을 위한 고려와 九州地域의 잦은 교류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⁹⁷⁾ 그리고 최근 중국의 杭州와 寧波 등에서 고려청자의 출토량이 증가하고 있어⁹⁸⁾ 고려청자 교역의 기록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⁹⁹⁾ 따라서 중국에서 출토되는 고려청자에 대해서까지 대상을 넓혀 연구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겠다. 이 외에도 琉球王國과 臺灣 등에서 고려청자가 출토되고 있어 고려의 교역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¹⁰⁰⁾

IV. 맺음말

강진 지역이 고려시대 전 기간 자기소로서 국가 주도의 도자를 생산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통해 고품격의 청자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강진에서 청자가 생산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토착 세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비색청자의 등장과 탐진 최씨의 중앙 정계 진출, 영암군에서 장흥부로의 행정영역의 변화가 거의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더욱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강진 청자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도자 생산의 중심지인 耽津縣과 大口所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 글도 실물 자료와 사료의 한계로 많은 오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많은 자료들이 조사되고 연구된다면 도자의 생산체제와 유통구조가 뚜렷하게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발굴 조사된 泰安 竹島 海底遺蹟은 도자사 연구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유통 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목간과 함께 생산지를 알려주는 'X'문이 새겨진 청자가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태안 죽도 해저유적 출토 청자는 고려 중기 康津 沙堂里 35號(沙堂里 新7號)를 중심으로 생산되어 耽津의 在地勢力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선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⁰¹⁾

93) 태안 죽도 해저유적 출토 목간은 받은 사람의 뒤에 붙는 수식어에 의해 '崔大卿宅上'과 'o將命宅上', '隊正仁守戶付' '安永戶付', '崔宅下' 등이 확인되는데 宅上과 戶付, 下는 각각 신분의 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 목간과 함께 출토되는 청자의 품질과 기종, 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면 신분적 차이에 의한 품종과 경제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崔大卿宅上'은 필획도 뚜렷하고 상태도 좋아 유력자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94) 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 마도 1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2010.
② 박종진, 『마도선은 조문선이 아니다』, 한국역사연구회(<http://www.koreanhistory.org>), 2010.

95)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군산 비안도 해저유물』, 2004.

96) ① 韓盛旭, 『日本 鎌倉出土 高麗靑瓷의 研究』, 『東亞文化』 創刊號, 東亞文化研究院, 2005, pp. 153~207.
② 韓盛旭, 『日本 京都 出土 高麗靑瓷의 現況과 性格』, 『韓國中世史研究』 25, 韓國中世史學會, 2008, pp. 441~475.

97) ① 國立歷史民俗博物館, 『日本出土의 貿易陶磁』, 1994.
② 大阪市學藝員等共同研究實行委員會, 『海を渡つた靑色のやきもの—日本出土の高麗靑磁—』, 2001.
③ 降矢哲男, 『韓半島産陶磁器の流通—高麗時代の靑磁を中心に—』, 『貿易陶磁研究』 22, 日本貿易陶磁研究會, 2002.

98) ① 朱勇偉·陳鋼, 『寧波古陶瓷拾遺』, 寧波出版社, 2007.
② 馬亦超, 『南宋杭州 修內司官窯 研究』, 中國美術學院出版社, 2006.

99) ① 羅濬, 『寶慶四明志』 卷6, 郡志 6, 敘賦下, 市舶條, 1226.
② 王厚孫, 『至正四明續志』 市舶條, 1342.

100) 韓盛旭 外, 『흥으로 빛은 보물 扶安靑瓷』, 學研文化社, 2008, pp.173~229.

101) ① 尹龍二, 『康津郡의 陶窯址』, 『康津郡의 文化遺蹟』, 木浦大學校博物館, 1989.
② 崔淳雨, 『韓國靑磁陶窯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③ 海剛陶磁美術館, 『康津의 靑磁窯址』, 1992.

한편 강진청자의 성격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현재 보존 위주로 관리되고 있는 대구면 지역의 청자 가마터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즉,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시기별, 유형별 가마터를 발굴 조사하여 강진 더 나아가 고려청자의 객관적 편년 수립을 비롯한 고려청자 연구의 난제들을 해결하여야 하겠다. 또한 이들 발굴 자료들을 교육과 문화자원으로 활용하여 강진 청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유도하여야 하겠다. 강진은 고려청자뿐만 아니라 조선 분청자와 백자 가마터 등 다양한 도자 가마터가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가마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청자 문화가 어떻게 계승되고 발전되었는가를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강진 지역은 無爲寺와 月南寺, 白蓮寺 등의 大刹과 兵營城 등의 官衙, 古墳 등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고려청자의 강진 내 소비 관계도 밝혀야 하겠다.*

* 이 글은 韓盛旭 「康津 靑窯의 生産과 流通」, 『文化史學』 34, 韓國文化史學會, 2010,을 수정 보완하여 재작성하였다. 그리고 최사전 묘지명 사진은 국립광주박물관, 가마터 전경 사진은 동방문화재연구원에서 제공하였다. 또한 가마터 위치도와 분포도는 해강도자미술관의 도움을 받았다.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이들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고려청자 천년만의 강진 귀향

Goryeo Celadon, Returning to Gangjin
After a Millennium

발행 강진청자박물관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33 (사당리 127번지)
Tel _ 061) 430-3712~3722

편집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전남 목포시 옥암동 960-4
Tel _ 061) 285-8335~8336

디자인 무진주디자인연구소
Tel _ 062) 233-9235~9236

인쇄 종로인쇄
Tel _ 062) 227-2139

인쇄일 2011년 7월 25일

발행일 2011년 7월 30일



강진청자박물관